현대불교

창간 20년 2014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09호 2014년 9월 11일 목요일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8월 18일) · 주간



원택 스님(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성철 스님 阿難시봉 40년…
발차취 따라 걸으면 진면목 보여
16 · 17면



금주의 법구-〈잡보장경〉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춰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다.

조계종 대각회 "특별교구 종회의석 배정 노력" 합의

(재)대각회의 조계종 법인 등록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조계종과 대각회가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인관리법)과 관련한 '이행합의'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대각회 이사장 도업 스님은 9월 1일 그간 조율해 온 '이행합의'에 비공개로 최종 합의했다.

비공개 이행합의서는 5개항으로 작성됐으며, 그 바탕에는 2000년 합의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행합의는 △대각회를 종단 특별교구화하고 중앙종회의석 배정을 위해 노력한다 △대각회에 포교원으로 등록된 사찰에 대해 재단에 재산등록을 할 수 있도록 2년 이내에 유예기간을 둔다 △용성 스님과 관련된 불사와 유적지 등 신규 사업은 대각회에 등록토록 한다 △법인관리법 부칙 2조 2항에 따라 종단에 법인 등록하면 대각회 사찰은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분담금을 조정할 때는 대각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분담금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계종은 2000년 합의에 이미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조계종과 대각회는 2000년 합의문을 통해 용성문도회 소속 스님이 설립한 사찰에 한해 20개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규 사찰을 허용하고 대각회서 요구하는 특별교구화 등의 법인 처우 문제는 종헌 개정 시 다루도록 한다 등을 결의한 바 있다.

조계종 총무부장 정만 스님은 "양측이 비공개 결의를 했지만 숨길만한 내용은 없다"면서 "법인관리법과 종법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합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교구화와 종회의원 배정에 대해서는 "특별교구화는 이미 2000년 합의에 있는 내용이고, 교구화가 되면 종회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대각회에서 주장한 것"이라면서 "특별교구화와 관련된 사항은 종법 개정이 필요하고 이는 총무원이 확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 같은 요구에 총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행합의를 조율했던 대각회 이사회 관계자 역시 "이 같은 사항은 2000년도 故 정대 스님과 이미 합의된 내용으로 그동안 종단이 지키지 않은 것을 촉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대각회 분원장들은 법인관리법에 종단 등록 시 4년마다 주지인사고과 등 평가가 진행돼 창건주 위치가 위험할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종단과는 대각회 이사들과 분원장 스님들이 의심되는 부분을 종령과 시행령에 반영해 보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일 양측 비공개 이행 합의
대각회 법인 등록 가속화

2년간 불이행시 파기 '미봉책'
타 법인들과 형평성 논란도

"2000년 합의 내용 기준한 것
선학원도 협의되면 적용 가능"

하지만 대각회 이사회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행합의서에는 거론되지 않았지만 대각회 이사회는 지난 8월 26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법인 등록 조건으로 합의 이행 시한을 2년으로 규정했고, 이행 되지 않을 경우 파기하기로 했다. 만약 이 같은 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다시 갈등이 촉발될 수 있는 여지가 남은 것이다.

분원장들도 우선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자는 분위기지만 잠재적인 반대여론도 많아 향후 걸림돌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난 8월 11일 열린 분원장 중진 스님 비상회의서 이 같은 여론은 확인된 바 있다.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전체 170여 분원 중 130여 분원이 반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반이 넘는 무시하지 못할 숫자다.

실제로 법명을 밝히기를 꺼리는 한 분원장 스님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합의하더라도 안 지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동안 많이 겪어왔다"면서 "일부 대각회 이사들이 야합을 한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강하게 토로했다.

또 다른 분원장 스님도 "개인적으로 조계종 승려로 30년 넘게 종단의 후원과 혜택을 받으며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만약 대각회가 조계종에 법인 등록을 한다면 대각회를 하나의 교구로 인정해야 한다. 종회의원 배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이행 합의를 지켜본 교계의 한 법인 관계자는 "대각회의 목적사업 및 포교원 등록 유예라는 특혜에 대해 다른 중소 사찰 보유법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법에 반영하지 않은 예외가 생기게 되어 법인관리법 도입의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또한 "대각회와의 이행합의 전례를 들어 여타 법인들이 합의를 요구할 경우 법인관리법 본래 취지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며 "지난 종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은 바로 잡지 않고 법인관리법을 통한 종단 등록을 추진하기 위해 대형 법인들과 합의하는 것은 다른 중소 법인들이 불만을 제기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만 스님은 "이번 합의는 기존 합의안의 테두리 내에서 신축성을 둔 것"이라며 "선학원 등 다른 법인도 마찬가지로 협의를 통해 종도로서 의무를 다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소통의 문을 열어 놓겠다는 의미"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 신성민 · 노덕현 기자

종교계, 자살예방 나선다

7대 종교 · 보건복지부 1일 자살예방캠페인 협약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7대 종교계가 우리사회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나선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는 9월 1일 서울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열린 자살예방의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와 자살예방을 위한 범종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종교계는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정부와 공동을 추진한다.

자승 스님은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종교계가 앞장 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자살문제는 정부, 시민사회, 종교계가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승 스님은 "협약을 계기로 전 사회적으로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협약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 모두가 생명존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면 자살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각 종교대표들은 핸드프린팅 퍼포먼스도 진행하고,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자살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해서는 안된다는 '생명사랑 지키기' 7대 선언을 발표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자살예방의날 기념식에서 각 종교대표들은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자살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해서는 안된다는 '생명사랑 지키기' 7대 선언을 발표하고, 이를 기념하는 핸드프린팅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조계종 교육원 실크로드 불교유적 순례단은 9월 2일 중국 우루무치 천산 천지에서 마지막 일정으로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추모재를 봉행했다. (사진 왼쪽부터)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前 포교원장 혜총 스님, 종책특보단장 정념 스님과 참가자들이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다.

사진=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실크로드 순례단 세월호 추모재

2일 우루무치 천산 천지서… "슬픔 벗어나길" 발원

8월 27일~9월 3일 순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모든 영령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충의열사, 6.25 전쟁이라는 참화로 생명을 잃은 전 세계 참전 군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승려 연수 교육의 일환으로 개최한 '실크로드 불교유적 순례'에 참가한 순례 대중은 9월 2일 중국 우루무치 천산 천지에서 마지막 일정으로 세월호 희생자 등을 위한 추모재를 봉행했다.

순례 대중은 거불 의식과 아미타불 정근, 반야심경 봉독을 진행했으며, 노란 리본을 달아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순례단 지도법사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꽃다운 영혼들과 일반인들이 극락왕생하고 가족들이 빨리 슬픔에서 벗어나길 발원했다"면서 "여법하게 단을 차리지 못하고 약식으로 진행했으나 정성을 다해 기원했다. 중생들의 행복을 바란다"고 말했다.

실크로드 불교유적 순례는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순례단은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서안 법문사 진신보탑에서 입재식을 봉행했다.

설정 스님은 "실크로드를 통해 많은 구법승들이 법을 구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면서 "옛 선지식들이 걸어간 이 험로의 일부를 후학인 우리가 일부 순례하고 그 발자취를 돌아보려 한다"고 순례의 의의를 설명했다.

구법승들의 서역으로 가는 길을 그대로 답사한 순례단은 중국 서안을 출발해 천수의 맥적산 석굴, 난주의 병령사 석굴, 돈황의 유림굴 · 막고굴, 투르판 바제크릭 석굴 · 명사산 등을 찾았다. 중국=신성민 기자

〈관련기사 5면〉

현대불교 지사모집

현대불교신문 지역 주재기자 및 지사장을 모십니다

모집 지역 및 부문
- 부 산: 부산지역 일원에서 활동할 주재기자 및 지사장
- 충 청: 충청남북도 일원에서 활동할 지사장

지사 사업 내용
- 지역 내 독점 구독 확장 및 광고 수주 및 수익 사업 전개
- 기사 제보 및 취재 활동 지원

구비서류 및 제출기한
-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포교활동 계획서, 추천서(스님/단체장) 다만, 주재기자는 포교활동계획서, 추천서 제외
- 제출기한 : 모집 완료시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제 출 처

서울 종로구 수송동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신문사
문 의 : 관리부 서춘건 부장
전 화 : 02)2004-8204 팩 스: 02)737-0698
이메일 : cgseo@hyunbul.com

성 명 서

도산이 근래에 나를 표적으로 삼아 근거도 실체도 없는 허위 사실을 날조 유포하여 명예를 크게 훼손할 뿐 아니라 불법적인 징계로 평생의 승려 신분에 커다란 오점을 남긴 것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초심원 판결문을 요약하면 청문회에 불참했고 봉원사와 태백 관음사 문제에 인장을 도용,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종단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멸빈과 함께 41억을 배상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성결핍자의 철없는 작란으로 취급, 치지도외(置之度外)하려 했으나 신문을 본 사람들은 진실을 오해하여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간략하게나마 징계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1. 봉원사 관련 종단명의 부채문제

봉원사와 직, 간접으로 관련된 종단 명의의 부채는 세 종류다.

첫째, 2007년 4월 5일자 당시 환우(조상길)주지와 운산 총무원장과의 합의로 봉원사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한 46억건이다. 이 부채는 대출 당시 채무자가 종단으로 되어있었으나 2010년 5월 28일 채무 이행자를 봉원사로 전환하였으며 2012년 6월 11일 상환이 모두 완료된 상태로 종단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 2010년 채주를 봉원사로 전환할 당시 인장을 도용하여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나 이때는 총무원장 인공, 봉원사 주지 일운, 화광씨엔씨대표 신경순 세 사람이 연명으로 확약서만 제출 했을 뿐 은행에서 별도의 회의록을 요구한 적이 없어 인장도용주장은 허위다.

둘째, 2006년 4월 7일자로 이운산 총무원장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종단이름으로 대출하여 화광씨엔씨 대표 신경순(납골당 2분의 1지분 보유) 에게 준 15억 (신경순 말에 의하면 15억 중 신경순이 7억 7천을 사용하고 7억 3천은 운산스님이 가지고 갔다고 한다) 건은 순전히 운산과 신경순 개인 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진 일로 봉원사는 알지도 못하고 전혀 관련도 없다.

셋째, 2007년 6월 29일 납골당조경업자(주) 미래불 김규배가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 당시 이운산 총무원장(사단법인 이사장)이 보증해준 5억건이다. 위에서 적시한 봉원사 관련 부채는 누구와 협의 없이 운산스님 혼자 한 일로 봉원사와 하등의 관련이 없다. 이 사람들은 봉원사 납골당과 관련된 개인 사업자로 개인사업자가 봉원사 일을 하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했다고 하여 그것이 봉원사 부채가 될 수는 없다. 운산스님은 종도에게 보낸 유인물에서 후임 총무원장이 부채를 상환하지 않아 20억의 빚이 40억이 되었다며 그 책임은 인공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돈이 종단공식부채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대출과정이 합법적이어야 하고 또 하나는 대출한 돈이 종단 통장으로 들어와 종단사업에 쓰여 져야 한다. 그러나 이 둘 다 아니다. 대출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루어 졌을 뿐 아니라 돈이 종단에 들어오거나 종단 일에 사용한 흔적도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 채무는 종단이 공식채무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후임 총무원장이 갚아야할 의무가 없다.

2. 태백 관음사 등기 이전 승인문제

태백 관음사는 강원종무원이 관리하고 있는 공찰로 지방종회의 결의와 종무원장과 신도회장의 요청에 의해 사찰은 그대로 두고 등기 명의만 사단법인에서 "한국불교태고종관음사"로 이전했을 뿐 재산을 처분하거나 없어진 게 아니다. 등기 변경과정에 필요한 서류(회의록)는 등록 이사의 동의를 받아 합법적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으며 실무자가 이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허위문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초심원 징계는 원천 무효다.

첫째, 기본적인 절차법(규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임의대로 처리했다.

둘째, 소급입법은 무효다. 청문회 특별법을 만든 것은 2014년 3월 26일로 제정된 법령은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종단 부채 문제는 7, 8년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나와는 무관하다하지만) 과거의 사건을 이제야 법을 만들어 처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셋째, 의도적인 표적징계다. 징계 대상자는 과거 삼부기관장을 역임했거나 동방대학 학장을 지낸 종단 중진으로 징계를 당할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징계를 단행을 했다. 이는 분명한 표적 징계다.

4. 신문에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

지난 8월 30일 한국불교신문을 보면 내가 봉원사 주지 당시 납골당 봉안증서 800여장을 불법으로 발행하여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것이 종단 부채발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비난성 기사가 실려 있다. 나의 봉원사 주지 재임기간은 1999년 ~ 2004년으로 2002년부터 납골당 시설공사가 시작된 것이 사실이나 2004년 12월 주지 임기 만료시 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퇴임했다. 당시 납골당이 미완의 상태에서 봉안증서를 발행하게 되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고문 변호사의 자문에 있어 나의 주지 재임 중에는 봉안증서를 한 장도 발행한 적이 없다. 신문에 게재된 박일동 이름으로 된 봉안증서는 내가 주지를 퇴임한 후 다른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문서로 나와는 무관하다. (이 사안을 규명하기 위하여 당국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다.) 또한 동일자 신문은 내가 자월스님과 모 전직 총무원장을 찾아가 우리 일에 협조해주면 종명을 바꾸어 종정으로 모시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기사가 실려있다. 이 또한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는 종정스님을 이간시키기 위하여 꾸며낸 망발이다.

결론적으로 징계 사유는 모두 꾸며낸 거짓으로 일고의 가치가 없다. 특히 봉원사 불사로 종단이 손해를 입었으니 41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은 황당무계하여 대꾸할 가치가 없다. 봉원사 역시 어떠한 경우라도 종단에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 부채 문제이건 봉안증서 문제이건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봉원사가 책임질 문제이지 종단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전 총무원장이 종단을 이용하여 봉원사 업자들과 어울려 부채를 거래한 것이 문제이지 이들이 봉원사 납골당 업자라고 해서 봉원사가 개인이 진 빚을 책임질 이유는 없다. 도산은 퇴출위기에 몰리자 수하들을 몰고 종정실에 난입하여 시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원로회의 결의를 재가한 종정예하를 감금하고 위협하며 불온문서에 강제로 날인을 받아 내는 등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분명한 탄핵 대상이다. 나는 이처럼 개념 없이 행동하는 도산에 대하여 민, 형사간의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4년 9월 일

한국불교태고종 전 총무원장 박 인 공

■ 인공문도회 제자 : 도진. 상하. 진성. 홍인. 보광. 청암. 법정. 법광. 수완나. 자원. 보원. 법련. 행담. 혜원. 성원. 지암. 명원. 묘현. 보광. 지원. 경원. 법일. 대산. 법훈. 지광. 법운. 혜산. 미산. 법현. 동선. 성일

“마곡사 선거 문제, 신속하게 법 집행하라”

조계종 결사추진본부 운영위, 8월 27일 성명서 발표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이 금품수수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조계종 결사추진본부 운영위원회(위원장 도법)가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결사추진본부는 8월27일 열린 제2차 결사운영위원회에서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과 비승가적 구태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결사추진본부 운영위원회는 성명서에서 “마곡사 금권선거의 검찰기소를 보면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2012년 선거법을 제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하는 등 제도적 측면에서 노력했으나 일부 후보자와 선거권자의 종법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종단 사정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은 종도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급기야 작금에 이르러 종단내부의 비승가적 선거문화에 대해 검찰이 기소함으로서 종단 자정능력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결사추진본부 운영위원회는 “부실한 관리운영으로 인해 다가오는 중앙종회의원 선거 또한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깊은 성찰과 공심을 가지고 대의기관인 중앙종회 의원으로서 자질과 원력을 갖춘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종책모임인 삼화도량(회장 영담)은 결사본부의 이 같은 성명을 환영하는 논평을 내고 현 주지 스님에 대한 면직도 촉구했다.

삼화도량은 논평을 통해 “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매우 시의성 있는 지적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앙징계위는 주지 원경 스님에 대한 면직 또는 직무정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노동위 2기 출범…위원장 혜용 스님

자승 스님 3일 위촉장 수여

조계종 제2기 노동위원장에 전 종교평화위원장 혜용 스님이 선임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9월 3일 위원장 혜용 스님을 비롯 부위원장 덕본 스님, 권승복 위원 등 제2기 노동위원 11명을 위촉했다.

혜용 스님은 “전임 위원장인 종호 스님께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노동계 신뢰를 구축한 만큼 2기 노동위 역시 그 기반으로 소외되고 억압받는 노동자들의 문제가 원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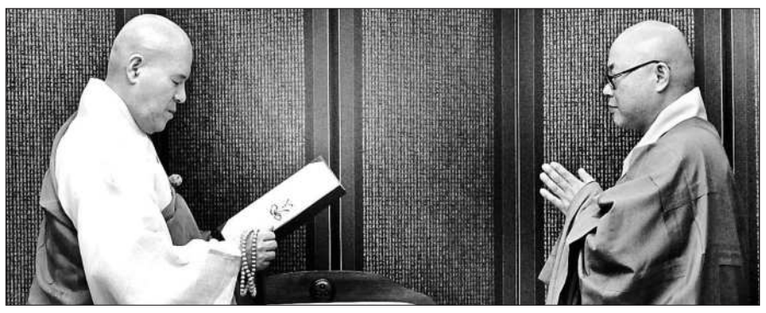
앞으로 노동위는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운동, 노동현장에 있어서 성소수자 차별문제 토론회, 비정규직 학술 토론회, 종교간 노동문제 대응기구 구성, 연말 노동자 동사섭법회, 노동자 명상, 심리상담 등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호흡을 맞춘 것은 2년 밖에 되지 않는다. 앞으로 노동자들 편에서 열심히 활동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기 노동위 위원은 당연직인 정문 스님(총무원 사회부장), 혜용 스님(전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덕본 스님(용주사 사회국장), 도철 스님(경산 불광사), 동환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생), 효록 스님(중앙승가대 강사), 재마 스님(중앙승가대 박사과정) 등 7명과 권승복(전 공무원노조위원장), 박문진(전 민주노총부위원장), 유승무(중앙승가대 교수), 백신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씨 등 재가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노동위원회 사업을 집행할 집행위원으로는 철도, 지하철, 공무원, 전교조, 학교비정규직, 보건노조, 노동자심리상담, 노무사 등 다양한 노동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9명의 노동자를 비롯해 빈곤, 문화예술 ,성소수자 인권 운동 활동가를 포함해 15인으로 구성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9월 3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2기 조계종 노동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선출된 혜용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총무원장 직선제, 사부대중 힘 모으자”

9월 2일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 사부대중연대회의 출범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를 실현하기 위한 연대회의가 발족했다. 조계종 종책모임 삼화도량을 비롯해 불교 각계 인사들은 9월 2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실에서 연대회의 발족식을 갖고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을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연대회의 발족식에는 발기인인 조계종 前호계원장 법등 스님, 前호법부장 도진 스님, 삼화도량 회장 영담 스님, 학담 스님, 前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 前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성총 스님, 정상옥 前대한불교청년회 회장 등과 공동집행위원장으로 법일, 경성, 혜림, 장명 스님 등 전현직 종회의원들과 김경호 지지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연대회의를 대표해 법등 스님은 “지난 15대 종회에서 절차상의 문제로 실현되지 않은 총무원장 직선제를 16회 종회가 되기 전 공론화시키기 위한 모임”이라며 “선거 공약사항임에도 마직막 종회에서 상정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현 제도에서는 많은 종도들의 생각을 담아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창립 취지를 밝혔다.

법등 스님은 이어 “공론화 단계가 필요하기에 16대 종회가 구성되기 전 종도들의 참여정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선제 분위기가 확산돼 전반기에 총무원장 선거법을 개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창립 취지문을 통해 “94년 종단 개혁은 87%가 원한 총무원장 직선제를 실현하지 못한 미완의 개혁이었다”며 “34대 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 자승 스님 공약으로 직선제 실현을 제시했지만 198회 임시회에 올라온 개정안은 공론화 과정

승랍 10년 기준, 직선제 도입 골자
16대 종회 출마자 서명, 대중 홍보
작은 총무원 기치로 연대 ‘발돋움’

을 거치지 않았고, 결국 원점에 서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종단 민주화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원융화합의 항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응답에서 직선제의 범위에 대해 영담 스님은 “상좌를 둘 수 있는 승랍 10년을 직선제 선거권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며 “재가자 선거권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의 문제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발족식 이후 참여한 스님들과 재가단체 대표들이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에 동참하는 서명을 보이고 있다. 연대회의는 발족식 이후 16대 종회의원 출마자들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영담 스님은 “향후 16대 종회의원에 출마하는 스님들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비구니 스님들에게도 서명을 받을 계획이며,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발기인으로 참여한 명진 스님은 “먼저 선거를 통해 총무원장을 뽑자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며 “예전 총무원장에 집중된 권력이 준직선제 이후 330여 명으로 나뉘었지만 역시 돈 · 이권에 얽혀있다. 조계종이 돈과 연관 안 된 곳이 어딨냐는 실랄한 비판이 있어야 변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법등 스님은 “현행제도에서는 각 교구별로 본사 주지 외에 9명씩 선거권을 갖는데 대부분 매번 참여하는 이들이 하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의 불만이 많았다. 모든 이들에게 선거 참여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연대회의 측은 이날 3원 체제 개혁에 대해서도 바뀌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대회의 측은 “94년 개혁 당시 논의된 완전 교구제가 목표”라며 “총무원은 감사권과 호법권 정도를 지닌 ‘작은 총무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영담 스님은 끝으로 “원로의원 스님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며 “상원 격으로 모든 본사에서 원로 스님을 모시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원로 스님들에게서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여한 인사들은 직선제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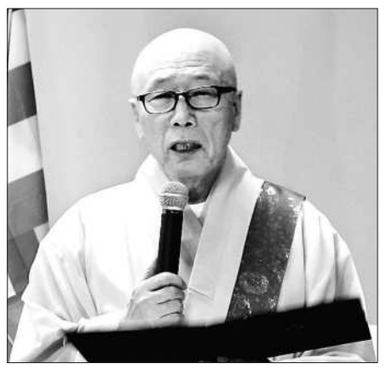
“부채 책임자 문책 없이 종단 화합 어렵다”

도산 스님 9월 2일 담화문 발표
“경책 달게 받겠다”… 퇴진 없어
“2년 시간 준다면 부채 해결할 것”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바라는 원로회의 큰 스님들의 우려가 담긴 퇴진 권고에 대해 겸허한 마음으로 귀담아 듣고자 합니다. 특히 원로회의 스님들의 저에 대한 질타와 경책은 가슴 깊이 새기겠지만, 종도들의 염원인 개혁열망에 대한 의지는 결코 굽히지 않겠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스님이 지난 원로회의 퇴진 결의에 대해 9월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물러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담화문을 통해 밝혔다.

서울 사간동 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회의실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청문회를 반대하는 일부 세력들이 종무행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몇몇 소수의 스님들이 종단을 쥐락펴락했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경한 어조로 밝혔다.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9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어 스님은 “구태세력에 의해 종도들의 개혁열망이 또 한 번 무너진다면 한국불교 태고종은 더 이상 회생 동력을 잃고 말 것”이라며 “전통종단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는 그 길을 위해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걸어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담화문 발표에 이어 종단의 화합 방안을 묻는 질문에 도산스님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해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종단 부채에 관련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을 징계하지 않고서는 안정은 무의미할 뿐”이라며 “총무원이 징계하면 종정 스님이 사면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채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태고종 발전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으면 한 달에 10억원씩 수입이 창출될 수 있었지만 지난 3월 청문회로 인해 발목이 잡혀서 중단된 상태”라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2년의 시간만 준다면 부채 해결에는 자신이 있다”며 “의무금을 인상해서 경상비를 맞춰주고 외부에서도 마련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종무원장협의회는 도산스님의 담화문 발표에 앞서 회의를 열고 △원로회의 의결은 종단 혼란을 야기시키는 종법권한 밖의 행사이므로 의결을 철회하고 원로회의 본연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종정예하에 대한 불경행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해종 행위로 간주한다 △현 종회의장 직무대행인 수석부의장을 중심으로 종회 논의를 통해 이번 사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한다 등 3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학담평석 아함경’ 전집 후학 위해 법보시 ‘눈길’

삼화도량, 16개 승가대학 보시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삼화도량이 〈학담평석 아함경(한길사)〉 12권 전집을 16개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에 법보시했다.

삼화도량은 8월 29일 삼화도량 고문인 학담 스님이 30여 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장아함경’, ‘중아함경’, ‘잡아함경’, ‘증일아함경’ 등 4아함경을 이 시대에 맞게 풀어쓴 원력에 경의를 표하는 뜻에서 〈학담평석 아함경〉 12권 전집을 16개 승가대학에 전달했다.

16개 승가대학은 해인사, 송광사, 수덕사, 범어사, 불국사, 쌍계사, 화엄사, 동화사, 통도사, 백양사, 법주사, 직지사 등 사미 교육기관과 동학사, 운문사, 청암사, 봉녕사 등 사미니 교육기관이다.

대변인 장명 스님은 “학담 스님은 특유의 혜안으로 4아함경을 이 시대 대중에게 대기설법하고자 귀명장, 불보장, 법보장, 승보장 등 4장으로 구성했다”며 “후학들이 불법의 오묘한 진리에 눈 뜰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16개 승가대학에 법보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사) 대한불교 조계종 승가회 종도모집

순수한 불제자로서 수행과 포교만을 위해 함께 하실 제방의 큰스님들을 모십니다.

원장 석경보 / 사무총장 석도연

본 대한불교 조계종 승가회는 석가모니의 교리를 받들어 널리 중생을 괴로움에서 구제하고자 석가모니의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사랑한 가르침을 통해, 인간은 자연과 공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마음속의 행복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우치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과 걱정 그리고 그에 따른 많은 사람들의 슬픔은 가실 수 없다. 인류의 삶에서 무한하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고 불평등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 인간에게 불만과 불평 그리고 분노는 끊어질 수 없습니다. 공포, 불안, 걱정, 슬픔, 불만, 불평, 분노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괴로움이라합니다. 본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는 석가모니의 깨달음을 통해 인간에게 행복한 삶을 목표로 그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 대한불교 조계종 승가회 총본산 제동산 관음사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제동길 43번길 13-11 (제동리 321-2번지)
전화 : 055)295-5100. 742-0246 / 사무총장 010-6328-2773 홈페이지 : http://www.jogyejong.org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총본산 비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증 전후면 사진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사찰 법당 내외부 사진1매
- 타종단 계첩 및 승려증 사본

2 발급 증명서
- 승려증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간부 스님 임명장

문의 : ☎055)295-5100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대승적 화합을”

조계·천태종 세월호법 호소문… 5대 종교 기도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과 천태종이 호소문을 발표하고 5대 종단 단체들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지난 8월 21일 광화문 세월호 단식농성장을 방문한데 이어 8월 31일 긴급호소문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자승 스님은 호소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는 국민 모두의 아픔이었으며, 그 고통을 잊지 않겠다는 국민적 합의는 소중한 약속”이라며 “진실 규명과 국가 혁신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의 첫걸음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는 장외가 아닌 국회에서 진지하고 끊임없는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한다. 나라가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지금,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민생법안 처리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승 스님은 또 “유가족과 함께하겠다는 국민의 거룩한 마음을 믿고 짐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도 9월 1일 호소문을 통해 정치권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춘광 스님은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재난을 예방하는 지혜를 모으자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정치권의 약속”이라며 “어느 순간부터 정치권은 세월호 특별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았고, 온 국민의 아픔을 담보로 극한 대립구도를 연출하고 있다”고 했다. 춘광 스님은 “정치권이 스스로 합의를 깨고 투쟁하고 있으며 이를 보며 국민은 또 한 번 좌절하고 통탄하고 있다”며 “국회는 입법기구의 신성한 의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며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자승 스님


춘광 스님

국회·유가족·국민 “대화로 짐 나누자”
실천승가회 등 5대 종교 기도회
국가 안전시스템 전면 개정 촉구

5대 종단 단체들도 세월호 제정을 촉구하는 행진과 기도회를 진행했다. 실천불교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등 5대 종교 단체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5대 종단 종교인협의회’는 9월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도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참여한 단체들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위원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천도교한울연대 등으로 기도회에는 실천승가회 대표 퇴휴 스님,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 前 노동위원장 정호 스님을 비롯한 100여 대중이 참가했다.


실천불교승가회 대표 퇴휘 스님(사진 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5대 종교인들은 9월 1일 광화문 광장에서 우중에도 세월호법 제정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다.

이날 기도회는 서울 종각에서의 문화제로 시작됐다. 우중에도 5대 종교인들은 추모음악을 함께 부르며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어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종각부터 광화문까지 노란우산과 피켓을 들고 행진을 진행했다.

광화문 광장의 기도회에서는 천도교 의식을 시작으로 개신교 기도 및 설교, 불교의 반야심경 봉독 및 관음정근 등 기도, 가톨릭, 원불교의 의식 등이 진행됐으며 끝으로 공동선언문이 발표됐다. 〈호소문 31면〉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7대종교, 희망·치유의 화합축전 연다

종교문화축제, 9월 13일 서울 청계광장서

제18회 대한민국종교문화축제가 9월 1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자승)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민족종교 등 7대 종단이 참여한다. 올해는 ‘너, 나 그리고 우리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종교체험관, 종교문화사진전, 콘서트 등이 개최된다.

또한 각 종단의 특색을 담은 축하공연도 준비돼 축제 흥을 더할 예정이다.

저녁 6시부터 열리는 희망콘서트에는 종교지도자 7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외계층 2백여명을 초청할 예정이다. 콘서트에는 여성성직자 모임 ‘삼소회’, 레인보우다문화 합창단, 퓨전국악 ‘하나연’, 아카펠라 ‘원더풀’, 샌드 애니메이션, 세인트폴 발레단, 비보이 ‘라스트포원’ 그리고 가수 ‘레인보우’가 출연한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이번 축제에서는 올 한해 우리사회 곳곳에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위로를 전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며 “전세계 유일무이한 종단연합축제라는 상징성을 통해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 정신을 일깨우는 어울림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행사취지를 설명했다.

배현진 기자

크리스토퍼 거머 박사 특별 강연

진흥원, 17일 다보법당서



세계적인 임상심리학자인 크리스토퍼 거머 박사(사진)가 현대사회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강연이 열린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은 2014년 ‘대원문화의 달’을 기념해 9월 17일 BBS 3층 다보법당에서 크리스토퍼 거머 박사를 초청해 ‘마음챙김, 자기연민의 힘’을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연다.

크리스토퍼 거머 박사(하버드의대)는 불교의 마음챙김에 근거한 불안과 공황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임상심리학자다. 1978년 이래 명상과 마음챙김 원리를 심리치료에 통합시켜왔다. 현재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임상심리상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02)707-1072

이나은 기자

“전통사찰 도난 화재 예방에 만전을”

자승 스님, 강신명 경찰청장 예방서 강조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강신명 신임 경찰청장이 9월 1일 예방한 자리에서 전통사찰 도난과 화재예방 등 임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먼저 “취임을 축하드리며 임기 내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없도록 축원하겠다”면서 “앞으로 전통사찰 도난과 화재예방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 경승실장인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과 국회 정각회 의원들의 좋은 말씀이 청장 취임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야당 정각회 의원들에게 신경 써준 원학 스님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가족이 모두 봉은사 신도인 강 청장은 역대 경찰청장 중 가장 빨리 청문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승 스님은 이날 “서울과 그 주변 지역에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 많다”며 “전통사찰이 화재로 소실되면 새로 전각을 지어도 전통은 소실된다. 방화로 인한 화재가 없도록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강신명 청장에게 전통사찰 도난 및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허위 날조, 좌시 않겠다”

前총무원장 인공 스님 성명 발표

태고종 분규사태가 심화되는 가운데 태고종 前총무원장 인공 스님이 자신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시킨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공 스님은 9월 1일 성명을 통해 “불법적인 징계로 승려신분에 큰 오점을 남겼다”며 “도산 스님은 퇴출위기에 몰리자 수하들을 몰고 종정실에 난입해 시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종정 스님을 감금, 위협해 불온문서에 날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공 스님은 “봉원사 관련 종단명의 부채문제, 태백 관음사 등기 이전 승인문제 등은 사실과 다르다”며 “근거없는 허위사실로 표적징계를 단행한 초심원 징계도 원천 무효다”고 주장했다.

인공 스님이 주장한 내역은 봉원사 관련 종단 명의 부채문제에서 2010년 종단의 은행 대출건을 봉원사로 채주를 전환할 당시 인장을 도용하지 않았으며 당시 총무원장 인공, 봉원사 주지 일운, 화광씨엔씨대표 신경순 등 세명이 연명으로 확약서를 만들어 낸 점과, 2006년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종단명의 은행 대출 15억 중 신경순 화광씨엔씨대표가 7억 7천을 사용하고, 7억 3천을 운산 스님이 가져간 것은 개인간 일로 관련 없다는점 등이다. 또 태백 관음사 등기 이전은 지방종회 결의 및 종무원장과 신도회장 요청에 의해 명의만 사단법인에서 ‘한국불교태고종관음사’로 이전한 것으로 등기 이전 등이 합법적으로 처리됐다는 것이다.

노덕현 기자

빈곤층 보듬는 무차대회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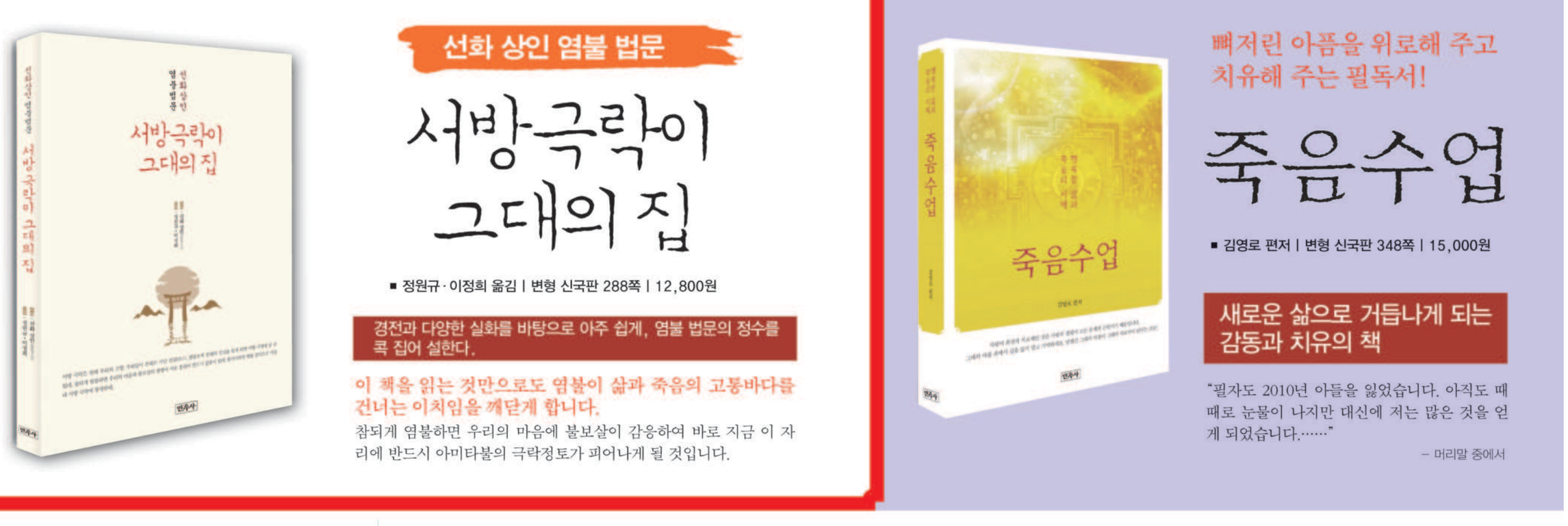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는 빈곤사회연대와 함께 9월 17일 오후 4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2014년 무차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무차대회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단체 회원, 쪽방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회는 ‘이웃을 부처님으로’를 주제로 한 추모의 장과 ‘이들도 함께 살아요’를 주제로 한 어울림의 장 등 총 2부로 마련된다.

노덕현 기자





일 주 문



추석맞이 자비나눔행

서울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은 8월 13~29일 서대문구 어르신 240명에게 삼계탕을, 9월 1일 서대문구 소외계층 120명에게 쌀 120포대를 보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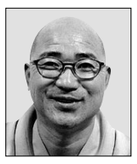
진흥원, 능엄경 강좌

서울 금강선원 선원장 혜거 스님은 9월 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에서 매주 목요일 능엄경 25원통법문 강좌를 진행한다.



금강경 1만독 독송법회

서울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은 8월 2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금강경 1만독 독송법회에 입재했다.



저소득장애인 겨울나기 축제

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 종호 스님은 8월 24일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소득장애인을 후원하는 겨울나기 나눔축제를 개최했다.



우리문화유산강의 9월부터

前 문화재청장 유홍준 교수가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에 대해 9월 15일부터 12월 1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강의를 진행한다. (02)763-8233



자랑스런대한민국대상 수상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이건식 원장이 9월 2일 국회헌정기념관서 2014자랑스런대한민국대상 사회봉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국보인 석가탑과 1:1 크기 그대로"

호국 3층보탑 제막법회 여는 청련사 주지 백우 스님

왕십리에 위치해 있던 태고종 청련사(옛 안정사, 주지 백우 스님 · 사진)가 경기도 양주시 장흥으로 이전 후 '천년 호국도량' 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국보 제 21호인 석가탑을 실물 크기로 재현한 '호국 3층보탑' 을 건립해 화제다.

백우 스님은 9월 2일 서울 평창동 AW컨벤션 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우리 불교문화의 큰 자랑인 석가탑을 1:1 크기로 그대로 재현한 호국3층보탑을 건립함으로써 청련사가 호국 안녕을 위해 건립했던 안정사의 취지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태고종 승정 및 원로급 대종사인 백우 주지 스님은 도량이전과 함께 사찰 성보문화재인 탑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겼다. 이에 대중 스님들과 발원기도를 올리고 3년이 넘는 불사끝에 오는 9월 20일 오전 10시 '호국 3층보탑 점안식 및 제막법회'를 봉행하게 됐다.

백우 스님은 이날 "제막식에 앞서 9월 16일 스리랑카 대통령이 직접 봉증한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 1과를 호국삼층보탑에 봉안할 것"이라며 "이로써 청련사는 명실상부한 통일기원 호국도량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부푼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백우 스님은 "석재도 중국산이 아닌 경기도 포천의 화강석을 사용했으며, 한국문화재기능 995호이며 성공기능협회 부회장인 김한열 보광석재 대표가 맡아 최고의 수준으로 제작했다"고 3층 석탑의 제작과정을 설명했다. 백우 스님은 또한 "탑의 신앙성 문제, 즉 사리를 봉안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2층 탑신석에 석가탑과 똑같은 크기로 공간을 만들었고, 사리공양구도 석가탑과 똑같이 조성했으며, 다만 유리병을 은병으로, 목탑보탑을 철탑으로 대체한 것 빼고는 모두 똑같이 재현했다"고 덧붙였다.



스리랑카 대통령 직접 봉증한 부처님 진신사리 1과 봉안

유리병과 목탑보탑 제외하곤 실제 석가탑 완전 재현

마지막으로 백우 스님은 "우리가 흔히 석가탑서 간과하는 호국신앙을 청련사 호국 3층보탑을 조성하면서 강조하고 싶었다"며 "석가탑 안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나왔다는 것은 이 탑이 호국신앙을 상징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특히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탑 불사를 백우 스님과 함께 기획한 박경식 단국대 사학과 교수도 "옛 안정사인 청련사의 호국사찰 성격답게 탑명칭을 호국 3층석탑으로 정했다"며 "이 탑은 석가탑을 내외부 구조까지 완벽하게 재현한 국내 최초의 탑이 될 것이어서 불교미술사적 의미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특히 박 교수는 경주 불국사 석가탑 해체보수 현장을 방문해 내구구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그대로 재현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기단 내부 적심이 석가탑에는 자연석이지만, 호국 3층보탑에서는 화강암으로 비슷하게 만들어서 쌓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외형은 석가탑과 똑같이 하고, 내부구조도 석가탑을 원형에 가깝게 조성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기부 이후 신도들의 보시 모아"



지난해 5월 30년간 승복을 꿰매 입으며 모은 전 재산 6억원을 기부해 화제가 된 현응 스님이 동국대에 다시 1억원을 기부했다.

동국대(총장 김희옥)는 9월 3일 "그 동안 동국대에 7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전달한 부산 영일암 주지 현응 스님이 또 다시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현응 스님은 사찰이 소재한 기장군에서 4무(無) 스님으로 통한다.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자동차, 인터넷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 스님은 문명의 이기와 담을 쌓고 살아온 지 오래다. 40대 중반에 출가해 출가할 때 생긴 30년 된 승복을 아직도 기워 입으며 지낸다. 수 십 차례 기우기를 반복한 승복은 이제 낡고 헤져 더 이상 손볼 곳조차 없는 상태다. '누더기 스님' 으로 불리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토록 청빈한 삶을 살아온 현응 스님의 아름다운 나눔은 언론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다. 스님은 2007년 사찰이 소유했던 토지가 수용되면서 받았던 보상금 중 1억 원을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발전을 위해 기부했다. 지난해에는 그동안 운영해 온 사찰의 모든 재산 6억 원을 인재불사를 위해 동국대에 기부했다. 이후에도 스님은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을 매학기 동국대에 전달해오고 있다. 계속된 스님의 자비행에 감동한 신도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보시금을 시주했지만, 스님은 이마저도 인재양성을 위해 회향했다. 스님은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정성이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는데 사용된다면 그보다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완도불교문화대학 초청명사 특강

김성훈 前농림부 장관 '장보고와 이순신' 주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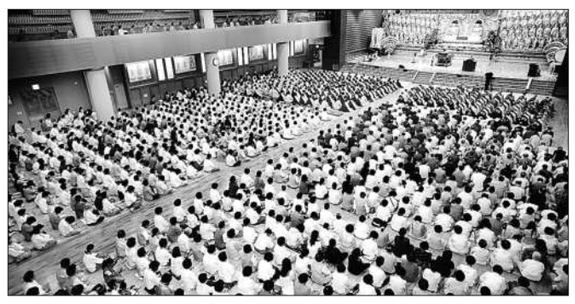


완도불교문화대학(학장 법일)은 9월 3일 김성훈 前농림부장관(사단법인 장보고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초청해 신흥사 교육관 하심당에서 특별강연을 열었다.

완도불교문화대학 2학기 개강식과 함께 진행된 이번 특강은 '장보고와 이순신 그리고 완도' 라는 주제로 열렸다. 강연에는 불교대학 교직원 및 학생, 지역주민들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동삼 완도군 의회 의장, 김주 신흥사 신도회장, 마광남 (사)장보고연구회 회장, 곽태웅 (사)장보고기념사업회 전남지부장 등이 참가해 축사를 전했다.

한편, 완도불교문화대학은 완도지역 최초의 재가불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난해 3월 5일 설립됐다. **노덕현 기자**

천태종 107회 재가불자 하안거 해제



천태종 재가불자 2000여 명이 한 달 동안 구슬땀을 흘리며 정진한 107회 하안거가 원만 회향됐다.

천태종은 8월 30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도용 종정예하, 총무원장 춘광 스님, 종의회의장 문덕 스님, 감사원장 용암 스님 등 사부대중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7회 갑오년 하안거 한달 수도 해제식' 을 봉행했다.

해제식 사회는 교무부장 경혜 스님, 집전은 부 책임노전 구수 스님이 맡았으며 △삼귀의 △찬불가(보현행원) △반야심경 독경 △상월원각대조사법어 봉독(종의회의장 문덕 스님) △국운융창 기원 △해제법어 △해제사 △이수증 수여 △관음정진 △귀가인사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된 이번 구인사 하안거에는 남자 167명, 여자 846명 등 총 1013명이 안거에 동참했다. **김주일 기자**

서울노인영화제 홍보대사 진지희



아역배우 진지희(15)가 '제7회 서울노인영화제'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가 주최하는 서울노인영화제 개막을 앞둔 9월 4일, 진지희는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영화를 제작한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 우리보다 의욕이 넘쳐 멋지다"며 "박해일 삼촌의 뒤를 이어 청소년 대표로 영화제 홍보대사로 위촉돼 영광이다"고 밝혔다.

진지희는 2009년 방송된 MBC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 에 출연, "빵꾸똥꾸야" 를 외치며 인기를 모았다. 홍보대사에는 배우 장광씨도 선정됐다.

제7회 서울노인영화제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를 슬로건으로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극장에서 진행된다. 노인을 주제로 한 단편경쟁작 38편과 초청작 19편을 더해 총 57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올해는 해외초청 부문이 신설됐으며 초청작 중 애니메이션 원화를 전시해 체험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배현진 기자**

조계사 추석맞이 템플라이프



8월 31일 조계사(주지 원명)가 마하이주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진오) 소속 이주노동자들을 초청해 추석맞이 템플라이프 '한아름' 을 실시했다.

명절이 되면 고향이 그리운 이주노동자들의 외로움을 달래고 한국명절문화를 함께 체험해보기 위해 마련된 행사였다.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몽골, 베트남에서 온 이주노동노동자 150여 명은 송편빚기, 연꽃 컵등 만들기를 하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는가 하면 스님과의 차담과 간화선 체험을 통해 잠시나마 마음의 휴식을 찾았다.

조계사 전법국장 지현 스님은 "국적과 말은 다 달라도 우리는 하나"라며 "불교계가 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 안아야 한다. 오늘 하루만큼은 서로를 한 가족이라 생각하고, 한아름 서로 안아주는 시간을 보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 (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조계종 교육원 연수
동서양 문명의 교차로
실크로드 불교유적 순례



조계종 교육원 실크로드 불교 유적 순례단이 9월 1일 투르판의 베제크릭 석굴에서 참선을 하고 있다.



돈황 막고굴에서 위령재를 봉행한 이후 가진 기념촬영 모습.



종책특보단장 정념 스님이 추모 리본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



前 포교원장 혜총 스님이 풍등을 날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천년 구법의 길에 서니 곳곳이 불국정토

동 · 서양 문명의 교차로 실크로드. 말 그대로 당시 중국의 특산품인 비단을 교류하기 위한 상업루트였지만 이 길을 통해 많은 구법승들은 부처님 법을 구하기 위해 인도로 떠났다.

구법승이 실크로드의 시작인 중국 서안(옛 장안)에서 인도까지 가기 위해 걸린 시간은 대략 6년. 지금은 서안과 키르기스스탄까지 5500km의 고속도로가 놓였지만 옛 구법의 길은 험난하기 그지없었다. 실제 문헌에 따르면 740명의 구법승들이 불법을 구하기 위해 인도로 떠났고, 생환해 돌아온 구법승은 63명, 전체의 8.5%에 불과하다. 오로지 신실한 구법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부처님 법을 배우고 전하기 위해 옛 선지식이 걸었던 '구법의 길' 실크로드. 이 길 위에 후학들인 한국의 조계종 스님들이 섰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개최한 '실크로드 불교유적 순례'를 위해서다.

조계종 승려 연수 교육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순례에는 종단의 명망 높은 스님들이 함께 했다. 지도법사로는 이례적으로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이 참여했으며, 순례단에는 前 포교원장 혜총 스님, 종책특보단장 정념 스님과 비구 · 비구니 스님 70여 명이 동참했다.



서안 법문사의 불자들의 신행활동 모습.

8월 27일~9월 3일 中일원서 진행
지도법사 설정 스님 등 80명 참여
동 · 서양문명 교류 현장 실크로드서
옛 구법승의 '위법망구' 정신 배워

맥적산 · 병령사 석굴 위용에 감탄만이
돈황 보존위한 중국 노력 '반면교사'
베제크릭 석굴서 탐욕 · 무지 폐해 절감

"옛 선현의 구법 정신 배우자"

순례단은 실크로드의 시작점인 서안(西安, 옛 장안)의 법문사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다. 부처님 지골사리가 발견된 것으로 유명한 서안 법문사는 대륙적 대찰의 면모를 보여준다. 끊임없이 개보수와 증축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나서 불교와 유교를 경쟁적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졌던 진신보탑에서 입재식을 봉행한 순례단은 이번 순례를 통해 옛 구법승으로 발자취와 정신을 되새길 것을 다짐했다.

설정 스님은 "실크로드를 통해 많은 구법승들이 법을 구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면서 "이중에는 〈왕오천축국전〉을 쓴 혜초 스님도 있다. 옛 선지식들이 걸어간 이 험로의 일부를 후학인 우리가 일부 순례하고 그 발자취를 돌아보려 한다"고 순례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순례가 옛 스님들의 발자취와 향훈을 돌아보고 '위법망구'의 정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자연과 大佛의 조화, 감탄만이

입재식을 마친 순례단은 본격적인 실크로드 탐방을 이어갔다. 차로 8시간을 달려 천수에 도착한 순례단이 찾은 곳은 맥적산 석굴. 중국의 4대 석굴 중 하나인 맥적산 석굴은 깎아진 듯 한 산 절벽 곳곳에 석굴과 부처님 상이 조성돼 있다. 석굴은 동서로 두 부분으로 나눠지며 현존하는 것은 194개다. 동쪽 54굴은 대형 석굴 위주로 대부분 늦은 시기에 조성됐고, 140개 서쪽 석굴은 상대적으로 조성 시기가 이르다.

석굴에 봉안된 불보살상만 7200여 구이고 이들은 대부분은 돌을 깎아 형태를 만들고 진흙으로 모양을 만들어 채색한 '석태니소(石胎泥塑)' 형식으로 조성됐다. 벽화는 1000㎡에 이르며 본생도(本生圖)와 서방정토변상도와 같은 벽화가 그려졌다.

답사에 동참한 유근자 동국대 겸임교수(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는 "맥적산 석굴의 불상은 북위시대 조성된 '수불청상' 형식부터 당나라 시대까지 이어지는 불상을 변화를 만나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교수는 한국 마애불에서 사라져 복원되지 않고 있는 예불 공간인 '전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유 교수는 "서산마애삼존불 등 마애불 앞에서는 일반적으로 예불을 위한 공간인 전실이 있었다"면서 "현재는 이 같은 전실을 복원하고 있지 않다. 전실이 복원돼야 전국에 산재된 마애불들은 단순한 문화재를 넘어 예경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난주에서는 병령사 석굴을 답사했다. 현재 병령사 석굴로 가기 위해서는 40여 분을 배로 이동해야 한다. 이곳에 댐이 건설됐기 때문이다. 병령사가 개착된 난주 용정현은 서쪽으로 하서지역, 동쪽으로는 서안이 이어져 실크로드의 중요한 길목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로 그 옛날 스님과 상인들은 반드시 이곳을 통과해 여행길에 올랐다.

병령사 석굴은 배에서 내려 입구에서부터 10여분을 걸어가야 만날 수 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의자에 앉아 있는 171굴 미륵대불의 모습이다. 높이만 27m에 이르는 이 대불은 그 자체 위용에 압도된다. 주위 계곡을 굽어보며 자연과 어우러진 모습도 매우 인상적이다.

티베트어로 만불동(萬佛洞)인 병령사에는 총 184개의 크고 작은 석굴이 있으며, 이중 특굴로 지정된 169굴이 가장 유명하다. 이번 답사에서는 지도법사 설정 스님과 일부만 친견할 기회를 가졌다. 스님들과 함께 가파른 계단을 한참을 지그재그로 오르니 60m의 절벽 위에 조성된 169굴이 모습을 보였다.

천연 용동을 이용해 만든 169굴은 곳곳에 다양한 불보상이 조성돼 있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병령사 소조불입상이다. 이 소조불입상은 굽타 시기 불상 양식을 가졌으며, 건흥 5년(424)이라는 조성 묵서가 남아 있어서 현재까지 알려진 중국 석굴 불상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밖에도 아미타삼존상부터 다양한 소조불, 보살상, 반가사유상, 잘 찾아볼 수 없는 고행상 등이 조성돼 석굴 자체가 '불국토'였다.

돈황 석굴 보존위한 중국의 노력

순례단은 난주에서 돈황, 돈황에서 투르판으로 가는 길은 열차를 이용했다.

열차를 타고 도착한 돈황. 막고굴로 잘 알려진 돈황은 기원전 117년 한 무제에 의해 건설됐으며, 실크로드에 중요한 거점 지역이었다. 그만큼 구법승들의 이동도 잦았던 곳이기도 하다. 막고굴의 수천 개의 석굴은 구법 역사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돈황에서 순례단은 유림굴과 막고굴 2곳을 답사했다. 두 곳 모두 돈황을 대표하는 불교 예술이다. 앞선 맥적산과 병령사 석굴은 불상 위주의 석굴이라면 돈황의 석굴은 벽화가 중심이다.

돈황의 대표 석굴인 막고굴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었다. 유림굴과 병령사 석굴도 마찬가지였지만 내부 촬영은 엄격히 금지됐다. 오로지 눈과 귀로 수많은 유적들을 담아가야 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돈황 막고굴의 진수를 알 수 있는 체험관을 막고굴 근처에 건립했다. 별도로 예약을 해야 하는 곳으로 막고굴의 유명 석굴들을 3D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순례단 역시 미리 예약을 해 이를 체험할 수 있었다. 돔 형식의 화면에 막고굴의 전실이 투영되고 불보살상은 사방을 돌며 조형미를 감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어 더빙도 이뤄져 쉽게 이해하게 했다. 이는 관람 일변도의 한국불교에게 타산지석이 되는 부분이다.

막고굴 천불동 석굴들은 벽화도 많은 가치를 가진다. 그와 함께 그 위용도 눈길을 끌었다. 막고굴의 동굴을 전부 이으면 1618m가 되며, 벽화의 면을 합치면 25,000㎡에 이른다.

30년 전 막고굴을 찾은 적이 있는 지도법사 설정 스님은 돈황 석굴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국의 노력에 감탄했다. 설정 스님은 "30년 전 막고굴에 왔을 때에는 정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지금은 중국 정부의 문화 유적 보존 열기를 느낄 수 있다"이라며 "한국은 문화 융성을 외치지만 전통문화 보존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노력을 한국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탐욕과 무지의 폐해의 현장에서

〈서유기〉의 화염산으로도 유명한 투르판에서는 인간의 탐욕과 무지가 어떤 폐해를 가져오는지를 절감했다.

화염산을 넘어 순례단이 도착한 곳은 베제크릭 석굴. '아름답게 장식된 집'이라는 의미의 석굴이지만 안에 들어서면 불상은 없고, 불화는 뜯겨나갔다. 그나마 잔존 불화는 진흙칠이 돼 있거나 불보살의 상호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석굴의 불상과 불화가 훼손된 것은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의 도굴과 이슬람 교도들의 훼불이 주요 요인이다. 독일의 그륀베델, 르콕, 일본의 오오타니, 러시아의 올젠버그, 영국의 스타인 등이 차례로 드나들며 벽화와 불상을 마구잡이로 절취했다. 오오타니의 경우 이 벽화들은 한국에 가지고 들어왔으나 일제 패망으로 회수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베제크릭 석굴 벽화 4점이 소장돼 있다.

남아있는 벽화를 답사하니 불화가 매우 한국적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광배의 화염 문양과 측면을 보고 있는 보살의 상호 등은 한국의 불화와 비슷했다. 유근자 교수는 "베제크릭 석굴은 축조 석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한국의 토함산 석굴의 연원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탐욕과 무지의 폐해 현장에서 순례단은 예불을 올리고 참선을 했다. 이를 통해 선지식들의 구법 열정을 다시 되새겼다.

참선 마친 이후 설정 스님은 순례 대중에게 설법을 했다. 설법 도중 스님은 훼불의 모습에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먹이기도 했다.

설정 스님은 "이곳에서 우리는 인간의 무지와 탐욕이 얼마나 큰 폐해를 가지고 오는지를 절감했다. 서구 열강의 탐욕으로 벽화는 뜯겼고 이슬람의 무지로 불화는 훼손됐다"면서 "집착과 탐욕의 신앙인과 일반인들을 우리는 개도해야 한다. 개도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 더욱 정진하자"고 강조했다.

"우리는 길 위의 수행자"

순례단은 마지막 여정인 우루무치에서 천산 천지를 찾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7박 8일의 여정에서 순례단 스님들은 옛 선지식들의 구법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옥천암 주지 정경 스님은 "서산 마애삼존불의 원류가 있다고 해서 답사에 참가했다. 이번 순례에서 이를 확인하고 갈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청암사 승가대학 도반들과 참석한 대전보훈병원 법당 주지 선명 스님은 "내 자신을 가다듬고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모습과 시대는 다르지만 혜초, 현장 스님과 같은 수행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교육원에서도 이 같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제방에서 수행 중인 선우 스님은 길 위에 있는 것이 곧 수행자의 길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했다.

선우 스님은 "2004년 5대 적멸보궁을 도보 탁발 순례한 적이 있다. 이를 통해 길 위에 있는 것이 곧 스님의 삶이라는 것을 느꼈다. 이번 순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당시의 결심을 되새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중국= 신성민 기자

인터뷰

"下心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이번 실크로드 순례를 통해 불교의 옛 선지식들은 나라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 땀과 피, 열정을 쏟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후학들은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세계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 '실크로드 불교 유적 순례' 지도법사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은 이번 순례의 의미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교통이 현재 같이 발달하지 못하는 시기에 구법승들은 우리는 상상도 못할 고행을 했고 이를 견딜 수 있던 것은 깨달음에 대한 열정과 중생 제도라는 서원 때문이었다는 게 설정 스님의 설명이다. 후학들에게는 이번 순례를 통해 구법승의 열정을 잘 보고 느껴 이를 자신의 삶의 이정표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후배 스님들과 여행하니 저 역시 매우 좋았습니다. 선사들이 걸었던 길에서 다양한 것을 보고 느꼈으면 합니다. 또한 나를 놓고 하심(下心)하기를 바랍니다. 이는 수행자의 기본정신이고 중생을 위한 자세입니다."

설정 스님은 구법승의 정신이 현대인에게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대인은 '편리'라는 나태함 속에 살고 있고 나태함은 이기심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현대인은 편리함 속에서 살고 있어요. 너무 쉬운 길을 가면 자신의 지혜가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불교는 온전한 생명과 자유를 추구합니다. 구법승들은 그 정신을 순수하게 열정으로 투영시킨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구법 정신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도 충고가 이어졌다. 바로 긍정적인 생각과 도전 정신이다. 투르판의 모래산인 명사산을 한달음에 올라갔던 스님이기에 그 충고는 깊이 다가왔다.

"인생의 성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역량과 지혜, 용기를 두루 갖춰 전력투구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기대하는 것은 의미 없는 삶입니다. 인간의 삶은 행복과 불행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어두운 생각을 가지고 살면 어려워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면 밝아집니다. 긍정이라는 자기최면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 따라 달라진다는 '일체유심조'의 정신을 잊지 마십시오."

'수행 · 포교는 하나' 재발심합니다

前 포교원장 혜총 스님



前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교육원이 앞서 진행한 티베트 순례에 지도법사로 참가했다. 그럼에도 실크로드 순례라는 고된 여정에 오른 것은 도반인 지도법사 설정 스님이 있어서다. 또한 서역으로 가는 구법승들의 열정을 느끼고 싶었다는 게 스님의 설명이다.

"이곳을 20년에 오려했는데 일이 생겨 신도들만 보내고 정작 나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후로는 인연이 안돼 가지 못하다가 이번 순례에 도반 설정 스님이 지도법사로 참여한다고 해서 함께 동행했습니다."

혜총 스님은 이번 여정을 통해 구법이 쉬운 일이 아니며, 고행의 가시밭길을 자처한 구법승들의 위법망구 정신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다시 한번 수행과 포교가 둘이 아님을 새삼 깨달았다고 했다. 다시 한 번 포교의 서원을 재발심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고(苦)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불교입니다. 이를 위해 구법승들은 노력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포교하라'는 부처님의 말씀도 담겨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길을 가야 합니다."

"현대의 불사가 곧 문화재라는 정신을"

종책특보단장 정념 스님



조계종 종책특보단장이자 서울 흥천사 주지 정념 스님은 지난 10년을 누구보다 바삐 살았다. 낙산사 주지로 부임하자마자 화마로 전각이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고 이를 원만히 복원해 회향했다. 그러면서도 종책특보로서 소임을 꾸준히 살았다. 최근에는 고사 직전이었던 고찰 흥천사를 다시 매입해 도심 포교 거점 사찰로 성장시키고 있는 중이다. 정념 스님이 바쁜 일정에도 순례에 참석한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해서다.

휴식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지만 불사에 대한 생각이 벌써 가득차 있다. 그래서 스님은 현대의 불사도 100, 200년 후에는 문화재가 될 수 있는만큼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당부로 말을 마쳤다.

"불사는 온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 지역의 특성부터 주민들의 편의까지 도모할 수 있는 복합적으로 불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진행하는 불사가 100년 후에는 문화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현대를 살아가는 스님들에게 필요합니다."

상처받은 여성 위한 치유 프로그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9월 18일부터 여성위한 생명스테이 개최

20~30대 젊은 여성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소장 김영란)는 9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젊은 여성들을 위한 치유의 생명스테이 보살-핌의 장(場)'을 개최한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와 불교생명윤리협회 여성분과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생명스테이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 삼각산 금선사에서 6주에 걸쳐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1주: 인사나누기, 전체 내용 소개 그림으로 내 마음 읽기, 알아차림 명상, 자신의 목표 정하기, 나누기 △2주: 호흡 이완과 알아차림 명상, 개인상담 및 심리극 △3주: 절 명상과 일상 속의 알아차림, 심리극 테라피, 글쓰기와 나누기 △4주: 호흡과 알아차림 명상, 몸 그리고 춤 치유, 글쓰기와 나누기 △5주: 1박 2일 합숙, 숲 · 음악 치유, 심화상담 △6주: 일상 속의 알아차림 명상법, 집단상담 및 나누기 등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와 불교생명윤리협회는 "우리 역시 자연처럼 본래 순수한 존재이나 때로는 가까운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으며 자신을 돌보지 않기도 한다"며 "혼자서는 바라보기 힘들었던 고통을 직면하고 나누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비는 5만원이며, 20~30대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02)732-1367

이나은 기자

시민행성, 2014 가을정기강좌 개강

'우리에게 남은 건 더 깊은 살아의 시간' 주제

불교지식의 인문화를 추구하는 화쟁아카데미와 실천적 인문공동체 시민행성이 '우리에게 남은 건 더 깊은 사랑의 시간'을 주제로 가을학기 정기 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엔 성해영, 박종우, 이형대, 김서영 등 종교계와 인문학계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 학자, 문학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강좌는 △마음우주 △지혜사전 △생각학교를 테마로 4개의 강좌가 진행된다. 마음우주 분야에는 성해영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가 신비주의와 종교심리학 관점에서 본 인간을 조명하는 '인간의 마음과 마음 너머'를 9월 18일~10월 30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강의를 진행한다.

지혜사전분야에는 박종우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장자〉를 강독하는 '나비의 꿈, 구만리 하늘을 날다' 강좌를 9월 19일~10월 31일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강의를 진행한다. 이형대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동양화와 화폭에 써진 시, 나란히 보고 읽기'를 주제로 9월 30일~11월 4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강의를 펼친다.

생각학교분야에는 김서영 정신분석학자가 '꿈의 해석으로 내 무의식을 탐구하다'를 주제로 10월 27일~11월 24일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진행한다. 한편 화쟁문화아카데미도 9월 17일~11월 5일 이미령 동국역경원 역경위원의 다섯 가지 주제로 만나는 붓다의 가르침' 강좌도 마련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citizenplanet.or.kr)를 참조하면 된다. (070)8872-2023

이나은 기자

북한산 중흥사 어린이법회 창립

9월 14일 창립법회 거행…매월 2 · 4째 주 일요일 법회

북한산 중흥사(주지 지홍)는 9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중흥사 연꽃어린이법회' 창립법회를 연다.

중흥사는 "대웅전을 복원해 일요법회를 진행한지 2년밖에 되지 않았고, 일요법회에 참석하는 신도수도 많지 않지만, 어린이 ·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린이법회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법회는 매월 2 · 4째 주 열리며 명상, 교리공부, 역사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중흥사 연꽃어린이법회 지도법사는 자홍 스님으로 16세때 동생인 혜장 스님과 인도 티베트 사원에 출가해 4년 공부했으며, 이후 송광사 현봉 스님께 출가해 송광사에서 행자생활을 마치고 현재 중앙승가대 역경학과 4학년에 재학중이다.

중흥사는 "어린이 법회가 하루아침에 크게 성공하리라 기대하진 않지만 북한산성 내에서도 어린이 · 청소년법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2)355-4488

이나은 기자

개산조 스님 기리며 문화체험 하세요

사찰들, 개산대재 맞아 문화행사 마련

해마다 9 · 10월 즈음이 돌아오면 전국 사찰에서 개산대재를 거행한다.

개산(開山)이란 보통 산에 터를 닦아 절을 세워 수행도량으로 삼는다는 말로, 사찰에서는 개산일에 개산대재(開山大齋)를 열어 절을 창건한 개산조 스님에게 예를 표하고 사상과 가르침을 되새긴다.

최근 들어 각 사찰에서 진행하는 개산대재는 전통적 행사에 머물지 않고 지역민들이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산사음악회, 전시회, 사생대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어 불교포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올 가을에는 서울 봉은사(9월 21일~10월 5일), 양산 통도사(10월 1~5일), 울산 월봉사(10월 12일), 영천 은해사(9월 27일), 부산 범어사(10월 3~4일) 등을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문화행사를 곁들인 개산대재가 열린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학)는 개산 1220주년을 맞아 다례재, 국화축제, 산사음악회,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9월 21일~10월 5일 개산대재 개최 기간 국화축제를 열어 봉은사 도량을 국화로 장식해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봉은사는 특히 올해 산사음악회와 추사 김정희 전시회를 열어 개산대재를 돋보일 예정이다. 9월 26일 '천년의 전통 천년의 미래, 봉은사'를 주제로 열리는 산사음악회에는 정동하, 서문탁, 호란, 포맨, 봉은사 풍물단 및 무용단이 참여해 불자들과의 화합과 문화의 장을 마련한다. 또한 불교중앙박물관과 공동으로 '봉은사와 추사 김정희' 전시회를 9월 26일~12월 14일 불교중앙박물관에서 개최, 봉은사와 추사 김정희의 만남을 통해 추사가 불교계와의 교류하는 과정을 살펴봄과 동시에 봉은사의 불교사적 의의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관련 세미나는 9월 24일 오후 3시 봉은사 보우당 강당에서 열리며 전시회 개막식은 9월 25일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진행된다.


봉은사는 지난해 열린 개산대재에서 판전(版殿)에 소장된 주요 문화재인 화엄경판 인경본을 정대(頂戴)하고 봉은사 전 도량과 법계도를 요잡하는 '정대불사'를 거행했다.

봉은사…김정희 전시회 개최

통도사…문화축제로 지역민 소통

은해사…템플스테이 개원법회

월봉사…사생대회 다도체험 등

이밖에 역대조사를 기리는 다례재를 9월 24일 대웅전 앞 무대에서 열며, 9월 24~26일 종루 앞 주차장에서 베트남 초등학교 건립 및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제4회 행복나눔바자회를 개최한다. 또한 봉은사의 다채로운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전시하는 '봉은사 신도 사진전'을 9월 17~26일 연다. (02)3218-4800

양산 통도사(주지 원산)는 개산 1369주년을 맞아 10월 1~5일 통도사 경내에서 '영축문화축제 개산대재'를 연다. 이번 축제는 부도헌다행사와 괘불이운 법요식, 재롱잔치, 작은음악회,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다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축제기간 동안 국화장엄과 가사배견, 괘불탱전 등이 마련되며, 제1회 어린이 수계법회도 거행될 예정이다. (055)382-7182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9월 27일 개산 1205주년을 맞이해 개산조 혜철 국사와 역대조사를 기리는 다례제를 비롯해 템플스테이 수련관 개원법회 거행한다. 또한 1인 1등 켜기 운동을 하는 '만등불사' 운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054)335-3318

울산 월봉사(주지 오심)는 개산 1085년을 맞아 10월 12일 경내에서 개산대재를 연다. 행사에는 입제식을 시작으로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의 법문이 이어진다. 또한 효자 · 효부 시상식, 파라미타 청소년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수안 스님을 비롯한 제방 스님의 선서화전, 이승현 작가의 네팔사진전, 부처님 진신사리친견 등 다채로운 전시가 마련된다. 행사기간 동안에는 청소년 백일장 및 사생대회와 불영사 스님의 사찰음식 시연회, 월봉사 다도반의 다도시범 등이 진행된다. (052)251-4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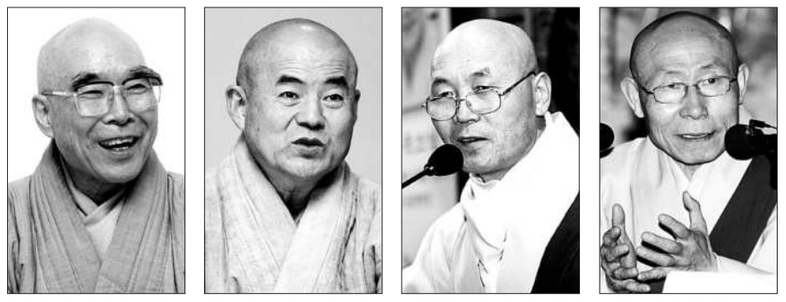
부산 범어사(주지 수불)는 개산 1336년을 맞아 10월 3~5일 경내에서 개산대재를 거행한다.

행사 첫날부터 5일까지 금어연 장인 작품 전시회를 범어사 문화광장에서 열며, 10월 4일에는 △개산대재 법요식 △저소득층 겨울나기 지원기금 마련 바자회 △범어8경 체험 프로그램 △청소년 문화공연을 진행한다. (051)508-3122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불광창립 40주년, 선지식 초청법회

9월 14일부터 매주 일요일 고우·혜국·지환·무여 스님 법문


(사진 왼쪽부터) 고우 스님(조계종 대종사), 혜국 스님(석종사 회주), 지환 스님(동화사 유나), 무여 스님(축서사 회주)

불광사(회주 지홍)는 불광 창립 40주년을 맞아 9월 14일 잠실 불광사 보광당에서 선지식 초청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선지식 초청법회는 불광 창립 40주년을 기념하고, 광덕 스님의 전법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安心法門, 불안한 그 마음을 가져오너라!'라는 전체 주제로 대표적인 선사 4명을 초청해 진행된다.

선지식 초청법회는 9월 14일부터 4주에 걸쳐 매주 일요일 낮 11시부터 진행된다.

14일에는 조계종 대종사 고우 스님이 '중도사상과 마음의 평화'를 주제로 불교의 핵심 사상인 중도의 가르침을 통해 갖가지 분별심과 차별 변견에 사로잡힌 번뇌를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에 대해 설법한다.

21일에는 석종사 회주 혜국 스님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인으로 살라'는 주제로 임제 스님의 법문을 토대로 주인으로 사는 삶에 대해 설법할 예정이다.

28일에는 동화사 유나 지환 스님이 '성찰의 삶과 수행의 삶'을 주제로 바른 수행을 위해 어떤 자세를 견지하고 점검하는지에 대해 설법한다.

마지막 10월 5일에는 축서사 회주 무여 스님이 '선(禪), 행복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선을 통한 번뇌의 제멸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설법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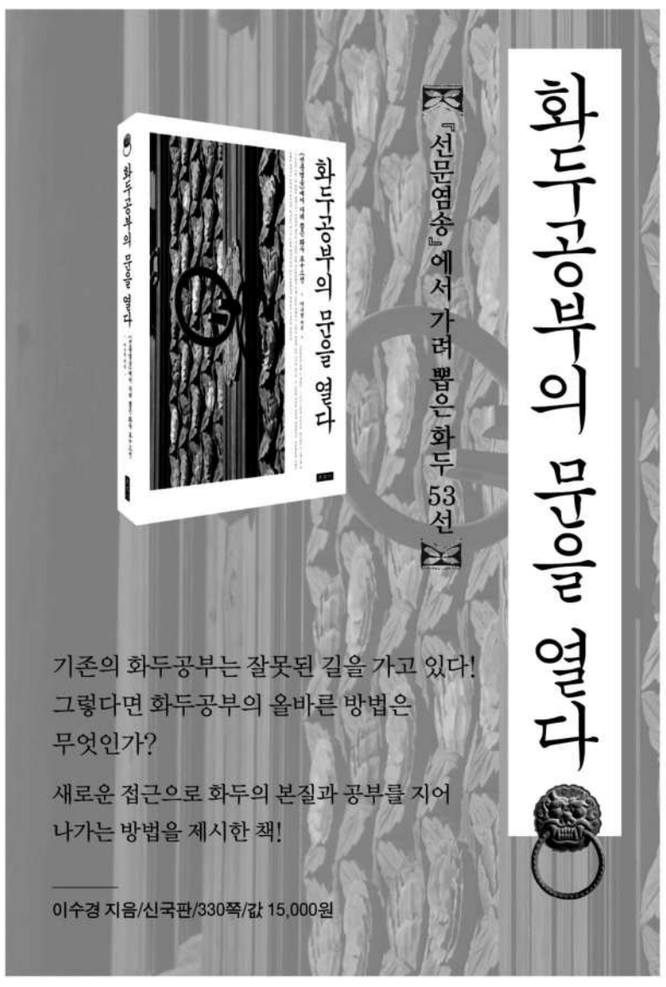
불광사는 지난 1974년 11월 광덕 스님(1927~1999)이 전법 포교지 월간 〈불광〉을 창간하면서 시작된 전법운동으로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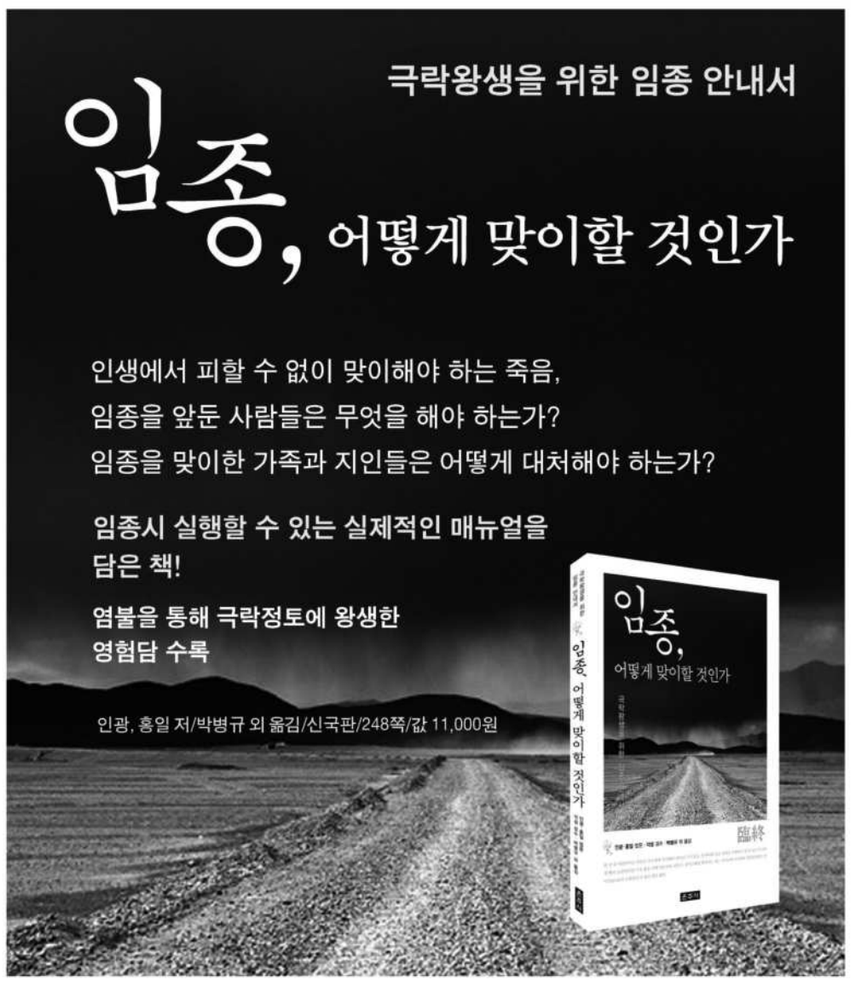
종로 대각사에서 시작된 불광운동은 지난 1982년 잠실에 법당을 마련해 도심전법 도량의 선두주자로 활발한 전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04년 지홍 스님이 불광사 회주로 취임하면서 8년에 걸친 중창불사를 통해 지난 2013년 10월 수도권 최대의 도심 전법도량으로 재탄생했다.

불광사는 "이번 선지식 초청법회는 중창불사로 마련된 대규모 법당에서 진행되는 법회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며 사부대중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이나은 기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가출 청소년 방치 심각… 불교계 쉼터 5곳뿐

서울시는 청소년 쉼터수를 늘리는 계획을 담은 어린이 · 청소년들의 인권 키우기 3년 계획을 지난 9월 1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5곳뿐인 서울시의 청소년 쉼터를 2016년까지 7곳으로 늘리고 간섭과 통제를 최소화한 24시간 카페형 쉼터도 신설할 계획이다. 잠시 쉴 수 있는 버스형 쉼터 17곳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청소년 가출 인구는 22만명.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파악한 수치로 전체 청소년 인구 1천만명 중 약 2% 규모다. 이에 반해 가출 청소년들의 보호 전문기관인 쉼터 수는 전국 103개(2013년 8월말 기준)에 지나지 않으며 정원은 1천 명 정도다.

불교계도 상황이 열악하긴 마찬가지다. 현재 교계에서 운영하는 쉼터의 경우는 5곳에 지나지 않는다. 각 지역사찰서 재단을 설립해 운영한다.

부산의 범어사(중장기청소년쉼터 영희네집), 영주암(여자단기청소년쉼터), 경남 창원의 자비사(마야청소년중장기쉼터), 충남 아산의 옥련암(아산옥련청소년쉼터)이 그렇고, 경기 남양주일시청소년쉼터만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관리한다. 불교계를 뺀 대다수 쉼터는 YMCA, 기독교청소년협회, 천주교지방교구 복지회, 개인단체 등에서 두루 운영하고 있다.

가출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상담, 학업,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쉼터는 운영 기간에 따라 세 분류로 나뉜다. 일시쉼터에서는 최장 1주일 이내로 머물 수 있고 이후 상담을 통해 3개월 단위의 단기쉼터나 2년 내외의 중장기보호가 가능한 쉼터로 옮길 수 있다. 일시쉼터는 가출청소년 조기구조, 발견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단기쉼터는 가정복귀를 위한 청소년 상담과 예방활동, 중장기쉼터는 청소년들의 학업, 취업 지원을 통해 자립을 도모한다.

시설 · 인력 부족…쉼터 운영 '뒷전'

남양주 청소년일시쉼터의 경우 일주일에 다섯차례씩 거리상담활동(아웃리치)을 병행한다. 김선혜 상담원은 "아이들은 자신의 심정을 흔쾌히 털어놓는 편"이라며 "더 많은 관심을 여러 아이들에게 꾸준히 쏟을 수 없는 환경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재 남양주일시청소년쉼터 직원은 8명에 불과하다. 상담원 3명에 아웃리치 전담 직원 2명, 야간보호 담당 2명에 시설장 1명이 전부다. 아웃리치의 경우는 자원봉사자

청소년 쉼터 전국 103개

대다수 타종교 운영

임시 · 단기 · 장기 쉼터 등 세 분류

"후원 모델 프로그램 개발 필요"

30여명이 없으면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다. 쉼터로 가지 않은 청소년들과 꾸준히 연락을 지속할 수 있는 사례관리도 시도해보려고 하지만 운영여력이 안 된다.

문제는 쉼터에 있지 않은 위기 청소년들이 사실상 '방치' 되고 있다는 것. 가출 청소년들은 10~30명씩 모여 '가출팸'(가출과 패밀리를 더한 신조어. 가출 청소년이 모여 지내는 집단)을 구성, 숙박비 마련을 위해 절도, 사기, 성매매 등을 일삼는다. 가출팸을 경험한 아이들일수록 쉼터나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는 경향도 심하다.

때문에 쉼터는 가출 청소년들이 범죄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그러나 여느 복지관처럼 외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거나 번듯하게 홍보를 할 수 있지 않기에 쉼터 사업운영주체로 참여하려는 쪽은 드물다. 종교적 사명감을 우선시하고 복지사업을 하는 종교계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부산 중장기청소년쉼터 영희네집을 2007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곳도 범어사가 출연한 재단법인 범어청소년동네다. 범어 관계자는 "시대와 함께 하며 소외된 이들을 위하는 것이 종교라고 본다면 노인이든 아동이든 청소년이든, 대상을 떠나 필요한 자들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게 맞다는 생각에서 운영 참여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불교 복지가 양적성장과 외형에 치중하는 사이 정작 시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쪽에 관심을 소홀히 기울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종교 역할 아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사찰은 자부담안고 쉼터 운영

청소년쉼터 운영은 지자체 예산 80%, 운영주체쪽에서 20%를 부담해야 한다. 예산은 대개 2억원 안팎이다. 의식주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직원 급여 등을 제외하면 빠듯하다.

한 시설장은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청소년 사업 운영이 예속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어디까지나 복지제공 주체는 국가다. 민간에 위탁을 주는 이유는 전문성과 서비스 질 확보에 있지만 예산 · 인력부족으로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말했다. 정부가 현실에 맞게 쉼터수를 늘리고 필요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열악하지만 정부쪽만을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 마야청소년쉼터 소장 종인 스님(창원 자비사 주지)은 "쉼터를 운영하는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의 개인후원자라고 해봐야 몇 십명 수준"이라며 "절에서의 시주금과 기도비는 물론 바자회 개최 수익금을 쉼터 운영금에 보태고 있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불국토청소년도량 유강열 사무국장 역시 "사찰 재정만으로는 운영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외부기업 문화지원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후원모델 개발을 위해 고심중"이라고 덧붙였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불교계 청소년쉼터 현황

쉼터명	운영단체(소속사찰)	보호기간	정원	전화번호
남양주일시청소년쉼터	조계종사회복지재단(남양주 봉선사)	7일	12명	031-591-1319
마야청소년쉼터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창원 자비사)	3년	7명	055-274-0924
부산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불국토청소년도량(부산 영주암)	9개월	15명	051-756-0924
부산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영희네집	범어청소년동제(부산 범어사)	3년	10명	051-581-1388
아산옥련청소년쉼터	충남옥련청소년육성개발원 (충남 옥련암)	9개월	14명	041-548-1326

조계종, 탄자니아 학교명 '보리가람' 으로

2015년 완공 목표로 설계 마무리단계



탄자니아 경제수도 다르살람 테메케군에 들어서게 될 농업 학교의 조감도

아프리카 대륙에 한국불교와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들어설 예정인 탄자니아 학교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안에 공사를 시작한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지난해부터 진행중인 아프리카 탄자니아 학교 건립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9월 1일 밝혔다.

불교계 지원이 미진했던 아프리카에 자비의 손길을 뻗치고자 시작된 아프리카 학교건립은 농업 기술을 주요 교과목으로 전교생에게 수업료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해 운영될 계획이다.

탄자니아 경제수도 다르살람 테메케군에 자리잡은 학교는 현재 마무리 설계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가 선정되면 올해 안에 공사를 시작하고 2015년 완공할 계획이다. 개교는 2016년으로 잡고있다. 이를 위해 아름다운동행은 지난 1년간 학교 설립을 위한 현지 NGO 법인 신청, 학교설립 허가, 토지 소유권 등록 등 행정 처리에 힘써왔다.

총 4만평의 학교부지에는 12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 6개와 실습공간인 대규모 원예실습장, 가축실습장도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될 전교생들을 위해 남녀 기숙사 각각 1동씩과 교사 숙소가 지어진다.

학교 이름은 '보리가람' 으로 지어졌다. 지난해 경기도 광주 곤지암 '우리절' 주지 동봉 스님이 소유해온 탄자니아 부지 4만평을 기증함에 따라 토지를 소유해온 현지 법인 '보리가람스쿨' 에서 이름을 따왔다. 학교의 가르침이 학생들과 탄자니아 사회 전체의 깨달음과 빈곤 퇴치로 이어지길 바라는 소망도 담겼다.

아름다운동행은 탄자니아 지역에 어린이 독서 장려 지원 프로젝트 '토토의 꿈' 과 급식 지원 사업 '하피콘' , 우물지원을 통한 식수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며 지역개발사업 또한 병행하고 있다.

아프리카 학교 건립 동참은 벽돌 한 장 1만원, 책걸상 세트 5만원, 땅 한 평 10만원, 식수대 30만원, 컴퓨터 한 대 100만원, 교실 한 동 1,000만원, 법당 건립 5,000만원으로 함께할 수 있다. 문의(02)737-9595 (농협 301-0112-98519-51, 예금주:아름다운동행)

배현진 기자

전신화상에 병원빚만 5천만원

생명나눔 9월 치료비 지원 환자 선정



화상을 입은 왕 씨(사진 왼쪽)와 사고 전 아이 때 모습(사진 오른쪽)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9월 치료비 지원 환자로 왕 모(21세, 화상 흉터 병태 및 섬유종)씨를 선정했다.

왕 씨는 간경화를 앓던 부모님을 대신해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됐다. 농사일을 하다 건초더미에 불이 붙어 전신화상을 입었다. 두피와 눈꺼풀이 녹아내릴 정도로 큰 사고였다. 이 사고로 왕 씨는 한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오른손과 왼손 손가락 두 개도 절단해야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병을 앓던 부모님이 차례로 돌아가시자 왕 씨에게 남은 것은 5천만원의 병원빚 뿐이었다. 돈을 갚기 위해 일을 하려고 했지만 화상 흉터로 가는 곳마다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게다가 8년 전에 받은 피부이식 상처도 아물지 않아 진물이 나오고 있다. 두피재건술, 인공진피이식술, 자가피부이식술을 받으면 환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 (후원계좌 :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

배현진 기자

실버키퍼봉사단 발족

성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주묵)에서는 지역사회 내 어르신의 우울 및 자살예방 활동을 위해 상담기술을 갖춘 '실버키퍼(Siver Keeper)' 노인봉사단을 발족했다.

사회의 무관심 속에 우울증에 걸린 노인들이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버키퍼 봉사단' 는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로 구성돼 심리 · 정서 상담 및 자살예방 교육을 받게 된다. 이후 상담가로서 전문성을 함양한 후 실질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 및 노인문제 인식 캠페인, 관련 기관 견학 등 다양한 외부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봉사단 모집은 9월까지며 단원은 20명이다. (02)929-7950

배현진 기자



늘 흥겨운 추석처럼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9월 2일 민족최대명절 한가위를 맞이해 세시풍속행사로 '늘 한가위만 같아라!' 를 진행했다. 복지관 난타동아리 '우레' 어르신들의 공연으로 시작된 행사는 민족예술극단 우금치의 마당극 '청아 청아 내딸 청아' 공연으로 이어졌다.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이 날 행사에는 복지관 회원 약 150여명의 어르신들이 한 데 모여 추석 행사를 즐겼다. 정관 스님은 "다함께 흥겨운 분위기를 즐기는 가운데 옅어져 가는 추석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행사 의의를 밝혔다.

배현진 기자

한국불교예술대학 학인모집

"한국불교예술대학"에서 아래와 같이 제11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범패 소리과정(6개월 과정-매주 화요일) :** 오후 3시 ~ 4시 —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사십구재 · 천도재 · 장엄 및 제사 준비등 전과정

■ **작법 · 무용과정(6개월 과정-매주 화요일) :** 오후 4시 ~ 5시 30분 — 나비춤 –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강사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작법무 보유자 일초스님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 **개강일시 : 2014년 10월 7일 (화요일) 오후 3시**
● **모집인원 : 00명 (FAX 접수 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접수기간 : 2014년 9월 ~ 2014년 10월 5일 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1부.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원으로서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으로 선정합니다. (수료증 포함)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부설 한 국 불 교 예 술 대 학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997(부평동) 인해빌딩
(전철 1호선 부평역 하차 남부역으로 나와서 동소정사거리 부평6동 우체국 옆)

전화 : 032)529-6708 / FAX : 032)529-6709

홈페이지 : 본 대학 http://www.bumpae.org 삼계종 http://www.samgyeoijong.org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 – 중(흰옥) 가액 ₩6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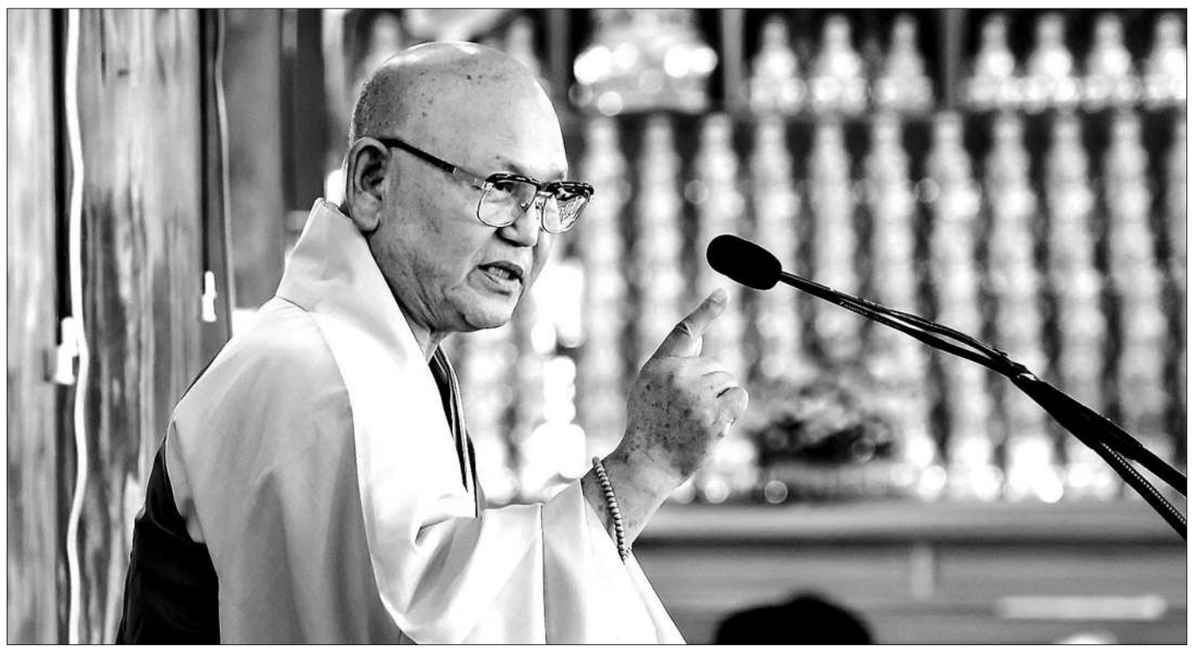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진정한 행복은 생사 초월한 '참 나' 찾기

봉은사 불광보조 일요법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

월탄 스님(청주 용화사 회주)

서울 봉은사(주지 원학)는 8월 24일 불광보조 일요법회에 청주 용화사 회주 월탄 스님을 초청해 특별법문을 진행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 을 주제로 열린 법문에서 월탄 스님은 "우리가 추구하는 오욕(五慾)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 우리 몸은 무명업식으로 잠깐 왔다가는 환(幻)일 뿐이며 마치 활동사진으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잠시 있는 것 이"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참 나' 를 찾아 수행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본 성품을 깨달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다음은 법문의 요지다. 정리=이나은 기자



월탄 스님은 … 1955년 화엄사에서 금오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지난 1960년 불교 정화를 외치며 대법원에서 할복을 감행한 '6비구' 가운데 한 명이다. 스님은 불교신문사장, 한국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 중앙종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청주 용화사, 혜은사, 월리사, 제천 한산사, 단양 대흥사에서 회주를 맡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바로 전 부처님인 가섭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체중생성청정 종래무생무가멸 즉차신심시환생 환화지중무죄복(一切衆生性淸淨 從來無生無可滅 卽此身心是幻生 幻化之中無罪福)"

즉, 모든 중생의 성품이 청정해 본래부터 생겨남도 멸함도 없다. 이 몸과 마음 모두 환상 속에서 태어났고 환(幻)으로 만들어진 것에는 죄와 복도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뚱이는 무명망식(無明妄識)식의 활로로서 잠깐 생겼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가짜 마음은 환(幻)으로서 눈병 난 환자가 공중에 생겼다 사라지는 아지랑이와 번갯불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짜로 생긴 이 가운데는 죄, 복, 생, 사 모든 걱정과 근심이라는 것이 본래 없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도를 깨쳐서 7불이 됐고, 가섭존자는 6불이 됐고, 미래에 오실 미륵부처님이 제8대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제가 기분 나쁜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 모두가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한 제행무상(諸行無常) 하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사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천상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으로 태어나는 내생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아수라 · 아귀 · 축생으로 될 것입니까? 여러분이 매일 하는 생각과 행동이 어디로 가는지 결정짓는다는 걸 알고 계시죠?

사바세계에 있는 인간들은 자기의 참마음 참사람을 모르고 무명업식으로 생긴 이 몸뚱이가 나인 줄 알고 몸뚱이가 하자는 대로 돈에 집착하고 부부 · 부모 · 자식 간 애정에 집착하고, 좋은 음식, 건강한 몸, 부귀영화, 명예를 갖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부처님이 말한 다섯 가지 욕망 재욕(財欲) · 성욕(性欲) · 식욕(食欲) · 명예욕(名譽欲) · 수면욕(睡眠欲)에서 확실히 초탈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죽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것이 내 인생이고 이 몸뚱이가 '참 나' 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전 생명을 집어넣어 살면 여러분은 늙어야 하고 늙으면 병들어야 하고 여러분은 돌아가셔야 합니다. 만약 죽어서 완전히 없어진다면 걱정할 것도 없는데, 문제는 죽고 나서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분들은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계정혜 삼학을 지키고, 참선을 통해 내 마음 속의 가짜마음을 척결해 일체 걱정 근심을 없애고 잡념이 없는 순수한 마음을 유지합니다.

여러분도 부처님 경전을 아침에 일어나 최소 30분 정도, 〈금강경〉을 읽든 〈법구경〉을 읽든 염불을 하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 어리석은 생각, 이런 것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오늘부터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대로 살도록 노력 하겠다' 하고 다짐을 하십시오.

어떤 식의 역경이 오든 거기에 일임을 하되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내 생각이 옳은가, 그른가,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하나' 하면서 자신을 반조하세요. 취침 전 최소 한번 정신을 바로잡고 30분 정도 마음공부를 해보세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옴마니반메훔을 염해도 좋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이유와 변명을 대며 자신을 냉철하게 비판을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길어졌다 하더라도, 매일 30분 3개월 동안만 아침 · 저녁으로 자신을 반조하는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삶은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원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불자 여러분,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영원불변한데 우리는 불과 100~120년 살면서 오래 살았다고 하면 우리는 부처님 법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오욕(五慾)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반드시 형체를 가진 것은 생로병사를 해탈할 수 없습니다. 형체를 가진 것은 다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나면서부터 죽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면 벌써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참나, 참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참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는 그 중에 참 나가 있습니다.

사바세계 중생은 무명업식으로 생긴 몸 · 마음 집착해 오욕 좇아 계정혜 삼학으로 매일 반조하며 지극정성 기도하면 '참 나' 만나

시각장애인이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그들도 캄캄한 걸 봅니다. 그들 안에 '봄' 을 판단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청각장애인은 무엇을 들을까요. 못 듣는 걸 듣습니다. 이 말은 즉 눈 · 귀가 내 생명의 핵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 그 뒤에 나를 조종하는 놈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놈을 불교에서는 '마음' 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확실히 깨달은 분은 부처님입니다. 사실 마음이라는 것도 그저 대명사일 뿐입니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실히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일체 고행이 소멸됩니다.

〈반야심경〉은 비록 260자로 되어 있지만 팔만대장경의 진수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경전만 제대로 통달하면 불교의 깊은 진리를 능히 다 터득할 수 있고, 부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온개공 도일체고액(觀自在菩薩 行深般若波羅蜜多時 照見五蘊皆空 度一切苦厄)'

관자재보살께서 깊은 반야바라밀다 공부를 행할 때에 오온이 다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일체 고액을 건넜다는 뜻입니다. 조견(照見)이란 이 세상이 생긴 원인까지 본다는 것입니다. 살짝 본다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고,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그 많은 인연 중에 내 남편이 되고 내 아내가 되는지 확실히 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색이라는 우리의 육신과 또는 일체 형상과 수 · 상 · 행 · 식(受想行識)이라는 우리 마음을 분석해 보니 우리의 육신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모든 원소의 집합체로서 시시각각으로 모아지고 흩어지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며 수 · 상 · 행 · 식이라는 것도 항상 고정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시각각으로 변화무쌍한 것이며 또한 성품의 근원자리에서 볼 때 유라고도 무라고도 할 수 없는 지극히 공한 자리를 깨쳐 애욕 번뇌와 생사 집착에 얽매인 일체 고액을 소멸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음도 몸도 공(空)했다 라는 걸 믿습니까? 그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실체를 보았으면 여러분은 부처님입니다. 일체의 고(苦)에서 초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본래 참 나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진리를 깨달은 종교인이라면 걸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인류는 그런 경지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너와 내가 둘인 그런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분돼 있는 것을 타파하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우주 참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과학문명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이 부처님의 말씀은 과학 · 합리적 이론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을 해탈할 려면 진정한 길을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교를 확실히만 믿으면 하루 24시간이 재밌습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그것을 웃으며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참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중생으로서 할 일이 많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딸, 아들 노릇 등. 이런 것들을 진정한 행복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80~90년 평생 살면서 희노애락속에 놀아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늘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참 나를 깨달은 사람, 참 내 마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내 마음 속에 들어있습니다. 행복 · 평화 · 근면 · 성실 · 부자 · 대통령 등 모든 것이 다 내 마음 속에 들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믿겠습니까?

여러분 본래면목으로 돌아가면 그 안 에는 지혜, 복, 덕, 자비 등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무지와 무명으로 인해 잊어버렸습니다. 겨우 욕심 내는 것이 많은 돈, 예쁜 아내, 훌륭한 남편, 똑똑한 손자 등 이런 생각뿐입니다. 이런 것들에 목을 매고 열심히 가긴 가는데, 만족한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중생적 정신, 무명의 정신적 한계에서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참마음을 깨달으면 금방 내가 사형장에 가더라도 하나 겁낼게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중국의 승조법사(383~414)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당시 후진의 왕이었던 요흥이 그에게 벼슬을 내렸는데 이를 거절해 왕의 노여움을 사서 사형을 당하기 전 감옥에서 읊은 게송이 있습니다.

"사대원무주 오온본래공 장두임백인 흡사참춘풍(四大元無主 五蘊本來空 將頭臨白刃 恰似斬春風)"

해석하자면, "사대는 본래 주인이 없고 오온은 본래 빈 것이다 내 머리를 칼로 칠 것이지만 봄바람을 베는 것에 불과하리라" 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테 있는 따뜻한 기운은 불[火]기운입니다. 뼈마디는 땅[地]기운입니다. 손톱발톱 딱딱한 것도 땅기운입니다. 피가 도는 것은 물[水]기운입니다. 우리는 바람[風]으로 삽니다. 바람으로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가 합니다. 이 사대의 조합이 잘 되면 건강합니다. 그러나 물기운이 많으면 복막염에 걸리고 불기운이 많으면 중풍에 걸리는 등 조화가 깨지면 건강에 무너집니다.

이 지수화풍(地水火風) 사대는 원래 주인이 없습니다. 죽으면 모두 다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물은 물기운으로, 불은 불기운 등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것을 내 몸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불자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을 원합니까. 행복이 무엇일까요. 부처님이 말한 행복은 안심입명(安心立命)입니다. 24시간 편안한 걱정 근심 하나 없이 항상 마음이 편안한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은 명예나 애정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간에 싸움을 했더라도, 남편이 잘하고 잘못했던 간에 너그럽게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 아내도 속상했던 마음이 살살 풀립니다. 아내도 남편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다 보면 부부의 마음은 편하게 되고 그 집안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무언가를 바라면 안 됩니다. 행복의 창조자는 바로 '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남에게서 도움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날 즉시 다른 사람들이 미워집니다. 내 마음에서 저주가 생깁니다. 평화가 없어집니다. 절대로 타인에게서 도움 받으려 하지 말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저 열심히 사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 삶의 가치와 인생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부모를 편하게 모실까, 내 아내와 자식을 편하게 해줄까. 그런 정성을 바치면 그때 여러분은 관세음보살이 되는 겁니다. 살인자든 범죄자든 미워하는 사람 모두를 불쌍히 여기고, 하고 싶은 일이 뜻대로 안되면 최선으로 내 안의 관세음보살을 찾으세요. 아침저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속상할 때 정성스레 관세음보살을 찾아보세요.

절대로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보현보살, 지장보살을 찾으세요. 여러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전통식품교육사

전통식품교육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전통식품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전통식품교육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전통식품 효소발효액	9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243-6333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7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9월 15일 까지
◆ 개강일시 : 2014년 9월 16일(화요일)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각 3개월) 1시 ~ 2시 반
▶ 개강일시 : 2014년 9월 15일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일본 내 문화재 환수 갈길 멀다

혜문 스님 반환 촉구에 日 "부당반출 아니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교섭의 일환으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문화재 반환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재점화하고 있다.

'문화재 제자리 찾기' 의 대표 혜문 스님은 8월 30일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 중인 한국 문화재를 돌려받기 위한 조정신청을 도쿄 간이재판소에 제기했다.

혜문 스님은 일본을 방문해 도쿄박물관 운영자인 일본 국립문화재기구가 소장 중인 '오구라 컬렉션' 문화재 가운데 34점의 보관 중단을 요청했다.

오구라 컬렉션은 일본인 사업가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에서 수집한 문화재로, 1000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1965년 한일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로 문화재 1431점, 2011년 조선왕실의궤 등을 반환했다. 하지만 일본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한국 문화재가 산재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해외소재 한국 문화재는 15만 2,915점으로 이중 43%인 6만6,824점이 일본에 있다.

일본 국보인 가마쿠라 대불이 있는 고덕원(高德院)에 위치한 관월당은 경복궁 건물 일부를 떼어온 것이다. 도쿄 오쿠라호텔 뒤뜰에 있는 이천 오층석탑은 호텔창업주 오쿠라 기하치로가 일제시대 반출한 국보급 문화재다.

혜문 스님은 이들 문화재가 도난품이거나 도굴로 수집된 의혹이 있어 이를 도쿄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은 국제박물관협의회의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쿠라 오층석탑, 가마쿠라 관월당 등 해외반출 문화재 중 43%가 일본반출 대부분 일제시대 반출, 도난 의혹 많아


8월 30일 일본 간이재판소에 조정신청을 제기한 혜문 스님. 스님은 34점의 보관 중단을 요청했다.

혜문 스님은 "국제박물관협의회 윤리 강령에는 박물관 소장 유물의 출처 국가가 반환을 요구하면 이에 대한 대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도난 의혹이 있는 문화재를 도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은 양국 우호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화재 반환에 대한 요청이 거세지자 일본 정부는 오히려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모리모토 야스히로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은 "한국 측이 납득하기 어려운 반출 경위를 제시하고 있다. 당시 학자가 추측한 견해의 하나이며 그 학자조차도 데라우치 문고가 소장하고 있는 한반도 유래 문화재의 태반은 기증 또는 구입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데라우치 총독이 부당한 수단으로 한국 문화재를 약탈 혹은 강탈했다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수의 법률 조언을 맡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약탈해 간 문화재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된 것"이라며 최근 도쿄고등재판소 판결에 대해 "일본 외무성과 사법부는 1965년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대일청구권은 여전히 살아 있음을 인정한 것이기에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글 불교개론 〈불법총론〉 경기도 문화재

〈대혜보각선사서〉 비롯한 불교문화재 4점 지정

19세기 이전 보고 사례가 없는 한글 불교개론서 〈불법총론〉이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 · 고시됐다. 경기도는 불교 관련 문화재 4점과 조선 후기 문화재 8점을 도문화재로 지정했다고 9월 2일 밝혔다.

지정된 문화재는 〈불법총론〉과 〈대혜보각선사서〉, 파주 검단사 아미타불회도, 고양 흥국사 영산회상도, 조돈영서, 정조 어필 비망기, 정조사 조심태어찰첩, 정조사 박종보어찰첩 등이다. 양주 송암사가 소장한 〈불법총론〉은 불교의 이치와 개념을 금강경 등 여러 경전과 선어록(선사들의 언행을 담은 기록)을 인용해 문답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천마산 승려 보일이 1880년 필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언해본 경전과 달리 희귀본인 불교개론 필사본이다.

함께 지정된 포천 왕산사 대혜보각선사서는 송나라 임제종(중국 선종 5가의 한 파) 승려인 대혜종고의 편지글을 모은 책이다.


최초의 한글불교개론서 〈불법총론〉

지정문화재 조사에 참여한 송일기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이번 지정된 문화재는 불교문화의 저변을 보여 주고 있으며, 특히 양주 송암사 '불법총론' 은 순 한글 불서로서 현재까지 보고된 사례가 없는 순 한글 불교개론으로 당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불교 이해의 장을 보여 주는 단면"이라며 한글본 불교개론의 가치를 재부여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무형유산, 전승에 관심을"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 동산불교대 특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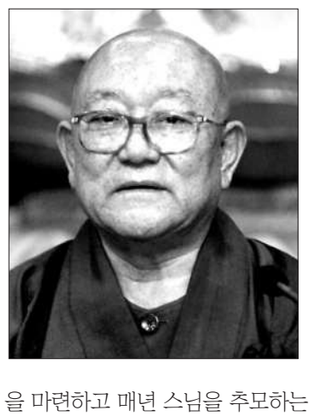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사진〉는 8월 30일 동산불교회관에서 열린 동산불교대학총동문회 명사초청특강에서 석굴암이나 팔만대장경과 같은 유형의 문화재가 불교유산의 전부가 아니며 불교계가 무형문화유산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특히 고대 민중들의 삶 속에 뿌리내린 불교의례를 무형문화재로 맥을 이어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무진장 스님 기리는 연구원 설립된다

서울 조계사와 종로탑골공원 일대에서 50여년 간 전법활동을 펼친 무진장 스님〈사진〉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한 연구원이 세워진다.



무진장 스님의 상좌인 진관스님은 8월 22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무진장 대종사 열반1주기 추모법회' 에서 "무진장 대종사의 사상을 널리 알리고 포교 연구를 펼칠 '무진장 불교문화 연구원' 을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특히 포교학 연구를 담당하며 학술대회와 학술지도 정기적으로 펴낼 예정이다.

또 장학 사업도 진행한다. 연구원 원장은 진관 스님이 맡으며 현재 임원 구성과 장소 등을 물색하고 있다.

진관 스님은 "큰스님께서 실현하려 했던 포교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한국불교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추모법회에 참석한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은 추도사에서 "무진장한 사자후는 전무후무하다"며 "조계종 포교의 증인인 스님의 원력을 연구원을 통해 계승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도 "조계사를 지켜온 무진장 스님의 사상을 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경내에 '무진장 도서관' 을 마련하고 매년 스님을 추모하는 의식을 봉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회는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귀의, 한글반야심경 봉독, 추모시 낭송 및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무진장 스님은 제2대, 4대 조계종 포교원장을 맡았으며, 서울 탑골공원에서 거지들에게 매일 법문을 펼친 일화가 유명하다.

특히 스님의 청빈한 삶은 불교계 안팎에서 많은 존경을 받았다. 사찰과 돈, 승용차 등 일곱 가지가 없다고 해서 '칠무 스님' 으로 불리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중앙승가대 문화재 · 상담교수 위촉



중앙승가대(총장 원행)는 8월 25일 본관 총장실에서 9월부터 신설되는 불교학부 문화재전공과 불교사회학부 상담심리학전공 교수를 위촉했다.

불교학부 문화재전공으로는 김천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과 고양 원각사 주지 정각 스님이 위촉됐다.

두 스님은 올 2학기부터 불교문화재학, 성보박물관 운영, 금석학 등 문화재 관련 전문 과목을 강의한다.

이와 함께 불교사회학부 상담심리전공 교수에는 중앙승가대 1, 2호 박사인 지은 스님과 각정 스님이 임명됐다. 두 스님은 템플스테이와 불교 상담 관련 과목을 가르치게 된다.

원행 스님은 "문화재 가운데 불교문화재가 60~70%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문화에 주목하는 시대가 왔다"며 "지속적으로 훌륭한 분들을 초빙해 스님들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흥선 스님은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직지사 성보박물관장과 불교중앙박물관장을 지냈으며 현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각스님은 동국대에서 철학박사 학위와 미술사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경북문화재 위원으로 활동했다.

지은 스님은 2010년 '규봉 종밀의 선사상 연구' 를 주제로 승가대 사상 첫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각정스님은 2011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실시한 제1회 템플스테이 논문공모전에서 '템플스테이 대중화 연구' 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우수상을 받았다. **노덕현 기자**

불교평론 2014년도 학술상 공모

〈불교평론〉은 2014년도 학술상을 공모한다. 2012년까지 실시한 '올해의 논문상' 을 계승한 '불교평론 학술상' 의 상금은 500만원이다.

불교평론 편집위원회 공모 및 추천 대상에 대해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간행된 학술도서로 △불교사상의 현대적 해석을 시도한 저술 △불교사상의 사회적 실천을 고취한 저술 △해당분야의 연구를 선도한 저술 △새로운 연구영역을 개척한 저술 △주요 불교문헌의 치밀한 번역과 주석을 시도한 저술 등을 제시했다.

신청방법은 해당분야 도서 2부와 요약문(200자 원고지 10매 정도)을 오는 9월 30일까지 불교평론 편집실로 보내면 된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2-9 MG타워 (02)739-5781

보조사상연구원, 9월 20일 월례학술대회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9월 20일 서울 법련사 문화강당에서 '송광사의 고승 나옹과 제자 무학, 고봉 재조명' 을 주제로 제109차 정기 월례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나옹혜근과 송광사' (이철헌, 서울대), '여말선초 수선사16국사 고봉과 18주지 무학' (황인규, 동국대) 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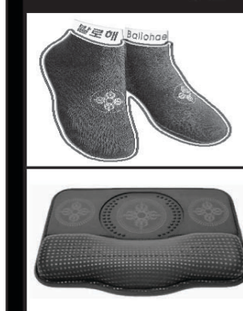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불교의 과학화·현대화 전법사 요람”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 9월 2일 개교 및 입학식

20여 신입생 2년과정 등록
2015년 300명 수용 기숙사도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 개교식에 모인 대중들이 테이프커팅ㅇㄹ 하며 학교발전을 기원하고 있다.

불교 전문 석박사 과정 교육기관인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총장 지광)가 9월 2일 개교했다. 설립자이자 초대총장을 맡은 능인선원장 지광 스님은 이날 경기도 화성 소재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 대강당서 열린 개교식에서 가르치는 대학이자 수행하는 대학으로 세계적인 명상지도사를 배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광 스님은 개교식에서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이른바 명상 지도자 자격과정 등을 개설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은 특히 능인선원 서초동 본원이나 분원에서 포교원 운영 실무경험을 갖추고 포교현장에서 역량을 발휘 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이날 개교식에는 총장 지광 스님과 불교학과장 백도수 교수를 비롯한 교수진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는 불교사상을 연구하는 불교학과와 불교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실생활에 적용하는 응용불교학과 등 두 가지 과정을 개설해 20여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석사 과정 첫 학기를 시작했다. 석사학위는 2년제 과정으로 입학 자격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 혹은 법령 상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라면 지원 가능하다.

불교학과는 불교학과 전법학 전공이 있으며 백도수, 김재권, 고승학 교수가 지도한다. 또한 응용불교학과는 명상학과 융합상담심리학, 융합심리치료학 전공이 있으며 명법 스님과 이경하, 임세라, 마커스 치탐(Marcus Cheetham)교수가 후학을 가르친다.

특히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는 교육과정 중 능인선원 본원이나 분원에서 포교원 운영 실습을 하고, 과정 수료 후 인턴십이나 레지던트과정으로 포교원 개원이나 취업이 가능하다. 또한 포교원 개원 시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전법자료, 상담, 법당 운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자체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해외 포교원 전법 연수 기회 부여 등 특전을 부여한다. 또 1기 신입생들이 수료하는 2년 뒤에는 박사과정도 개설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도 준공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는 지난 2014년 1월 교육부로부터 전문대학원 설립을 인가 받으며 불교 교육기관을 기치로 문을 열었다. ‘지혜’ ‘자비’ ‘정진’을 건학이념으로 현대 불교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지도자 교육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000평 규모의 강의동을 마련해 두고 있으며 3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기숙사를 건축 중에 있다. 여기에 스포츠센터, 도서관, 강의실, 학보사, 세미나실, 방송국, 강당, 교수 연구실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구비하여 학생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아울러 향후 박사과정 개설 계획으로 불교공부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또 제공해 능인장학금을 비롯해 금강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조교장학금 등을 마련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광주지역 스님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종교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광주지역 스님들이 참여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광주시민공동행동’ 행사가 8월 30일 광주역 앞 광장에서 개최됐다.

현지 스님, 연광 스님을 비롯해 광주불교연합회 회원사찰 스님들은 이날 광주역 집회와 충장로 삼복서점에 이르는 6km의 시가행진에 참여해 ‘세월호 특별법을 즉각 제정’ 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세월호 사건의 정확한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이미 지난 사건으로 치부하는 정부와 여당에게 더 이상 기만적인 행위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죽림사 산사음악회… 지역 명인명창 출연



대웅전 앞마당 백일홍이 져가는 초가을, 사찰에서 마을주민이 한데 어우러지는 음악회를 개최했다.

나주 죽림사(주지 법룡)는 8월 31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연이 피는 세상, 나눔축제’ 2번째 행사인 ‘문명자와 함께하는 마당’ 산사음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100여 명의 마을 신도들이 동참했다. 행사에서는 광주시 무형문화재 문명자 명인을 비롯해 광주전남지역 다양한 예술인이 참여해 가을밤의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다.

행사는 남도창(唱)의 시작을 알리는 보렴(報念)이 선보였다. 보렴은 불교용어로 본래 불교신도들 사이에서 생겨나 사당패가 즐겨 부른 장쾌하고 씩씩한 음악이다.

이어 판소리(최혜원) 흥부가, 사랑무(김선희), 가야금 병창(문명자외 4인), 살풀이(배선주), 남도민요 등이 펼쳐졌다. 인간의 희노애락을 표현한 남도 전례음악은 우리 삶과 흥이 덧붙여 죽림사 앞마당에서 문화잔치로 재현됐다.

법룡 스님은 인사말에서 “배우도 마음이 편해야 제대로 연기하고, 서예가도 마음이 편해야 좋은 글씨를 쓰고, 화가도 마음이 편해야 좋은 그림을 그리듯이 마음이 편하고 얽매인 데가 없을 때 비로소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며 “제2회 나눔축제에서 마음 한번 편하게 놓아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죽림사 산사음악회는 지난 7월 첫 나눔음악회를 개최한 후 매월 개최할 예정이며, 행사에는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사찰에서 와서 음식을 먹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창고 이용한 사찰 원각사, 관음보살 점안



창고 속 석굴암에 관음보살상이 모셔졌다. 창고를 새롭게 만들어 절을 만든 나주 영산포에 위치한 원각사(주지 원광)는 지난 8월 30일 관세음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나주 원각사는 매우 독특한 사찰이다. 창고를 사용하던 곳을 사찰로 개조했다. 지붕은 원래 슬레이트 그대로 두고 벽도 그대로이다. 밖에서 보면 시골의 허름한 창고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법당과 요사공간을 절묘하게 만들었다. 마치 창고 속에 있는 석굴암과 같은 형상이다.

나주 삼영동 100여 평 창고는 원래 시골주민들의 식량창고라 할 수 있는 정미소와 농협 창고였다.

원각사 주지 원광 스님은 “기존 시설을 사용하여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사찰을 만들고 싶었다”며 “현대적 아름다움을 갖는 도시의 재생, 버려진 것의 재생의 의미를 담았기에 기존의 틀을 벗어난 도량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점안법회에 이어 前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 초청 법회가 열렸다. 법회에는 20여 명 스님들과 200여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원광 스님은 인사말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불사를 통해 부처님 법을 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밝은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명진 스님은 법문을 통해 “금·은 단청을 하고 아름답게 치장 하고 관세음보살을 모셔도, 기도하는 사람이 사악하면 올바른 법이 아니다”며 “신도가 수행을 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모실 때 비로소 참다운 신앙”이라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수덕사·홍성지역주지協 만해추모제



만해 한용운 선사의 나라사랑 정신과 문학세계를 재조명하는 만해추모제가 선사의 열반 70주기와 탄신 135주년을 맞아 8월 28~29일 스님의 출생지인 홍성에서 열렸다.

제19회를 맞는 이번 추모제는 홍성문화원 주최로 만해생가지와 홍성군청 여하정에서 열렸다. 지난 8월 29일 선사의 생가지 만해사당에서는 탄신일을 맞아 다례가 열렸다.

이날 다례는 수덕사(주지 지운)와 조계종 홍성지역주지협의회(회장 덕원)가 주관했다. 다례에는 만해기념사업회 회장 응산 스님과 홍문표 국회의원, 김석환 홍성군수, 이상근 홍성군의회의장, 유환동 홍성문화원장 등 대중 300여 명이 참석해 스님의 뜻을 기렸다.

만해 한용운 선사의 업적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선사의 높은 뜻을 이어 받아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행사에서는 만해 백일장 및 사생휘호대회, 시화족자 만들기, 부채 만들기, 만해 문학강연회, 마당극 ‘님의 침묵’ 공연, 추모공연 등이 펼쳐졌다.

추모다례에 앞서 28일에는 홍성군청 대강당에서 선사의 선양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만해기념사업회를 결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초대 기념사업회 회장에 수덕사 前 주지 응산 스님을 추대했다.

만해기념사업회는 향후 학술발표회 개최, 만해학보 발간, 만해생가지 내 문학체험관 활성화, 만해장학회 설립 및 장학사업, 만해묘소 결성 생가지 주변 이전 추진 등의 다양한 선양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광주 향적사 대웅전·요사채 불사 회향



지리산 법계사 광주분원 향적사(주지 관해)는 8월 29일 대웅전과 요사채 불사를 회향하는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낙성한 대웅전은 부처님을 비롯한 삼존불이 모셔져 있고, 좌우측에 신중단과 영단이 조성돼있다.

낙성법회에는 방곡사 회주 묘허 스님,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 광주불교연합회 연광 스님을 비롯해 신도 600여 명이 동참했다.

관해 스님은 인사말에서 “사찰을 창건하는데 있어 지역주민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며 “늘 변함없이 법향이 가득한 사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향적사는 지리산 법계사에 자주 올 수 없는 노(老)보살들을 기도생활을 위한 기도공간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광주 광산구 두정동에 위치한 향적사는 연건평 9900㎡공간에 다포계식 전면 3칸의 대웅전과 식당·종무소·방사를 겸비한 2층 규모의 요사채로 구성돼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라오스에 부처님 자비 전해요”

불광사 봉사단 라오의 산들바람… 반틴마을에 틴온 초등학교 개원

부산 초읍 불광사(주지 보광) 봉사단체 라오의 산들바람(회장 지준)이 라오스 반틴마을에 9월 1일 틴온 초등학교를 개원했다. 이로써 반틴마을 80 여명의 아이들은 꿈에 그리던 쾌적한 교실을 갖게 됐다.

라오의 산들바람은 2012년 불광사 김동현 총무와 주지 보광 스님의 원력으로 만들어진 후원단체다. 150여 명의 후원 회원들은 1인 1후원계좌를 만들어 매달 만 원씩 라오스의 아이들에게 후원금을 보내며 꾸준히 후원을 해오다가 이번에 학교건립에 이르게 됐다.

라오의 산들바람은 후원자가 될 경우 라오스 학교 후원 불자회라는 수첩을 발급해 주는데 수첩 속에는 1대 1결연을 맺은 아이의 사진과 인적 사항이 적혀있다. 이를 통해 라오스 산들바람 회원들에게는 반틴마을 아이들의 삶을 꾸준히 도와준다는 의식을 갖게 해 준다.

또한 이 마을 빈곤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돼지선물 프로젝트도 실시한다. 학생들의 부모 대다수가 생계수단이 없다는 점에 착안해 돼지 한 마리를 선물하여 근본적인 가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이다. 선물한 돼지가 후에 새끼를 낳으면 가족들이 돼지 한 마리 값을 다시 불광사 측에 환원토록 해 그 금액으로 다른 가정에게 돼지를 보시하는 운영 방식이다.

불광사의 보시행은 국내에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불광사는 8월 28일 부산 초읍 어린이대공원 내에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을 실시했다. 이는 불광사의 자원봉사 단체인 염불공덕회(회장 유리광) 30여 명이 동참한 것으로 매월 둘째 · 넷째 주 목요일에 실시되고 있다.



불광사 봉사단체 라오의 산들바람이 라오스 반틴마을에 틴온 초등학교를 9월 1일 개원했다. 사진은 봉사자들이 학생들에게 후원 물품을 나눠주는 장면.



무료급식소 봉사를 펼친 보광 스님과 염불공덕회 봉사자들

150여 회원 1:1 결연 후원
릴레이로 돼지 각 가정에 보시
염불봉사 등 국내서도 보현행

불광사의 또 다른 봉사단체인 화합회 20여명은 불광사 신도들이 자신 또는 가족들의 생일날 부처님 전에 떡을 올리는 대신 쌀 10kg 을 보시한 것을 모아 몸이 불편한 지역 장애인을 비롯한 한부모 가정에 쌀을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화합회는 불광사의 생일맞이 보시쌀로 자비를 실천하고 있으나 부족할 경우 자체적으로 십시일반 보시금을 모아 정기적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쌀을 회향하고 있다. 또한 염불공덕회의 이름답게 무료 염불봉사도 불광사 봉사회의 주요 소임이다.

주지 보광 스님과 염불공덕회 5명은 형편이 어려워 49재를 모시기 어렵거나 혹은 주변 소외된 이웃들 중 갑작스레 세상을 떠날 경우 장례식장을 직접 찾아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회원들은 금강경 독송을 하고 주지 보광 스님은 입관까지 직접 참여해 고인의 넋은 물론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장소가 장례식장인 만큼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생과사를 뛰어넘은 불교의 교리와 의식은 유족들에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와 더불어 고인과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한다.

6년 넘게 불광사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유리광 염불공덕 회장은(55) “우리 불광사 봉사의 가장 큰 행동지침은 바로 ‘원하는 대로’ 이다. 신도들이 행복한 얼굴로 동참하는 것 이야말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불광사 신도로서 타인에게 베푸는 기쁨이 있어 행복하다”며 어려운 이들에게 회향하는 마음을 강조했다.

한편 라오스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라오의 산들바람 후원은 불광사 신도가 아니어도 누구나 동참이 가능하다. (051)809-1420

김나영 객원기자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사찰문화 교육

지견 스님 강사 초빙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들이 사찰음식을 배우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이 위탁운영하는 경남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기련)이 자원봉사자 대상으로 사찰음식 만들기 교육을 실시했다.

8월 29일 복지관 내 3층 소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와의 연계로 청주 월명사 지견 스님이 강사로 초청됐다.

올해 실시된 2014 자원봉사교육은 지금까지 진행됐던 봉사에 대한 기본 교육과 달리 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자연스럽게 사찰문화를 알렸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자원봉사자는 “지난 간담회 때 체험 위주의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는

색다른 체험 활동 제공
8월 29일 복지관 소강당서

데 의견이 잘 반영되어 만족스러웠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위해 마음을 내어주시는 봉사자들을 위해 앞으로도 자원봉사자 전문교육뿐만 아니라 색다른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영 객원기자

부산 생명나눔 유관기관 합동 홍보 캠페인

9월 1일~ 3일 부산시청서 진행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9월 1일~ 3일까지 부산시청 1층 도시철도 연결통로에서 2014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유관기관 합동 홍보캠페인을 진행했다.

(사) 한국인체조직기증재단 영남권역사업팀과 (재)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부산지부와 함께한 이 행사는 부산시민이 장기기증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된 행사다.

프로그램은 △장기기증 희망 등록 안내 및 신청접수 △희망과 나눔의 무지개 △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희망과 나눔의 무지개코너에서는 부산시민이 직접 작성한 난치병환우들에게 전하는 희망메시지 전시 및 후원회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생명나눔 캐릭터와 포토존 운영,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에게 즉석사진 촬영, 생명나눔 화살쏘기 ‘나눔에 꽂히다’ 도 진행해 생명나눔에 대한 관심을 모았다.



생명나눔 화살쏘기 프로그램에 도전하고 있는 참가자

김나영 객원기자

불국사, 월산 대종사 추모다례식

8월 29일 경내 부도탑 앞서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경주 불국사는 성림당 월산 대종사 17주기 추모 다례식을 8월 29일 경내 부도탑 앞에서 봉행됐다.

월산 대종사는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멀리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남긴 바 있다. 행사는 불국사 합창단 ‘다시 오소서’ 의 추모 노래에 이어 내빈소개와 함께 스님, 대중의 헌화로 이어졌다.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은 추모사에서 “스님께서는 ‘일생을 두고 돌았지만 한발도 움직이지 못했다. 본래 그 자리. 깨닫고 보니 부처, 조사가 어디 있는냐. 세상에 다 존재한다’ 는 오도송을 남기셨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문중 문도들은 가풍을 계승 발전시키자면서 후학자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추모사에 덧붙였다.

한편,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월산 대종사 문도대표)은 “주지소임을 다한 지금, 그동안 협조에 감사했고 미비했던 점에 대해 용서를 바라면서 오늘 추모 다례식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감사하다”는 마지막 인사로 불국사 주지소임을 마무리했다.



월산 대종사 17주기 추모 다례식

손문철 대구지사장

“환우 아픔 나누는 시간 되었습니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아이스버킷 동참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8월 27일 루게릭 환우를 위한 ‘아이스버킷’에 동참했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이 8월 27일 루게릭 환우를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

심산스님은 8월 26일 이춘성 부산시재가노인복지협회장으로부터 아이스버킷 챌린지 대상자로 지목받은 후 환우들의 아픔을 나누고 기도하는 마음을 대중과 함께 나누고자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다.

심산 스님은 “아주 잠깐이지만 루게릭을 앓고 있는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나누고 싶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다. 모두들 힘내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심산 스님은 아이스버킷 챌린지 이후 해운대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 이계영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총장, 구본일 BTN불교TV 사장을 다음 챌린지의 대상자로 지목했다.

한편 루게릭은 근력 약화 및 근 위축을 특징으로 언어장애, 호흡기능 저하 등 만성 퇴행성 증상을 가진 희귀질환이다.

김나영 객원기자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도모집

종 정 명 진 석법운 대종사



종 정
명진 석법운 대종사

귀의 삼보하옵고…
새로운 불교, 혁신적인 종지종풍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석가세존으로 부터 법맥을 이어온 저희 종단은 구태불교를 개혁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불교세계를 염원하는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은 본 종단과 함께하실 제방의 청정승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원로의장 보 운
원로총무 수 덕 원로위원 해 산
원로위원 월 각 원로위원 혜 담
원로위원 홍 원

총무원장(대행)
행정원장 도 경 사정원장 법 륜 문화원장 진 송
교육원장 청 담 포교원장 동 화

총 무 원
총무부장 (대행) 재무부장 월 산
교무부장 선 각 문화부장 한 담
규정부장 혜 오 법규위원장 설 산
신도회장 조태흠 사업부장 이재철

종 무 원
경북1종무원장 월 정 경북2종무원장 성 덕
경북4종무원장 해 산 대구2종무원장 해 산
대구1종무원장 광 덕 경기종무원장 원 담
충북종무원장 계 현

- 입종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 명함판 사진 3매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호 동명사 ☎ 054)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4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 (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佛心도 반해버린 산 병풍과 계곡 물소리

암자를 찾아서

⑧ 백암산 천진암


천진암 백암선원 전경. 계곡 위에 지어져 있다. 선방에 앉으면 아래로 흐르는 물 소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을 돕는다고 전해진다.

백두대간에서 나온 노령산맥이 남서쪽으로 뻗다가 호남평야에서 솟아 오른 높이 741m의 명산 백암산이 된다. 백암산은 백학봉과 상왕봉, 사자봉 등의 기암괴석이 많고 고불총림 백양사가 있는 산으로 알려졌다.

전남 장성군 백암산(白巖山) 끝자락에 둥지를 튼 고불총림 백양사(古佛叢林 白羊寺). 일주문에서 백양사 경내까지는 1.5km. 차로 그냥 지나치면 5분이면 지날 이 길을 걸어서 올라가면 좋다.

아기단풍나무와 벚나무가 양편으로 늘어선 이 길은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길 100선'과 '가장 걷고 싶은 길'에 선정돼 있다. 함박눈이 내리는 겨울엔 눈 터널로, 새싹 돋는 봄엔 꽃 터널로, 단풍 곱게 물드는 가을엔 단풍 터널로 더욱 유명하다.

길을 따라 쌍계루에 이르면 하얀 바위봉우리가 날개를 편 학을 닮았다는 백학봉이 정면에 턱 버티고 섰다.

더 이상 세속이 아니다. 쌍계루와 백학봉이 함께 이루는 아름다움은 조선 8경으로 알려진 아름다운 풍광이자, 수행자에게는 깨달음의 세계를 상징하는 진리의 세계처럼 느껴진다.


천진암 대웅전 전경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도량

쌍계루를 지나 오른 쪽 길로 400m를 올라가면 비구니들이 거주하는 천진암(天眞庵)암이다.

천진암에 들어서면 전각은 몇 채 되지 않지만 정갈함이 들어온다. 정갈한 암자에 가면 '정말 잘 왔구나'라는 마음이 든다. 어디하나 눈에 거슬릴게 없이 화단과 사찰에 스님들의 손이 가있다.

주지 정관 스님은 천진암에 대해 "누구나 이 도량에 오면 천진불 되는 곳입니다. 천진동자와 같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나타는 곳입니다"라고 말한다.

천진동자처럼 마음공부를 하는 천진암은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인 백암산 백양사(白羊寺)의 산내암자로, 비구니 스님들의 수도도량이자 지장기도 참회도량이다. 1350년(고려 충정왕 2년) 각진국사(覺眞國師) 복구(復丘 1270~1355)스님이 창건하였다고 전해진다.

지금 천진암은 최근에 복원된 사찰이다. 6·25전쟁 때 아군에 의해 전소되면서 이곳에 수행하던 비구니 스님들 90여 명이 모두 흩어지고 말았다.

전쟁 이후 전소된 암자터에 천막을 치고 수도하며, 오늘날의 모습을 가꾸어 놓은 분이 정공스님이다. 정공스님은 지난 1971년 이 곳에서 입적할 때까지 임법당과 삼성각을 건립하는 등 천진암의 중창에 힘썼던 스님이다.

정공 스님의 입적 이후 퇴락해 가던 암자를 정안 스님이 1989년에 다시 중창불사가 진행되어 대웅전과 요사·삼성각 등이 중수됐다.

천진암에는 현재 'ㄴ'자 모양을 한 묘백당·백암선원과 함께 대웅전·삼성각 등이 있다.

대웅전은 앞면 3칸 옆면 3칸의 팔작지붕 형식을 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아미타·관음·지장보살이 봉안했다. 또한 아미타후불탱화를 비롯해서 천수관음탱화·지장탱화·신중탱화 등의 불화도 봉안돼 있는데 모두 1991년에 조성됐다.

삼성각은 앞면 3칸 옆면 1칸의 맞배지붕 형식으로서 내부에는 1991년에 조성된 칠성탱화·독성탱화·산신탱화가 봉안돼있다.

1350년 고려 각진국사가 창건
비구니 선방 '백암선원' 유명
주변에 5천그루 비자림 조성
사찰음식 템플스테이 인기

물소리를 들으면서 수행하는 백암선원

천진암의 가장 큰 특징은 비구니 스님들의 선방란 것이다. 매년 6~7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이곳에서 안거에 든다. 선방인 백암선원은 백양사 前방장 서옹 스님이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선방을 지으라"는 교시로 짓게 됐다.

그런데 계곡 위에 있다. 원래 선원을 짓고자 했으나 사찰의 공간이 좁아 마당을 더 넓히면서 백암선원이 계곡위에 짓게 되었다. 백암산은 바위와 돌로 이뤄진 산이다. 여름 장마철 비가 오면 삽시간에 물이 불어 급류가 흐르지만, 비가 멈추고 1시간만 지나면 물은 온데 간데 없이 평온해 진다.

정관 스님은 "참선하는 스님들이 비오고 장마철이 되어 폭포수 같은 물이 흐르면 내 마음이 요동친다고 생각한다. 도리어 물소리를 듣지 않고 내 마음의 도를 닦는 도구로 생각한다"고 말한다.

이 얼마나 좋은 수행의 도구인가. 터가 좁아 물위에 앉힌 건물이 도리어 수행자의 큰 도구가 되었다.

여기에 요사채인 묘백당에는 햇빛이 많이 들어 정신수양에 그만이다. 대강백 백운스님이 천진암을 방문하면서 한 요사채를 보고 주지 정관 스님에게 물었다.

"이 당우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소?"

정관 스님이 묘백당이라고 말하자, 백운스님은 "아침이 밝은 집,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칭송했다.

묘백당은 동쪽을 향한 집이다. 특히 아침 햇살이 가장 많이 들어온다. 흔히 수행을 강조하는 '심검당', '적묵당' 등을 이름으로 쓴다. 인위적이지 않다. 수행은 원래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다. 심우도에서 동자가 소 등을 따고 피리를 부는 것과 같다.


백양선원 내부 모습

각진국사의 애민정신 전해져

백암산에는 눈이 많이 내린다. 이웃에 있는 담양군 따뜻한 기운으로 늘 곡식이 풍성하지만, 천진암이 있는 백암산은 늘 함박눈 같은 눈이 흩날리지도 않고 바로 떨어진다. 눈 내린 백학봉을 천진암에서 바라보면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날아가는 모습이다.

특히 천진암 주위를 휘감고 있는 비자나무 숲은 고려 고종 때 각진국사가 심어 조성됐다고 한다. 현재 약 5,000그루가 자라고 있다.

각진국사는 당시 유일한 구충제였던 비자나무 열매로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절 주변에 심었다고 한다. 실제로 1970년대까지도 스님들은 비자나무 열매를 거두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백양사 비자나무는 분포상 북쪽한계가 되므로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천연기념물 153호 지정돼있다.

사찰음식 통한 포교에도 앞장

백암선원 울타리 안내는 탱자나무가 있다. 탱자는 사찰의 중요한 양념으로 사용한다. 발효를 시킨 탱자는 액으로 만들어 반찬을 만들 때 긴한 양념이 된다. 500년이 되어 비로서 그 역할을 하는 천진암의 식량이 되는 나무이다.

천진암에서는 이런 자연재료를 토대로 최근 사찰음식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특히 주지 정관 스님은 사찰음식 전문가로 유명하다. 정관 스님은 비구니 참선도량인 천진암에서 사찰음식템플스테이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누구나 미리 예약을 하면 제철의 절밥을 먹을 수 있고, 사찰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천진암=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주변 둘러볼만한 곳

▲백양사

처음에는 백암사라고 하였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이며 장성, 담양, 나주, 영암 등에 있는 사찰을 관할한다. 631년(무왕 32) 승려 여환(如幻)이 창건하고, 고려시대인 1034년(덕종 3) 중연(中延)이 중창한 후 정토사(淨土寺)라 개칭하였다. 1574년(선조 7) 환양(喚羊)이 백양사라 이름하였다. 당시 환양선사가 절에 머물면서 염불을 하자 흰 양들이 몰려오는 일이 자주 일어나자 이를 보고 사찰이름을 백양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중건을 거쳤다.

사찰의 주요 건물로는 환양이 세웠다는 극락전(極樂殿:지방유형문화재 32)이 가장 오래되었고, 대웅전(지방유형문화재 43)은 1917년 만암(曼庵) 스님이 주지로 있으면서 백양사 중건 때 지은 것으로, 석가모니불·보살입상·16나한상(羅漢像)이 봉안되었다. 또한 같은 해에 건립한 사천왕문(四天王門:지방유형문화재 44)과 1896년경에 세운 명부전(冥府殿)이 있다.

▲용흥사

백양사의 말사로 백제 때 창건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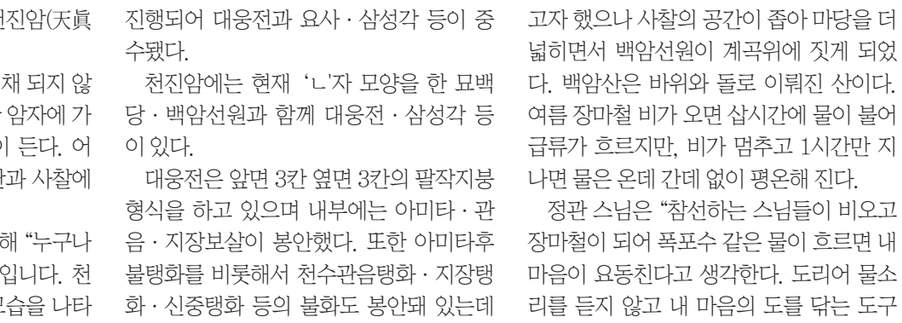
본래는 용구사(龍龜寺)라 했는데, 조선 숙종(재위:1674~1720) 때 숙빈(淑嬪) 최(崔) 씨가 이 절에서 기도한 뒤 영조를 낳자 이후 절 이름을 용흥사로 바꾸었으며, 산 이름도 몽성산으로 고쳐 불렀다. 이 때부터 50여 년간 절이 발전하여 한때 산내 암자만도 7개나 있었고 큰스님도 머무르며 불법을 폈다고 한다.

19세기 말에 의병의 본거지로 쓰이다가 불에 탄 것을 박항래(朴恒來)가 중건하였다. 1930년대에 백양사 정신(定信)스님이 대웅전과 요사채를 세웠으나 1950년 6·25전쟁 때 다시 불에 탔다. 1957년에 중창하고 1970년대에 대웅전을 새로 지었으며, 1990년대부터 대대적인 불사를 일으켜 오늘에 이른다.

현재 건물로는 대웅전과 미타전을 비롯해 몽성선원, 요사채 3동, 사천왕문이 있다. 유물로는 보물 제1555호로 지정된 용흥사범종이 잘 알려져 있다. 그밖에 희옥(熙玉)과 일옥(一玉)·쌍인(雙忍) 등의 부도가 전한다.

귀신병, 신병, 퇴마, 천도재 전문

NAVER Daum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TV출연 다수의 현오스님이 당신을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단, 1번의 기도로 당신의
인생이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퇴마술 / 최면술 / 기공 / 자극요법술 전수생 모집중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한국 빙의 퇴마 최면연합회본부

대한불교 약사불종 약천암

자연치유원

천혜의 자연환경
낙동강, 토곡산 청명함과
자연치유의 방편으로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만들어 드립니다.

상담 / 문의 1899-8108

부산역 상담센터
문의 : 1899-8108. 010-9229-3801

新 사찰 건축

15. 일산 여래사 · 서울 구룡사 · 법련사

다양한 문화공간이 시대흐름 선도

건축은 그 시대의 생활상이 반영되는 삶의 배경이다. 그것도 직접적인 배경이다. 그곳에서 삶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종교의 신행활동 역시 삶의 일부이고 문화의 일부이다. 사찰 역시 시대적 흐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깊은 산을 나와 도심에 지어진 현대의 사찰들은 특히 시대적 요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서 시대적 흐름을 선도해야 한다. 최근에 지어진 현대건축 양식의 신 사찰 중에는 문화적 공간을 중심에 둔 도량이 늘어나고 있다. 일산의 여래사와 서울 구룡사, 법련사가 그렇다.

부처님 모시는 곳…최대한 정성담아야

서울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은 건축 용어에 능숙했다. 시멘트, 래미콘 타설, 전벽돌 등의 단어가 계속해서 흘러나왔고 공간의 너비 대비 높이 비율을 논하는가 하면 3.3m의 건물 1층 평균 높이를 정확히 짚어내기도 했다. 일산 여래사 불사에 관한 이야기였다.

스님은 여래사 설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전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건축가와 상의해 외관도 디자인하고 내부 구조와 형태, 재료선택은 물론 구입까지 도맡았다. 공사기간에는 매일 서울에서 일산까지 출퇴근 하다시피 했다. 3년 동안 자동차 운행거리가 12만km를 기록했다.

부처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자 최대한의 정성을 다한 불사, 일산 여래사다.

2000년 완공된 여래사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구룡사와 이란성 쌍둥이 격이다. 1985년 구룡사 주지로 부임한 정우 스님은 천막법당에서 시작한 구룡사가 현재 외관을 갖추기까지 건축과정을 진두지휘했다. 거기서 얻은 노하우를 축적해 여래사를 세웠다. 주변 주택과 이질감이 없도록 콘크리트 구조에 화강암을 덧대었고 울긋불긋한 단청은 자제했다. 사찰이라는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윗부분은 전통사찰지붕 모양을 가져왔다. 불법을 설하는 곳이란 의미를 담아 곳곳에 불교적 상징들을 배치했다. 지하에서부터 5층까지 이르는 계단은 108개다. 구룡사 내부계단은 6개와 9개가 번갈아 반복된다. 6바라밀과 구룡사의 9를 차용한 것이다.

연면적 3천평에 달하는 여래사는 지하 4층에 지상 5층 건물이다. 시공에만 3년이 걸렸다. 비슷한 크기의 다른 건축물 보다는 1년 정도 더 걸린 셈이다. 기간이 길어진 데는 정우 스님의 꼼꼼함이 작용했다.

"정직하게 잘 만들어야 한다". 정우 스님의 말이었다. 부처님을 모시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다.

시선이 닿지 않는 곳까지 정성스레 벽돌을 쌓았고 전깃줄역시 눈에 띄지 않도록 건물 안과 지하에 매설했다. 외관 기둥은 형태미를 고려해 직사각 기둥에서 시공비가 7배나 더 소요되는 원형기둥으로 바꿨다. 주차장 높이도 다른 곳보다 1m이상 높여 어두침침한 공간에 개방감을 줬으며 인등전에는 참선하는 불자들을 위해 온돌을 깔았다.

게다가 공사 과정 중에 유리창 하나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끼웠던 유리를 죄다 꺼내 가운데 필름을 부착하고 다시 넣는 수고까지 감수했다. 후일 큰 사고에 대비하고자 무디게 깨질 수 있도록 먼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철근을 손수 사고 레미콘도 직접 발주했다.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모래까지 발품을 팔아 구했다. 시멘트 회사 회장까지 만나가며 부식에 취약한 바닷모래대신 임진강 유역의 모래를 구해다 썼다. 각각의 건설업자 선정도 불자들 중에서 관련 종사자를 찾아 직접 선임했다. 여래사 건축 현장 소장이자 설계시공 총 책임자는 정우 스님이었던 셈이다.

3사찰 모두 문화포교에 역점
'신행공간=문화공간' 개념 도입
극장 · 미술관 · 서점 · 방송국 갖춰
주변 주택과 조화 위해 단청 자재
건물 곳곳에 불교적 상징 설치

여래사는 뮤지컬 전용 소극장
법련사는 갤러리 · 서점 운영

사찰에 문화 접목

여래사는 통도사 포교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신도시 포교를 위해 세워진 곳이다. 포교 기능을 우선으로 공간을 배치했다.

기존 사찰이 오롯이 수행과 예배를 위해 지어진 곳이라면 주택가 옆 혹은 시내 번잡한 곳에 자리를 잡은 도심 사찰은 필연적으로 사람들을 배려한 곳이 되어야 했다. 현대 사찰은 기능적으로나 본질적으로나 포교를 중심에 둘 수 밖에 없었다.


일산 여래사는 연면적 3천평에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졌다. 신도시 포교를 위해 사찰 안에는 방송국, 서점, 찻집, 극장, 회관이 있다.

'일산 신도시의 포교전진기지'로 지어진 여래사는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다. 사찰의 성격을 버리지 않되 불자아닌 일반인들까지 아우르는 공간이 되기 위해 서점, 찻집은 물론 인터넷 방송국, 다목적 회관, 소극장까지 자리잡았다. 문화포교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필요를 충족시키며 지역 중심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였다.

익히 알려진대로 여래사의 뮤지컬 전용극장 '신시씨어터'는 '시카고', '맘마미아' 등으로 유명한 신시뮤지컬컴퍼니(前 극단 신시)가 2001년 자리를 튼 것이다. 지하 1층에 자리한 220석 규모의 소극장은 높이 7.5m 너비11m로 왠만한 중극장 수준이다. 건물 설계 당시부터 소극작용으로 설계된 공간이었다. 신행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보겠다는 당찬 시도였다. 원류는 역시나 구룡사였다. 1987년 극단 '신시'가 구룡사에서 창단된 것이다.

현재 여래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공간을 꼽는다면 1층에 자리한 회관이다. 260석의 좌석을 확보한 1층 회관에서는 결혼식도 열린다. 지금은 지역민들이 요청할때마다 모임장소로 활용되곤 한다. 세미나, 소규모 축제, 각종 모임 등이 불교와 상관없이 열리며 그 외에는 여래사 불교교양대학 강의와 법회공간으로도 쓰이고 있다. 빔프로젝트와 스크린, 음향설비 등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웬만한 발표회나 회의, 축제 등 행사 진행이 무리없이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전문방송장비가 가득한 방송실에서는 여래사에서의 법회를 녹화해 붓다TV라는 인터넷 방송국에서 법음을 상시 전하고 있다.

정우(頂宇) 스님은 법명에 집(宇)이 들어간다. 월하스님이 지어주셨다. 당호인 아산(芽山)역시 싹(芽)으로 산을 만들라는 뜻이다. 스님은 집을 많이 지어 불자들을 많이 키우라는 말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래사 지붕 용마루에는 법륜과 사슴 조형물이 있다. 부처님이 처음 법을 설한 녹야원을 형상화한 것이다. 불법이 널리 퍼져 일체 중생이 고를 멸하고 진리를 얻어 해탈되는 전당이 되라는 서원에서 세워진 곳이 여래사다.

여래사가 문화포교에 대한 아이디어로 극장을 내세웠다면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서울 법련사 역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1996년 법련사에는 서울 도심 사찰 경내에 처음으로 상설미술관인 불일미술관이 들어섰다. 개관 이래 불교미술 등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전시회를 열어오고 있는 이곳은 당시 회주 스님인 현호 스님이 문화와 더불어 숨쉬는 도심속 수행 및 포교도량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생각에서 개관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초전법륜의 성지 녹야원을 뜻하는 사슴모형의 여래사 지붕


서울 법련사의 서점. 지하에 상설 미술관이 있다.


서울 구룡사. 탑모양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했다.


여래사 1층에 있는 회관. 법회, 지역 소모임 등이 이뤄진다.

약사여래부처님 본불(보신불), 현지사 고성분원을 상주처로 하다

약사정토의 약사궁과 빛으로 링크(연결)된 지구촌 보물 4호 '현지사 고성분원 약사성전', 병고에 시달리는 중생들을 위해 횃불을 밝히다


바다 배경 고성분원 전경

■ 약사여래부처님, 좌우보처 보살과 전문의 98분 약사정토보살님이 상주하시다

현지사 고성분원의 약사성전에는 의중대왕이신 약사여래부처님과 좌우보처 일광불 일광변조보살님과 월광불 월광변조보살님이 상주하십니다. 또 일광불의 좌우보처 약왕보살님 약장보살님 월광불 좌우보처 향상보살님 향덕보살님, 그리고 약사정토에서 파견되어 오신 98분의 전문의(專門醫) 최상수보살님이 상주하고 계십니다. 약사성전은 불과를 증한 성자가 점안했으므로 약사정토의 약사궁과 빛으로 링크가 되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절의 약사전에는 화신불(化身佛)이 머무는 것과는 달리 언제나 약사여래부처님의 보신불이 와서 머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약사성전에는 항상 도량과 불보살님들을 호위하는 8만4천의 군사들이 여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전체 도량을 땅 속 깊이까지 탁하고 삿된 기를 전부 뽑아내고 부처님의 청정한 기로 채워넣은 성지 중 성지입니다.

■ 의중대왕 약사여래부처님의 실체

약사여래부처님(Bhaisajyaguru-Buddha)은 약사유리광여래라고도 하며 오여래부처님 중의 한분입니다. 오여래부처님은 모든 부처님을 대표하는 다섯 부처님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동방의 정유리정토에 머무십니다. 약사여래부처님의 몸은 유리처럼 투명하고, 의약과 의술 전반에 걸친 최고의 의왕(醫王)입니다. 좌보처 일광불 일광변조보살님은 근골(筋骨) 계통에, 우보처 월광불 월광변조보살님은 신경 계통에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부처님은 과거에 보살도를 닦을 때에 12대원을 세우셨는데 그 중 가장 큰 서원이 병고치유의 서원입니다. 무피염(無疲厭-어떤 경우에도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음)으로 중생세간을 넘나들면서 병고에 시달리는 중생들에게 약손을 드리워 병고를 구완해줍니다. 부처님은 병고를 치유하기 전에 먼저 병고와 관련된 업장을 소멸한 다음 그 병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행합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수술을 할 사람에게는 수술을 하고 약을 먹일 사람에게는 약을 먹입니다.

■ 약사여래부처님의 정토 – 동방 정유리정토

동방 만월세계 약사정토(정유리정토)는 서방극락정토보다 한 단계 높은 보살님들의 정토입니다. 서방극락정토 보살님이 27품으로 구분되는 것처럼 약사정토도 27품으로 보살님들의 품위가 구분됩니다. 극락정토의 최고 품위의 보살님을 최상품보살이라고 하고 약사정토의 최고 품위 보살님을 최상수보살이라고 합니다. 최상수보살님은 불격(佛格)을 갖추신 분으로 원만보신만 증득하지 못했을 뿐 지혜와 법력은 부처님과 같습니다. 약사정토의 보살님들은 중생들의 병고를 치유하는 보살행을 하기 위해 모두 의술을 배우며 품위가 상승할수록 전문의가 됩니다. 약사정토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첨단 의술을 연마하며 사바세계의 모든 약초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약사성전 점안식

■ 약사여래부처님의 서원

약사여래부처님은 보살 인행(因行)시에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12가지 서원을 일으켰습니다. 그 중 가장 큰 서원이 중생의 병고를 치유하고자 하는 서원으로 두 가지입니다.

중환실제원(衆患悉除願) – 온갖 병에 시달리면서 머물 곳도 없고 약도 없고 돌보아 줄 이 없어 고통받는 중생들이 나의 이름을 한번만 스쳐 듣기만 해도 병고에서 벗어나며 성불하길 원하옵니다. 제근구족원(諸根具足願) – 몸이 불구자여서 장님 귀머거리 벙어리 절름발이 곱추 문둥병 등 온갖 병으로 고통당하는 중생들이 나의 이름을 듣고 일념으로 부르면 모든 병고가 사라지고 몸이 온전해지길 원하옵니다.

■ 약사여래부처님을 항상 생각하고 염불하라

"약사여래부처님은 너무도 거룩하시고 위대한 어른입니다. 무량겁 전에 불과를 증하고 정말로 많은 병자를 치유해오셨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중생들의 피고름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 공덕이 숲을 이루고 온 법계에 가득할 정도로 공덕이 많은 분이 약사여래부처님입니다. 이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고 염불하십시오." (2012년 2월 6일, 약사성전 점안식 자재만현 큰스님 소참법문 중에서)

■ 약사여래부처님 기도법

매일 〈약사여래본원경〉을 독송하고 '약사다라니'(약사여래본원경 중에 있음) 7회 내지 49회 독송하고 참회발원을 한 다음 '약사여래불' 정근을 간절히 합니다. 정성스럽고 간절할수록 부처님께서 현신하셔서 병고와 관련된 업장을 소멸해주시고 병고를 치유해주십니다. 기도할 때는 청정수를 준비했다가 끝난 다음에 마시거나 바릅니다.


약사성전 대웅보전

※ 약사재일 : 매월 음력 8일 오전 9시 30분 봉행합니다

자재 만현 큰스님 법회 안내

현지사 춘천본사 정기법회
9월 21일(일) 오전 9시

업장을 씻어주는 세계유일의 부처님회상에서 불과 이룬 큰스님의 사자후를 들어보십시오! 세계 어느 불교에서도 몰랐던 부처님세계와 인간 영혼체에 대한 깊은 비밀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21세기 인류정신을 향도하고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갈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를 만나보십시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저자 자재만현 큰스님의 동영상 법문(249회째)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버스 운행됩니다.
문의 033)243-1787, 1795

영산불교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현지사 고성분원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길 7 ☎ 033)681-5515

화엄의 꽃 절집 천정
〈8〉 황악산 직지사 대웅전

거대한 '종자 만다라' 구현… 천정 칸칸마다 범자


대웅전 천정에 장엄된 다양한 범자. 총 330여 우물 칸에 심어져 있다.


윗줄 사진은 지붕기와와 후불탱화에 결계로 장치한 범자이고, 아래는 보살벽화이다.

역사적으로 불상이 등장한 때는 기원후 1세기경으로 인도의 간다라지역과 마투라지역에서 최초로 조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석가세존의 입멸 후 불상이 나타나기까지 무불상시대에는 보리수, 법륜, 연화좌, 불탑 등을 통해 부처님 존상의 상징으로 표현했다. 불교는 미묘본심의 깨달음의 종교다. 진공묘유의 진리법계는 부처께서도 대중설법을 차마 망설인 불가설불가설의 불가사의로 미묘하다. 개미에게 바다의 실체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광대무변하고 미묘한 뜻은 언어의 형용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는데 한계를 가진다. 그래서 언어가 끊어진 곳, 곧 언어도단(言語道斷)의 자리엔 고도로 관념화 된 상징의 이미지로 그 자리를 대신한다.

범자는 부처의 세계를 담은 종자

밀교진언(眞言)은 팔만사천 경전의 법문을 압축한 만트라다, 진언은 한량없는 깊은 뜻의 다라니, 곧 총지(摠持)를 담은 신묘한 주문(呪文)이다. 진언을 염송한다는 것은 방대하고 현묘한 경전내용을 직감적으로 체험하는 추체험이라 할 것이다. 마치 예천 용문사 대장전에 있는 윤장대를 돌려서 경전을 읽는 효과를 갖는 것과 같은 이치다.

불전조형에 장엄된 범자(梵字) 한 자 한 자는 거대한 부처의 세계를 담고 있는 종자(種字)다. 마치 1,000억개의 태양계를 가진 하나의 은하를 단순한 나선문양으로 표현하는 원리다. 범종에, 향완에, 부도에, 새긴 범자는 문자언어로도, 조형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화엄법계의 심인이다. 범자는 문자의 뜻과 조형의 아름다움, 생명력의 에너지를 두루 총섭한 불가사의한 상징의 힘을 갖추고 있다. 범자 너머에 부처님께서 계시는 까닭일 것이다.

직지사 대웅전은 그 범자의 세계다. 고창 선운사나 서산 개심사, 양산 통도사 대웅전, 봉정사 대웅전 등에서도 범자 진언장엄을 통한 화엄법계의 관법(觀法)을 드러내고 있으나, 직지사 대웅전의 경우는 모든 우물천정 칸칸에 범자의 종자를 심어 유례를 찾기 힘든 거대한 종자자만다라(種子字曼荼羅)를 구현해 냈다. 불전건축에 단청의 빛을 입히고 그 속에 범자를 심는 장엄양식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티베트에서만 나타난다. 세계불교미술사에서 거대한 불화 역시 티베트와 한국에서만 각각 탕가와 괘불탱으로 나타나는 것을 함께 떠올려 보면, 그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13세기 몽고족 원나라를 통하여 티베트의 라마불교양식이 한국불교에 깊숙이 이식되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몽고족이 침략한 고려 13세기 이후 한국의 불교장엄에 라마불교의 탑 양식 등, 전에 없던 티베트양식이 다양하게 출현하였고, 불전천정, 법구, 기와, 불화, 불상, 복장유물 등 곳곳에 범자장엄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다. 범자 한 자는 대지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은 종자(種子)다. 꽃과 열매를 볼 수 있는 불성의 종자다. 동시에 부처의 상징으로 압축된 종자불(種字佛)이다. 직지사 대웅전은 화엄의 밭이다. 불성과 부처가 두루 편재(遍在)하는 유비쿼터스(Ubiquitous)의 진여법계다.

이중 삼중의 범자진언 결계 구축

직지사 대웅전의 범자종자들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독특하다. 결계진언적 성격이 두드러진 까닭이다.

'결계(結界)' 라는 말은 어떤 성스러운 것을 구획함에 있어서 부정이나 위해로부터 신성과 안전을 유지하고자 취하는 호위의 경계다. 독충과 위해세력 등

불전 범자 장엄, 한국과 티베트 뿐
13세기 원나라 티베트 양식 유입
후불탱화, 범자로 밀교적 결계 장치
범자 '옴'은 생명력 가득한 법계 상징

마장의 침입으로부터 청정가람을 보위하는 것이다. 결계의 방식에는 담이나 목책, 오색실을 두르는 것과 같은 물리적인 방식이 있는가 하면, 밀교적 진언을 통한 관법(觀法) 결계방식도 있다. 관법의 결계방식은 진언의 만트라를 주문하여 밀적의 고차원적 에너지를 불러내서 공간의 신성과 안전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가시적인 장엄에서는 진언종자를 베풀어 염송을 통한 다라니진언을 대체 구현한다. 직지사 대웅전에는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약사불 삼존불과 그 후불탱화를 모신 신성의 공간이다. 불전공간에 이중, 삼중의 범자진언 결계를 둘러쳐서 신성을 계호하고 있다.

'옴' 범자는 에너지와 진리 특이점

범자진언 결계는 먼저 대웅전 지붕의 수막새를 통해 결계를 쳤다. 수막새 드림부에 범자를 빠짐없이 넣었는데, 연화문의 화심부분에 '옴' 한 자(字)를 새겼다. 범자 '옴' 은 생명력의 파동에너지와 진리로 가득한 진여법계를 상징한다. 단지 한 자에 불과하더라도 무한의 시공간으로서 그 차원을 측정할 수 없는 비선형적 특이점의 성질을 갖추고 있다. 빅뱅의 특이점인 한 점에 만유의 처음이 있음과 같은 이치다. 그런데 지붕의 기와장엄에서 주목할만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대웅전 지붕끝 수막새에 얹은 흰색 도자 연봉장식이다. 이 연봉장식은 양산 통도사 적멸보궁과 서산 개심사 대웅전에도 나타나는데, 이 불전들은 한결같이 범자 종자불이나 다라니진언이 세심하게 구현된 불전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팔엽연화 꽃잎 속에 금빛 실담범자

보다 광범위하면서 집중적인 범자 진언결계는 사방연속으로 종자만다라를 구현한 천정장엄에서 두드러진다. 직지사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장방형에, 내3출목을 가진 건물이다. 사방 한 칸 폭의 외진주 영역의 천정은 빗반자 우물천정이고, 나머지 내진주 영역의 천정은 평반자 우물천정이다. 범어사 대웅전 천정처럼 빗반자와 평반자 모두 우물천정이고, 모든 우물칸에는 회전하는 팔엽연화 꽃잎 속에 감싸인 금빛 실담범자(悉曇梵字)를 새겼다 . 외진주 영역의 범자 우물칸은 170여 칸이고, 내진주 영역의 범자 우물칸은 총 160칸이다. 실담범자 한 자 한 자는 고도의 상징성을 띤 다라니 진언이자, 부처님의 세계다. 법계는 갠지즈강의 모래알 수만큼 많은 중중무진의 삼천대천세계다.

언어도단, 심행처멸의 경지를 직지

진정 우리는 개미에게 저 광대한 바다의 실상을 어떻게 설할 수 있는가? 그 사유는 형용의 언어가 끊어진 언어도단(言語道斷)의 경지이고, 마음마저 갈 데가 없는 심행처멸(心行處滅)의 경지다. 인간의 인식작용으로는 더 이상 실상을 드러낼 수도, 형용할 수도 없다, 문자언어도, 조형언어도 그 빛을 잃게 마련이다. 오직 범자의 방편을 빌려 무설의 불립문자로 직지(直指)할 뿐이다. 우물천정 칸칸에 장엄한 범자는 진리의 끝간 데, 곧 진제(眞際)의 경지를 들어 보이는 직지의 달(月)이다. 그 때 천정은 금니 종자로 새긴 월인천강의 심인이 천공 가득 대자대비로 출렁이는 해인의 바다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직지사 대웅전에 장엄된 범자체계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보다 조직적이며 보다 분명한 목적의식이 감지된다. 지붕의 기와명(銘)도 그렇고, 일반적인 육자진언을 넘어 다라니라고 볼 수 밖에 없는 범자집합을 천정 전면에 광범위하게 장엄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대웅전에 모신 삼존불 후불탱화를 보면 비로소 그 뜻이 풀린다. 삼존불 후불탱화 테두리에도 저마다의 화폭에 담은 부처님의 존상과 관련성을 가졌을 것으로 짐작되는 다라니 진언을 질서정연하게 세밀히 채워 넣고 있다. 그 배열형식이 건축물에 담장이나 목책을 둘러 공간을 구획하고 제한하는 방식을 연상케한다.

천정범자 불국토수호의 결계

그것은 후불탱의 테두리에 범자를 둘러서 실담범자를 통한 밀교적 결계를 장치하는 것임에 분명하다. 즉 진언종자로 삼존불 존상을 결계함으로써 삼존불의 청정 불국토를 수호하고 있는 것이다. 석가여래의 탱화에는 166자의 범자가, 아미타여래와 약사여래 탱화에는 둘다 170자의 범자가 장엄되어졌다. 이러한 광범위한 범자 집합을 통한 결계형식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단지 1767년에 제작된 통도사 석가여래 괘불탱에서 드물게 같은 형식의 범자 진언결계가 나타난다. 그 밖에 보경사 괘불이나 진안 금당사 괘불에서도 종자진언이 나타나며, 후불탱화로는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아미타후불탱에서 아홉자 범자진언이, 그리고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 후불벽화에서는 후불벽화 위 여백에 다라니를 적은 독특한 양식이 나타나고 있다. 직지사 대웅전 범자운용에서 보다 분명한 의지는 부처님의 불국토를 수호하려는 결연한 결계의식이다. 그 의지가 지붕에서, 천정에서, 후불탱화에서 반복적이며 집합적 군집으로 선명하게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330칸 범자의 메트로폴리탄 구성

직지사 대웅전 천정에는 무려 330여 칸의 우물격자가 있고, 그 칸칸마다 실담범자 종자가 연화의 화심에서 저마다 불멸의 금빛으로 빛나고 있다. 일종의 범자로 이루어진 강력한 에너지의 메트로폴리탄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실담범자 낱낱은 종자불이며 동시에 밀교진언의 내밀한 힘을 지니는 까닭에 직지사 대웅전 천정은 곧 불국의 만다라를 이룬다. 그 법계는 부처님의 거룩한 신성을 수호하는 진언결계의 막으로 광대하게 펼쳐져 있는 태장계만다라이며, 동시에 금강계 만다라다.

불보살의 종자를 천지간에 심었으니 부처와 보살이 다투어 나투시는 것은 불을 보는 일이다.


노재학 불교미술사진작가


대웅전 삼존불 후불탱화.


대웅전 천정. 빗반자와 평반자 모두 우물천정이다.


대웅전 내부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 활동으로 부처님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존경받는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의 소중함속에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부처님 불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기를 서원하며 수행 정진하는 먹물 옷에 취하지 않은 스님다운 스님, 머리로 살지 않고 가슴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부처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암자, 포교당 스님(원장)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의 주인공이 되어 보십시오.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대통령으로부터 승려 최상 최고의 품수를 받은 대승정 목탁스님.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작위

아까(AGGA)라는 뜻은 맨위, 첫 번째, 최고의 뜻을 가진 승려로서는 더 이상 누릴 수없는 최고의 품수라는 뜻.
마하(MAHA)는 큰, 크다의 뜻이고 사다함마 다(하)자(Saddhamma Jotikadhaia)는 봉사및 인간방생에 많은일을 하신 성스런 승려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베푼 의로운 사람이란 뜻으로 표현한다.

종 정 목탁혜은 부종정 불원혜정 원로원장 보각
총무원장서리 지암 부원장 고산
포교원장 현담 교육원장 청운 호법원장 진성 감찰원장 송몽 종회의장 도암 원로의장 심오 비구니회장 대연
종단부장 : 현관, 법산, 자명, 휴암, 종암, 금산, 여송, 진일, 개오, 도광, 월산, 원광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종교법인 국제선불교 조계종
대표전화 02)733-5665. 팩스 733-5671. H·P : 011-229-6061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삼매 중 한 생각 일으킬 줄 알아야

성태를 길러라 ③

상대성을 우리가 쓰긴 써. 선이다 악이다 상대성이다. 밝다 어둡다 상대성이다. 남자다 여자다 상대성이거든. 그러기 때문에 제일 알아듣기 쉬운 것이 사람으로서의 남자고 사람으로서의 여자다 말이에요. 사람은 절대성 자리라면, 남자다 여자다 상대성이거든요. 선이다 악이다 그런 건데, 우리 보림선원에 오래 나오는 분들은 벌써 절대성 자리에 앉아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앉아가 있으니 그 절대성 자리는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다. 착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다.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다.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절대성 자리에. 그러하니 그 자리에 앉아야 바로 그것이 정정인데, 그러면 도력이란 건 어떤 거냐. 선과 악을 써. 밝고 어두운 걸 써. 남자다 여자다를 써. 길다 짧다를 써. 이것이 도력입니다.

오늘부터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오늘 들어가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정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인데. 항상 삼매 중에서 한 생각을 일으킬 줄 알아야 됩니다. 삼매는 또 무엇이냐. 어디 눈하고 타협 안하는 것, 귀하고 타협 안하는 것, 혓바닥하고 타협 안하는 것, 이것이 삼매입니다. 타협을 하지 안 해. 그러기 때문에 생주이멸(生住離滅)이 전부 삼매입니다. 죽는다, 다르다, 좋다 나쁘다. 뭐 사실로 술 먹고 지랄하는 것도 삼맵니다. 본바탕 삼매 자리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상대성으로, 물론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업만 짓는 거지만은 말이지. 업 짓는 것도 삼매가 짓지 누가 짓는 겁니까. 말이야 바른 말이지.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니. 참이 설법을 조금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하니 아까, 말한 대로 이거 여기서 끝내도록 합시다. 삼매를 놓치지 마세요. 삼매 그 자리가 바로 정정이고, 정정 그 자리가 바로 도력이라. 아까 말한 성태, 거룩한 태라. 이래서 어떻든지 여러분들이 거룩한 태를 키우는 방향으로 나가세요. 이래 나가면은 부처라는 불자를 몰라도 됩니다. 이거 부처님 하신 말씀입니다. 부처 불자, 쓸 줄도 몰라. 말을 옮길 땐 그리 해도 됩니다. 부처 불자, 이건 깨달음을 뜻하는 글자인데, 이건 대명사 아닙니까? 몰라도 생사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부처 불자를 알아. 부처라는 그 사실을 알아. 그래서 거기다 얽붙어. 얽붙어 놓으면 부처님 얼굴에 사마귀 하나 나는 거나 한가집니다. 부처님의 그 정정 자리가 내하고 다를 것이 뭐 있습니까. 부처님의 정정 자리나 부처님의 도력이나 부처님의 성태자리나 내하고 꼭 한가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잊어버리고 부처님에 얽혀서 얽붙는다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벌써 자기 자성 자리에 하나의 오점을 딱 하나 찍는 거나 한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거 좀 엉뚱하다는 이런 말도 있을 겁니다만, 어떻든지 여러분들은 발심해서 인연이 있어서 이러하니까, 앞으로 이거 할 때는 꼭 나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은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 **눈 · 귀 · 혓바닥하고**
> **타협하지 않는 것이 '삼매'**
> **그 자리가 정정이고 도력**
> **마음 쓰는 방법이 '중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공부란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바탕 자체를 확실히 모르면은, 그렇다 해서 나쁜 것은 아니겠지요. 거긴 거기 따라서 어떤 인연관계를 맺겠지만 말이죠 생사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벌써 이거는 빤한 일이거든요. 빤한 일인데 빤한 걸 두고 다른 걸 해봐야 무엇이 되겠는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올바른 사람이 나쁜 일을 해. 사도를 행해. 정인이 사도를 행하면은 사도가 바로 정도가 돼 버려. 또 삿된 사람이 좋은 일을 해. 좋은 일 하는 것이 바로 사법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 하나에 달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삼마지인데 요거는 정을 뜻하는 것이고, 마는 가라앉을 정자, 정할 정자 가라앉는다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가라앉음. 이걸 뜻하는 것이고 삼마지라 해도 되고, 따지 자라 해도 되고 타라 해도 좋은데, 이건 구멍을 뜻하는 것인데. 자 어떻든지 여기에 들어가려면은 바른 그 본분사, 본분사 여기에 들어가려면은 이걸 닦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건 뭣이냐. 이건 구멍입니다. 바른 구멍이 탁 트여야 됩니다. 바른 구멍이 안 트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이론 가지고서 자기의 조그만한, 아무것도 모르는 그거 가지고서, 아 이러하니 이러하니 어쩌니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거기다 합리화 시켜. 그건 만날 해봐도 자기 지옥 자기가 파는 거나 한가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멍은 그걸 뜻하는 것인데 옳은 소견을 탁 세워. 탁 세워. 그래서 숨을 마음대로 쉬어. 사람은 숨을 쉬어야 살거든요. 하기 때문에 말이지 그 옳은 소견을 하나 딱 세워서 그래서 그대로 나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공부하는 사람이 물론 견성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뭣이냐 하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내 마음씀이를 가져야 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은 안 해도 전부 공부를 열심히 할라 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무척 애를 썼습니다. 말 표현만 아이구 빨리 견성을 해야 되겠지 이래 했지 말이죠 어떻게 내가 마음가짐새를 잘 가져야 되겠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마음가짐새를 딱 가져 놓으면은 시일에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 마음가짐새를 내가 딱 정해 놓으면은 말이죠. 그 당처는 육신으로 봐서는 시공간이 있어. 그러나 법신분으로 봐서 무슨 놈의 시공간이 있나요. 그런 데 관심을 안 가집니다. 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늘 하는 말이 어떻든지 말이지 이 바탕, 바탕만 준비합시다 이거에요. 바탕만 준비를 해 놓으면 문제는 다 해결된 거나 한가지거든요. 왜 그러느냐. 바탕만 준비해 놓으면 그 당처에 있어서 그 당처에 있어서 말이지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공간이 끊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이 되느냐 하면은 말이지. 여러분의 색신, 모습 이거는 말이지 물건이 있어. 어떤 모습이 있어. 하기 때문에 여긴 시공간이 반드시 따르거든요. 일년 이년 일초 이초, 이거는 시공간이 그대로 따르지만은 그러나 모습이 없어. 모습을 딱 부인해 버려. 부인이 아니라 거기 들어앉질 안 해. 들어앉지 않으면 거기 시공간이 붙을 여가가 있나요. 시공간 안 붙습니다.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보림선원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진정으로 은혜 갚는 '대보부모은중경'

13. 보은게(報恩偈)

끝까지 불쌍히 여겨 주는 이런 은혜다. 언뜻 부모들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었느냐는 생각이 든다. 그런 때도 있다. 그러나 자세히 조목 조목을 들어 보면 마침 부처님 은혜도 꼭 이와 같음을 알 수 있다. 부처님께서 우리들 자신의 뱃 속에다 넣고 얼마나 수호하시는가. 우리를 이걸 하나 키워서 발양하려고 얼마나 부처님의 제자 만들기에 고생을 하시느냐. 또 마침내 부처님 제자가 되었을 때는 얼마나 기뻐하실 건가. 부처님 제자 되기 위해서 염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신앙은 어째야 되는가. 앞에서 온갖 설명이란 것이 회탐수호(懷耽守護), 임산수고(臨産受苦), 생자망우(生子忘憂), 유포양육(乳哺養育), 인고토감(咽苦吐甘), 회건취습(廻乾就濕), 세관부정(洗灌不淨), 원행억념(遠行憶念), 위조악업(爲造惡業)에 든다고 옛부터 내려는 말이다. 부처님, 불보살(佛菩薩)이 왕생회향(往生廻向)하시었다가 환상회향(還相廻向)하셨다는 것을 들어 위조악업이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저 중생이 단 하나라도 있는 동안에는 그 행(行)과 원(願)이 어디까지 계속되리라는 것은 구경연민(究意憐愍)이다.

진정으로 은혜 갚는다는 것을 〈대보부모은중경(大報父母恩重經)〉이라 한다. 부모 이야기라면 제일 잘 알아들으니까 하는 말이 아니라, 열 가지 무거운 은혜, 십중대운(十重大恩)을 갚는다는 것은 실지로 결국은 불은(佛恩)을 갚는 것이 된다. 불은을 갚는다는 것은 동시에 중생의 은혜를 갚는 것이 된다. 중생과 부처님 사이에는 조금도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 은혜 갚는 것은 곧 중생의 은혜를 갚는 것이다. 중생의 은혜 갚을 때는 대비전보화(大非傳普化)해야 한다는 것도 이래서 그런 것이다. 우리의 대자대비가 널리 퍼져야 되고, 퍼지는 그것이 곧 중생 은혜 갚는 길이며 또 이것이 동시에 참으로 부처님 은혜 갚는 것이다 하는 계송이다.

은혜 갚는 이야기에서 이를 받고 갚는 편에서는 이것이 은혜지만 베푸는 편에서는 자비요, 사랑이다. 다른 종교, 이를테면 기독교에서는 이를 박애(博愛)라고 한다. 기독교는 하느님 아버지라는 전지전능하시고 만인간과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그에게서 사랑을 받고 또 그에게 사랑을 갚는다. 이런 얘기다. 사랑이란 것은 어디까지나 심판에 의한 것이다. 심판이란 저울대에 달아 착한 것이 많은가 나쁜 것이 많은가 측정하고 이에 따라 우리 인간은 구원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한다. 이것이 선악(善惡)의 상대적인 인과(因果)로서 다루어지는 심판의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 보인다. 불교의 사랑인 대자대비는 이것과는 전혀 다르다.

기독교의 사랑이란 부부간의 애정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상대적인 사랑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불교의 자비는 어머니와 자식 간의 사랑이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 **자비는 어머니의 사랑과 같다**
>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니**
> **바라는 바도, 받을 것도 없다**
>
> **십중대운(十重大恩) 갚음은**
> **불은(佛恩)을 갚는 동시에**
> **중생 은혜를 갚는 것이다.**

바라는 것이 없이 무조건으로 사랑을 베푼다.

또 자식은 어릴 때에는 어머니에게 은혜를 갚겠다는 생각도 없다. 바라는 것도 없고, 갚아야겠다는 생각도 없다. 바라는 것도 없고 갚아야겠다는 의무감 같은 것도 없다. 부채 갚듯이 기어이 보상해 드려야겠다는 생각도 없다.

그리고 부모 된 분의 생각으로는 자식이 열이건 스물이건 다 한결 같이 소중한 것이다. 속담에 열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것 없다고, 어느 자식에 대해서나 꼭 같은 애정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들렁거리고 마음대로 안 되는 불량한 아들을 부모는 더 걱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어여쁘게 생각하는 것이다. 못생겼거나, 병신이거나, 여하튼 정신적으로 행동으로 육체적으로 불건실한 자식에게는 부모가 더 걱정하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게 된다.

부처님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다. 중생이 죄가 많고 번뇌 망상과 탐진치(貪瞋癡) 삼독(三毒)이 가득하여 업장(業障)에 결박되어 있을 때 이 불쌍한 것들을 대자대비의 힘으로 건져야 되고, 안 건지고는, 제도 안 하고는 못배기는 비원이 있다. 이는 영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여 무연대비(無緣大悲)라는 것이다. 절대적인 사랑과 대자대비가 있을 뿐이지, 여기에 무슨 조건이라든지, 너는 그렇게 하는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투의 그런 의무감이나, 인(因)에 대해서 과(果)를 기어이 보답해야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이다. 이 무조건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시무애(施無畏)라고 한다. 베푸는데 아무런 어려운 생각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다. 무엇이건 있는 대로 다 대자 대비를 베풀지 않고는 못배기는 심정을 시무애의 사랑이라고 한다.

흔히 우리는 나무대자대비관세음보살(南無大慈大悲觀世音菩薩)이라고 부른다. 우리 인간이 살아 있는 이상 우리에게는 역시 부처님도 살아 있는 부처님이 좋다.

이것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은 어머니와 마찬가지다. 대자대비관세음보살 하고 명호를 부르면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진다. 나무관세음보살이라고 귀의하면 무슨 소원이든지 간에 다 성취시켜준다. 이렇듯 베풀어 주는 대자대비를 무애시의 대자대비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사랑 베푸는 이의 심정을 헤아려 죄 많고 모든 번뇌 망상에 얽메어 업장이 무거운 우리로서는 부처님께 구제를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능히 사랑을 주고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갚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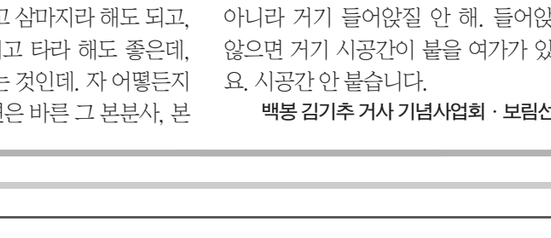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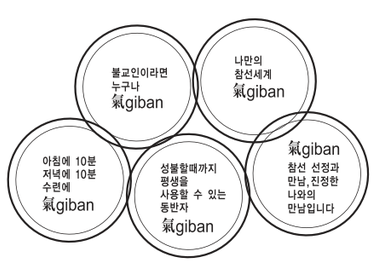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www.hyunbulshop.com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성철 스님 阿難시봉 40년…

아난

원택 스님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 1967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71년 친구를 따라 찾아간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을 처음 만났다. 성철 스님의 '니 고마 중 되라'는 말 한 마디에 1972년에 출가했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도서출판 장경각 대표, 부산 고심정사 주지로 있다. 1998년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 1999년 제 10회 대한민국 환경문화상 환경조형부문을 수상했다.

"내 인제 갈란다. 너거 너무 괴롭히는 거 같애."

1993년 11월 3일, 낙엽이 쌓이기 시작한 가야산. 해인사 퇴설당에서는 노장이 제자를 불러 세연을 정리하고 있었다. 노장을 20년 동안 시봉한 제자는 스승의 낮은 목소리에 가슴이 내려앉았다. 생사(生死)가 일여(一如)한 것쯤이야 이미 생각거리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제자는 그 동안의 공부가 무색했다. 11월 4일, 기나긴 침묵의 밤이 지나고 창문으로 여명이 번져올 즈음, 힘겹게 눈을 뜬 노장은 제자의 가슴팍에 기대어 마지막 숨을 모아 법을 짓는다. "참선 잘 하그래이!" 마침내 노장의 숨소리는 저편으로 건너가고 제자는 스승의 마지막 법과 법구를 거둔다. 그 법구는 '산은 산 물은 물'이란 법문으로 한 시대를 붙들어 놓았던 가야산 호랑이 성철 스님의 것이고, 노장의 마지막 숨소리를 받은 제자는 원택 스님이다.

한국불교에 '성철'이라는 이름이 굵은 글씨로 남았다면, 그 굵은 글씨의 한 획 정도는 '원택'일 것이다. 성철 스님이 사바를 떠난 지도 20년이 흘렀다. 하지만 성철이라는 이름 옆에는 아직도 원택이라는 이름이 떠나지 않고 있다. 아니 원택이라는 이름 옆에 성철이라는 이름이 떠나지 않고 있다. 한국불교라는 숲을 넓히고 한 시대의 스승으로 살다 간 '가야산 호랑이 성철' 옆에서 20년을 함께 했고 지금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원택 스님을 만났다.

효봉 스님 좌탈 지켜보며 발심

대구에서 살았던 원택 스님은 어려서부터 할머니 손에 이끌려 절엘 다녔다. 하지만 스님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절에 다닐 기회는 점점 줄었고, 스님의 기억 속에서 절이라는 공간은 잊혀졌다. 고등학교 3학년 어느 날, 스님은 춘원 이광수의 〈원효대사〉를 읽게 된다. 성철 스님의 불연이 〈증도가〉에서 시작됐다면 원택 스님의 불연은 소설 〈원효대사〉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원택 스님은 불교에 끌리기 시작한다. 스님은 막연히 절에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대승사 고등학교학생회에 들어간다. 하지만 불교에 대한 본격적인 공부나 경험은 하지 못한다. 일반인들이 교리를 공부할 수 있는 책도 거의 없던 시절이었고 체계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스님은 그 시절을 불교적 정서 속에서 청년기를 보낸 것이 의미라면 의미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에 진학한 스님은 대학에서 신행을 이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스님이 다닌 연세대학교에는 불교학생회가 없었다. 스님은 할 수 없이 고등학교 때처럼 절에서 운영하는 학생회를 찾았다. 서울에 있는 절이라고는 조계사밖에 몰랐던 스님은 조계사를 찾았지만 스님이 생각하는 학생회 활동은 할 수 없었다. 불교에 대한 관심이 한참 일기 시작했던 스님으로서는 아쉬운 일이었다. 지속적인 신행과 구체적인 공부로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느덧 대학생활도 거의 끝나갈 무렵인 4학년 때였다. 스님은 당시 통합종단 초대 종정을 지낸 효봉 스님이 입적했다는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된다. 밀양 표충사에서 입적하신 효봉 스님의 영결식이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영결식을 보기 위해 조계사를 다시 찾는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영결식장을 채우고 있었다.

효봉 스님은 앉은 채로 열반에 들었기 때문에 관의 모양도 눕지 않고 앉은 모습이었다. 원택 스님은 효봉 스님의 법구가 이운되는 짧은 시간에 효봉 스님의 좌탈 모양의 관을 보게 된다. 효봉 스님의 좌탈을 보면서 원택 스님의 마음 속에서는 또 한 번 불교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한다.

영원한 스승 성철 스님과의 첫 만남

원택 스님은 1971년 3월 성철 스님을 처음 만난다. 대학을 졸업하고 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스님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해인사 백련암에 가게 된다. 친구의 대학 동창이 출가해 백련암에 있었다. 원택 스님은 그때 친구로부터 '성철'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게 된다.

"어이 들어오이라." 방 안에서 카랑카랑한 음성이 들려왔다. 원택 스님은 방에 들어 큰스님을 처음 보는 순간 그 눈빛에 주눅이 들어 얼굴도 제대로 들 수 없었다. 하지만 원택 스님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춘원의 〈원효대사〉 읽고 불교 관심
효봉 스님 '좌탈' 보고 또 한번 관심

1971년 3월 성철 스님과 첫 만남
'니 고마 중 되라' 한마디에 출가
오랜 상기병으로 참선수행 중단
뒷방에서 '백일법문' 듣고 기록해
〈본지풍광〉등 11권 법문집 출간 계기

"위대한 스승 모신 불제자로서
대중에게 '여시아문' 의무감 생겨"
출판, 사리탑조성, 겁외사 창건 등
열반 후에도 스승 알리는 일에 매진
기념관 조성, 〈백일법문〉증보판 출간

"큰스님, 오늘 처음 뵙게 되었습니더. 그 기념으로 저희에게 평생 지남(指南)이 될 좌우명 한 말씀 해주이소."

원택 스님은 만배를 해야 하는 우여곡절을 겪고, 성철 스님으로부터 좌우명 하나를 받는다. "속이지 마라!" 원택 스님은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큰스님이 주는 좌우명이라면 평생 실천하려고 해도 힘든, 근사한 말씀일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너무나 간단하고 가벼워 보인 것이다. 더구나 그토록 힘들게 절을 한 대가 치고는 너무나 약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처음 뵙게 된 큰스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 실망스럽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백련암을 나섰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을 때였다. 원택 스님은 문득 석 달 전 백련암에서 받은 성철 스님의 '속이지 마라'라는 말씀이 떠올랐다.

"그때는 큰스님의 말씀을 '남을 속이지 마라'로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 좌우명이 무겁게 생각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석 달 뒤에 문득 그 말씀이 떠올랐을 땐 '자기를 속이지 마라'로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평생 지키지 힘든 좌우명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원택 스님은 왠지 큰스님이 자꾸만 떠올랐다.

해인사 백련암으로의 출가

그 해 7월, 원택 스님은 이번에는 혼자서 백련암을 찾았다. 보통 문이 굳게 잠겨 있는 백련암인데, 그날따라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마침 큰스님 혼자서 마당을 거닐고 있었다.

"큰스님, 저는 본디 참선 공부를 하고 싶어 했습니더. 큰스님께서 화두를 주셨으면 합니더." 원택 스님은 이번에는 큰스님으로부터 화두를 받는다. '삼서근(麻三斤)'이었다.

그런데 막상 수행에 들어가니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난생 처음 받은 화두를 놓치지 않으려고 정진하고 또 정진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1972년 새해가 밝고, 원택 스님은 문득 백련암으로 향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진전이 없어 큰스님을 뵈면 뭔가 해결책이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런데 그 길이 원택 스님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길목이었다.

"니 중 안 될래? 고마 중 되라."

원택 스님을 본 성철 스님이 말했다. 원택 스님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었다. 원택 스님은 불교에 대해 공부를 하고 싶었고, 참선에 대해 알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출가에 대한 생각은 없었다. 난감해 하는 원택 스님을 보고 성철 스님이 한 말씀 더 한다.

"부처님 제자로 살아가는 것도 뜻이 있는 기라. 내가 괜히 너보고 중 되라고 하겠나. 나는 함부로 남보고 중 되라고 안 한데이. 세상살이가 좋은지, 백련암에서 참선 잘해 도 닦는 것이 좋은지 잘 생각해봐."

대답을 못하고 방에서 나온 원택 스님은 이런저런 상념에 잠긴다. 뒤척이며 절에서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왠지 마음 한 구석에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출가'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황당한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솔솔 들기 시작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건만, 어찌된 일인지 틈이 생기기 시작한 마음은 둑이 무너지듯이 무너져갔다. 그리고 원택 스님은 그 길로 출가했다.

여시아문… 성철 스님 법문 노트에 필사

원택 스님은 힘겨운 행자 생활을 거치고 공양주와 시찬 소임을 보며 성철 스님을 시봉한다. 그리고 마침내 화두를 들고 몇 년 간 참선에 정진한다. 그런데 원택 스님은 상기병을 얻게 된다. 원택 스님에게 좌선이 잘 맞지 않았던 것이다. 원택 스님의 상기병은 꽤 오래 갔다. 그러자 큰스님은 원택 스님에게 좌선이 맞질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상기병도 고칠 겸 잠시 원주 소임을 보면서 행선을 권했다. 선승을 스승으로 모시고 참선 공부를 하겠다고 출가했던 원택 스님이었다. 좌선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에 서있는 것이었다. 힘든 시간이었다. 원택 스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

www.hyunbulshop.com

孝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발차취 따라 걸으면 진면목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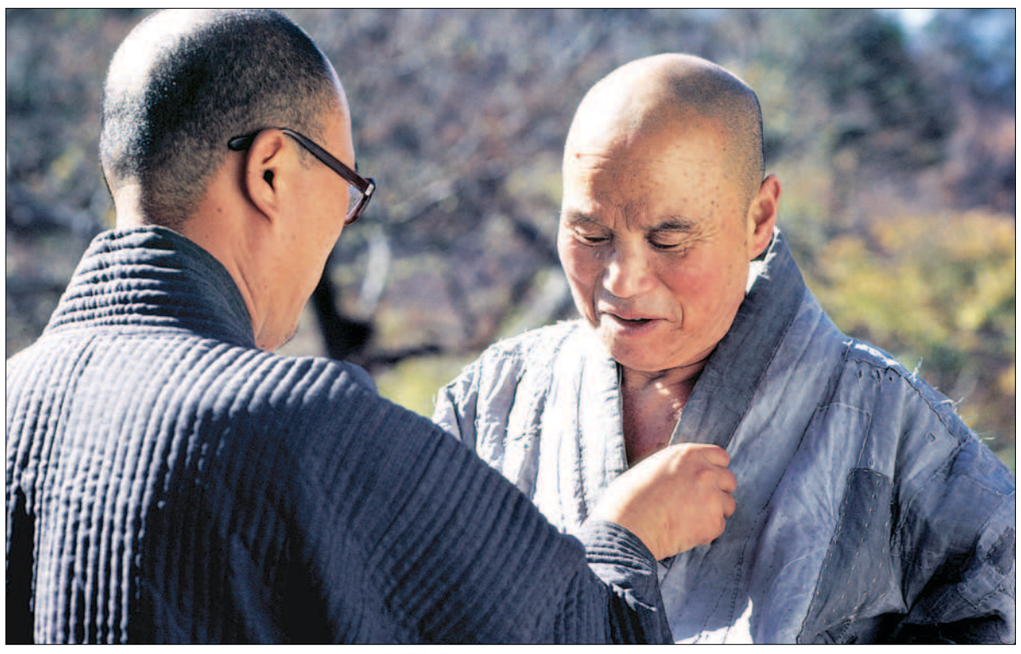
님은 자신이 참선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했다. 스님은 성철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공부를 해보자는 생각을 했다. 성철 스님이 해인사 방장으로 취임해 100일 간 설법했던 백일법문 테이프를 하나 얻어 뒷방에서 혼자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큰스님의 법문을 기침소리, 웃음소리, 고함소리까지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노트에 옮겨 적었다. 원택 스님의 진정한 시봉은 여기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원택 스님은 4년 동안 큰스님의 법문을 듣고 기록하는 일로 참선을 대신했다. 뒤늦게 큰스님이 그 사실을 알았고,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노여워했지만 그 일이 지금의 원택 스님을 있게 했다.

원택 스님이 정리한 〈본지풍광(本地風光)-시중 유통은 '산이 물 위로 간다'〉과 성철 스님이 직접 논술한 〈선문정로(禪門正路)〉의 초고가 완성되고, 성철 스님은 원택 스님을 당시 불일암에 주석하고 있던 법정 스님에게 보내 원고의 윤문을 부탁한다. 법정 스님이 흔쾌히 승낙했고, 마침내 두 법문집이 출간된다. 그 때 원택 스님은 큰스님의 법문집을 출간하기 위해 불일암과 출판사를 오가며 '출판'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스님의 '길'이 된다.

"제가 해야 할 일은 큰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제가 곁에서 지켜본 성철 스님의 진면목을 그대로, 제대로 대중에게 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죠. 제가 그래도 가장 가까이서 오랫동안 봤으니까요."

원택 스님의 시봉은 단순히 수발을 드는 것이 아니었기에 남다른 '시봉'으로 남을 수 있었다. 원택 스님은 성철 스님의 '아난'이었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입에서 입으로 전했듯 스승의 가르침과 삶을 대중에게 전하고자 '여시아문'하고 있는 것이다. 원택 스님은 아직도 스승의 진면목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며, 스님을 대중에게 알리는 일을 놓지 않고 있다.

"우리는 역사를 남기는 것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언젠가 어느 큰스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문중에도 성철 스님 못지않은 큰스님들 많이 계셨다고. 그런데 그 많던 선지식들 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기록의 문제였다. 위대한 것이 있으면 후대에 위대하다고 알리는 것, 곧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상을 내는 것과는 다른 일이라고 원택 스님은 말했다. 원택 스님은 자신이 오랜 세월 동안 혈육도 아닌 큰스님을 정성껏 시봉하고 열반 이후에도 그 일을 놓지 않고 있는 이유는 거창한 시봉관이 있어서가 아니라 위대한 삶과 위대한 가르침을 가까이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불제자로서 대중에게 '여시아문' 해야 하는 의무감 때문이라고 했다. 위 두 권을 비롯한 성철 스님 법문집 11권은 그렇게 시작됐다.



원택 스님(왼쪽)이 스승인 성철 스님의 옷깃을 여며드리고 있다.



성철 스님(가운데)과 원융 스님(왼쪽), 원택 스님이 한 자리에 모였다.

끝나지 않는 시봉… 성철 스님 기념사업 전개

원택 스님은 성철 스님 열반 후에도 사리탑 조성, 진영과 존상 제작, 성철 스님의 생가를 복원한 겁외사 창건, 성철 스님의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포럼 개최했다. 그리고 불교인재원과 함께 순례단을 만들어 성철 스님 수행도량 순례법회를 진행하는 등 큰스님의 흔적을 대중에게 알리는 불사에 매진한다. 2012년에는 성철 스님과 함께 살아온 세월을 회고한 〈성철 스님 시봉이야기〉를 출간하는데, 본인의 시봉이야기를 통해 스승의 삶과 가르침을 대중에게 또 한 번 보여준다. 그리고 오는 9월 22일 겁외사에 성철 스님 기념관을 설립하고, 9월 말 경에는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 증보판을 출간할 계획이다. 성철 스님 기념관은 다른 기념관들과는 달리 법당 형식으로 된 기념관이다. 스님을 따르는 대중들을 결집하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진 불사다. 그리고 증보판 〈백일법문〉에는 그동안 듣지 못했던 새로운 법문을 실었다.

"살아계실 때 그 기세에 눌려 숨 한 번 크게 쉬지도 못하고 그저 어른께 야단맞지 않고 하루가 무사히 지나기만을 바라고 살았던 그 세월이 너무나 죄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계실 때 좀 더 잘 모시고 많이 묻고 많이 들어야 했는데 그저 무섭다는 생각에 도망치려고만 한 세월들이 너무나 허허롭게 느껴집니다. 마음을 다해 시봉한다고 했건만 돌아보니 큰스님을 보아도 보지 못한 것 같고, 만나도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원택 스님은 '속이지 마라' 한마디 이후, 다시 찾아간 성철 스님에게서 "니 고마 중 되라"는 한 마디를 듣고 1972년 출가했다. 혹독한 행자생활을 거쳐 계를 받고 성철 스님을 곁에서 20여 년, 또 스님을 떠나보내고 20여 년, 이렇게 40여 년 동안 큰스님을 시봉하며 살고 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전법일기

다국적 부처님과 산뜨시리 스님

구미 마하이주민센터 3층에는 법당이 있다. 특별하다면 불단에는 어느 나라에서 모셔 왔느냐에 따라 스리랑카 부처님, 캄보디아 부처님, 중국 부처님, 베트남 부처님으로 구분되는 크고 작은 부처님이 작은 불단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이주노동자들의 50%는 불교문화권에서 온 노동자로서 자기 나라에서 온 부처님 모습을 보면 매우 좋아한다. 부상으로 아픈 몸으로 센터를 오거나 휴일날 갈 곳이 없을 때 이 곳 법당은 남방불교 염불소리와 향 내음으로 가득하다. 그 나라 말을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대부분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이 아프지 않기를 기원하고, 한국에서 돈 많이 벌 수 있기를 염원하는 모습이 느껴진다.

15년 전 나는 3개월 간 형가리에 머문 적이 있다. 부다페스트에서 3시간 떨어져 있는 작은 쩔러싼또 마을에 당시 한국 스님이 건축한 유럽 최대의 종모양 탑이 있고, 가운데에 한국 부처님을 모시고 있던 절에서 생활했다. 동유럽권에 전파된 불교는 기대 이상으로 사람들의 큰 호감을 받고 있으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명상 불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다. 한국인이 창건한 절에서 만난 부처님 모습이 어찌나 반갑고 정겹던지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렸던 경험이 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온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당의 필요성을 깨닫고 우리나라에서 단 하 나뿐이 다국적 법당을 2005년에 개원한 것이다.

이 외에도 모국어로 근심을 털어 놓을 수 있도록 스리랑카 출신 산뜨시리 스님을 초청하여 센터에서 노동자 상담과 생활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도록 연결한 것은 역시나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일에 가장 기본적인 언어 소통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법당 왼편에는 사망한 노동자를 위한 영단이 있다. 뜻하지 않은 산재 사고나 교통사고로 세상과의 인연이 다한 이주노동자 사진을 보면 먼 나라에서 와서 고생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에 마음이 아프다.

사람은 출신 국가가 다를 뿐 동료가 사망을 하게 되면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발원하는 진지한 모습을 자주 본다. 아침 저녁 틈틈이 동료들이 찾아와 향을 꽂고 합장하는 걸 보면 다국적 법당을 잘 만들었다는 기쁨이 오래 남는다.

더구나 산뜨시리 스님은 사망 노동자의 장례와 제사를 남방불교 염불로 이끌어 주기 때문에 힘겹게 노동자의 사망 소식을 듣고 한국을 찾은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 영단에 모셔진 남편 혹은 자식의 사진을 확인하고 주저앉아 숨죽여 흐느끼는 모습은 언제 겪어도 힘든 일이다. 이들은 사망한 노동자의 마지막이 외롭지 않게 염불해주어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표한다.

스리랑카 스님의 기도와 축원은 멀리 있는 가족의 건강을, 현재하고 있는 위험한 일에 무사 안전을, 아픈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효험이 있다. 노동자들은 일이 끝난 늦은 시간에 스리랑카 스님을 모시고 자주 법회를 개최한다. 그런데 내가 확인한 어느 사업장은 변변한 의자 하나가 없이 바닥에서 법회를 열었다. 사업주의 종교 이념에 따라 불교권 노동자들의 종교 활동이 제한을 받은 것이다. 더구나 제때 월급을 못 받거나, 아픈데 병원에 못가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산뜨시리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국인으로서 미안한 생각이 든다.

어느듯 스리랑카 스님은 지역 대학교 특수유아보육과에서 2년간 공부를 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리고 국내 정착 6년 만에 한국 국적도 취득했다. 다국적 법당을 찾는 사람들의 생활복지 향상을 위해 한국인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곳에서 다국적 법당이 개원되기를 발원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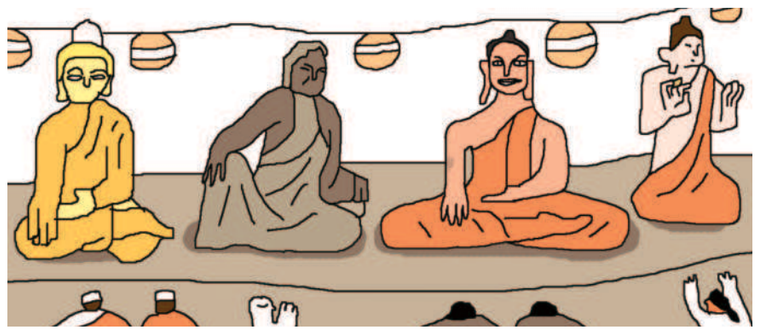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진오 스님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 구미 대둔사 주지)



나란다 대학, 800만에 다시 문 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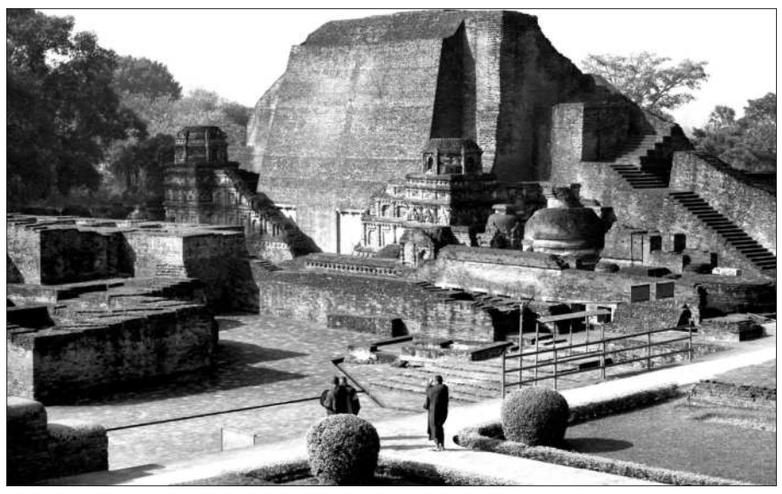
세계 최초, 최대의 종합대학이자 수도원이 800년 만에 다시 학생들을 맞이했다.

〈Khaleej Times〉지에 따르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정에 들어간 나란다(Naland) 대학이 9월 1일 학생 15명, 교수 10명의 구성으로 첫 학술 세션을 시작했다.

"나란다 대학은 2020년부터 7개 단과대학 체제, 과학 · 철학 · 사회과학 등의 분야 박사 전 · 후기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말한 나란다 대학 고파 사브로월(Gopa Sabhrawal) 부총장은 "이를 위해 지금까지 세계 500여 유수 대학과 교류 협정을 맺었다"며 "이중 40개 대학에서 1000명의 학생들이 이번 학술 세션을 신청했지만, 심의 과정을 거쳐 15명의 학생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인도 비하르 주 관광개발공사(BSTDC)는 이번 학술 세션에 선발된 15명의 학생들에게 타샤가트(Tathagat) 호텔 객실을 기숙사로 제공했고, 수업은 비하르 주 정부에서 제공한 컨벤션홀에서 진행됐다.

인도의 나란다 대학은 기원전 5~7세기에 세워진 세계 최초의 종합대학이자 불교대학으로, 미국의 하버드 대학,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보다 훨씬 앞선 15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세계 최초 대학이자 수도원인 나란다 대학이 문을 열었다. 사진은 나란다 유적.

학생 15명, 교수 10명…9월 1일 학술 세션 열어

세계 40개 대학 1,000여 지원자 중 15명 선발

印, 비하르 주정부 교실 · 기숙사 제공

7세기 인도의 팔라왕조 당시에는 학생수가 1만 명, 교수가 2000명에 달하는 초유의 규모를 자랑했으며, 철학과 불교 뿐 만 아니라 문학과 수학에도 뛰어난 수준을 자랑해 당대 최고의 대학이자 승려들의 수도원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8세기에 들어오면서 굽타왕조의 몰락과 함께 힌두교의 득세로 인해 점점 쇠락하기 시작한다. 그러다 13세기 초 아프가니스탄의 고르(Ghor) 장군이었던 무하마드(Muhamad)가 북인도를 침공해 왔을 때 파괴되고 말았다.

이후 나란다사는 폐허가 되어 땅속에 묻혔다가 1861년 영국인 컨닝햄(A. Cunningham)에 의해 발견되어, 지금까지 발굴되고 있다.

현재 나란다 대학은 '나란다 유적'에서 16㎞ 떨어진 레그히르(Raghir) 시에서 공사 막바지에 들어갔다. 10억 달러에 달하는 나란다 대학 건설비용은 인도 중앙정부와 비하르 주정부를 비롯해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태국 등의 재정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2011년 3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아마르티야 센(Amartya Sen · 인도) 박사가 '나란다 대학 재건'을 천명한 지 3년 만에 결실을 본 것"이라는 사브로월 부총장은 "과거 나란다 대학은 이슬람군의 방화로 6개월 동안이나 화염에 휩싸였을 정도로 세계 학문의 보고였다"며 "지금의 나란다 대학은 인도의 황금시기를 이어받아 세계 미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곳이 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오종욱 편집위원**

수쉬라난다 스님 '당분간' 합법 체류

셰퍼드 등 지역 여론 반대 거세… '추방' 행정 권고 철회

지난 1992년, 방글라데시 여성의 '교육 권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다 이슬람 근본주의자의 핍박과 위협으로 망명길에 나선 스님이 최근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영국 정부가 8월 초, 2005년부터 국내 체류해 온 스님에게 '(조국)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것을 권유' 하는 행정 권고를 내렸고, 이에 맞서 셰필드 지역을 중심으로 '추방 반대 캠페인' 이 전개된 게 알려져서다.

결과는 영국 정부의 한차례 '해프닝' 으로 끝났다. 스님 체류를 바라는 여론에 밀린 셈이다.

〈OurKingdom〉지는 지난 9월 3일 "방글라데시로 추방될 위기에 처했던 수쉬라난다(Sushilananda) 스님〈사진〉이 당분간 영국에 머물게 됐다"며 "셰필드(Sheffield) 일대에서 진행된 '추방 반대' 캠페인의 성과"라고 보도했다.

수쉬라난다 스님은 지난 1992년부터 조국 방글라데시에서 여성, 특히 소녀의 '교육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스님의 활동은 방글라데시의 이슬람 근본주의자의 반대와 맞서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근본주의자들의 '살해 위협'과 당국의 '수수방관'에 밀려 2005년 영국 망명길에 올랐다.

스님은 영국 망명 이후 2011년부터 셰필드 글리드리스(Gleadless) 계곡에 살며 지역 불교계의 도움을 받으며, 방글라데시 여성 인권을 위한 국제 활동에 더욱 몰두했다.



수쉬라난다 스님

그런데 영국 정부가 8월 초 돌연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것을 권유' 하는 행정 권고를 내린 것. 그 기한은 8월 28일까지였다. 이에 셰필드 일대를 중심으로 '추방 반대' 캠페인이 전개됐고, 지역 안팎 여론에 밀린 영국 정부는 '당분간' 이라는 단서를 붙인 채 영국 체류를 허가했다.

〈OurKingdom〉지는 "우리는 국가 등 거대한 조직으로부터 위협을 당해 도망친 사람에게 은신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청원서 시작부분을 인용하고, "셰퍼드 불교계를 중심으로 전개된 캠페인에서는 온 · 오프라인으로 동참한 10,000여 명의 서명을 날인한 청원서가 관할 당국에 전달됐고, 결국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명상으로 삶의 가치와 치유 찾는다

빙엄턴 명상동호회, 매주 무료 강좌 개설

뉴욕주 브롬카운티에서 11년간 지역 활동…회원 500여 명

미국 뉴욕주 브룸카운티의 소도시 빙엄턴(Binghamton)의 '불교명상 동호회'가 화제다.

〈Pressconnect〉 지는 8월 30일(현지시간) "빙엄턴 불교명상 동호회가 매주 무료 정기 명상 클래스를 운영하는 등 브룸카운티에서 명상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마련되는 '명상 클래스'에는 평균 20~30명의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명상을 배우고 있다. 특히 '의식→ 명상→ 강독' 순으로 1시간 20분 남짓 진행되는 명상 클래스에는 명상 전문가 2~3명도 동참, 주민들을 지도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교로 개종하는 이도 간혹 생겨난다.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자 한다면 명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찰스 굿맨(Charles Goodman · 빙엄턴대학) 교수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지역 주민들이 명상 클래스를 찾는 것 역시 자신의 삶의 변화와 치유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빙엄턴대학에서 '아시아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굿맨 교수는 11년 전 빙엄턴 불교명상 동호회를 결성한 이래 지금까지 동호회 지도 법사로 활동하고 있다.

"명상 전문가 2~3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일반인들로 구성된 '명상 클래스'이지만, 그 열의만큼은 대단하다"는 타라 벨세르(Tara Belsare) 씨는 "결가부좌를 한 채 두 눈을 감고 정(靜)에 들어갈 때면, 들리는 소리라곤 클래스 참가자들의 숨소리 뿐"이라고 말했다.

벨세르 씨는 11년 전 굿맨 교수를 도와 '빙엄턴 불교명상 동호회'를 결성하는 데 일조했다.

〈Pressconnect〉 지는 "불자가 아니어도 명상이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지역 주민 누구나 수요일 명상 클래스에 참여할 수 있다"는 굿맨 교수의 말은 전하는 한편, "이 지역 최고 사교 모임인 '마우라 로유(Maura Loew)'가 최근 명상 특강을 요청할 정도로 이번 클래스의 인기가 높다"고 보도했다.



미국 뉴욕주 빙엄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불교명상 동호회' 회원들.

또한 "빙엄턴 불교명상 동호회 회원이 537명"이라는 데 주목한 〈Pressconnect〉 지는 "명상을 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케롤린 브레이크 Carolyn Blake), "삶의 새로운 가치를 찾았다"(메리 쿠드벡 Mary Cuddeback) 등의 말을 인용하고, "빙엄턴에서 명상이 확산될수록, 지혜와 연민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 역시 지역 사회에서 더욱 회자될 것"이라고 주목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앙코르와트 석상 훼손…어글리코리안

대학생 김모 씨, 선교여행 중 기념사진 찍다 사고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석상의 머리를 부숴 논란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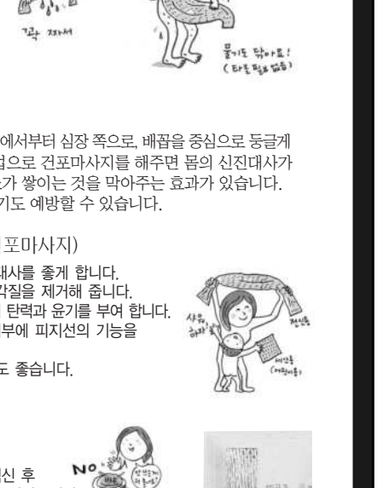
태국 매체 '타이 PBS' 따르면 8월 15일(현지시간) 선교 여행을 떠난 한국인 대학생 김모(22) 군이 앙코르와트 단지 내에 있는 바이욘 사원 석상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다가 석상의 머리를 부숴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이 석상의 머리 부분이 시멘트로 만들어진 모조품인 점과 석상을 해하려는 의도가 없던 점을 참작해 김 군에 훈방조치를 내렸다.

이번 사건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초유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현지 경찰당국, 이들의 신병처리 문제를 두고 몹시 당황했다는 후문이 전해진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캄보디아 현지 언론에 보도된 것은 물론 태국과 베트남까지 소식이 퍼졌다.

한국 교민사회에서는 "젊은 대학생이 나라 망신을 시켰다"며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석상의 머리를 부숴 논란이 됐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수송동)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찬덕연등의 기술을 보유한 연등시공 전문기업

BORYEON 보련기획

특가행사 진행중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연등시공





만 월 등



바 림 등



자 비 등



팔각주름등



공 단 등



팔 각 접 등



정품 LED전구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1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연꽃만월등



연 화 연 등



차 걸 이



인 등



보련기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전화 031)526-2201 / 031)526-2202



성지순례는 '부여 미암사'

쌀바위,진신사리,세계최대와불,산신각,용왕당으로 오세요!

(소원성취 하는 곳)

주소 : 충남 부여군 내산면 성충로 미암길 128
☎ 041)832-1188, 832-1189
팩스 041)832-1187

since1973

2015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주) 아트지 · 스노우지로 제작 !! 좋은 종이 가장 싼 제조원가 가격으로!!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송정리 364-2)
TEL.(051)515-8888 인터넷전화. 070-7425-0518 FAX.(051)508-0101 H.P 011-554-2988
◆농협 : 0515-8888-09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











12절 /6절











미니달력

수첩달력

• 12절(벽걸이형 小)달력
삼천부 이상 @ 800 원
이천부 이상 @ 900 원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cm × 26.5cm

• 6절(벽걸이형 大)달력
삼천부 이상 @ 1000 원
이천부 이상 @ 1100 원
• 200부이상 @1,200원
• 규격 : 30.5cm × 31cm

• 한지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 탁상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 수첩달력 200부 이상 @ 650 원
• 100부 @800원 • 매수:18장
• 규격 : 9.5cm × 13.4cm

• 미니달력 200부 이상 @ 450 원
• 100부 @600원 • 매수:16장
• 규격 : 8.9cm × 9.5cm

2014 가을 산사음악회

가을, 山寺는 음악이 있어 행복하다


봉화 청량사 산사음악회는 10월 4일 청량사 경내에서 열린다. 올해는 '꿈이 있어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주제로 대중들을 찾아간다.

산들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오색단풍 울긋불긋한 가을산이 유혹하면 우리의 발걸음은 어느새 산사로 향한다. 선선한 바람 살랑이며 계절을 만끽할 수 있는 가을 산사가 아름다운 이유는 음악회가 있기 때문 아닐까? 여름내 지쳤던 몸도 마음도 내려놓을 수 있는 가을 산사에서 음악으로 마음을 달래며 자연이 주는 선물을 만끽해보자.

산사음악회의 원조 청량사 산사음악회는 10월 4일 청량사 경내에서 열린다. '꿈이 있어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행사는 다함께 슬픔을 이겨내고 밤하늘 반짝이는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꿈을 꾸는 세상을 이루어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음악회에는 희망과 위로의 노래를 불러 줄 국민 디바 '인순이', 가수 겸 뮤지컬 배우 '홍경민', 힘 있는 가창력의 '마야', 팝페라 가수 '정태옥 & 오윤석' 등이 출연한다. 또한 청량사 둥근소리 합창단, 둥근소리 밴드, 사물놀이 꼬마풍경, 어린이 밴드도 출연해 기량을 뽐낼 예정이다.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은 "올해 청량사 산사음악회는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치유의 장이 되고자 한다. 우리의 꿈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그 꿈을 향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치유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인사의 말을 전했다.

천년도량 부안 내소사도 10월 4일 괘불재와 함께하는 가을산사음악회를 갖는다. 현진우, 추가열, 심진 스님, 박강수, 노래사랑 앙상블, 강명진, 들국화 패밀리 등이 출연해 풍성한 무대를 펼친다. 이에 앞서 진행되는 괘불재에서는 괘불이운, 고불문 낭독, 육법공양, 통천, 음성공양 등이 이어진다. 음악회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도 눈길을 끈다. 휴식형 · 트레킹 · 나를 찾아서 등을 통해 심신을 달래며 가을의 문화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제 15회 괘불재 그리고 미황사음악회는 '미황사의 바다'를 주제로 10월 25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된다. 미황사는 보물1342호 괘불을 마당에 모시고 불교종합문화행사와 산사음악회를 15년째 진행해 오고 있다. 행사는 불교 회화와 음악, 사찰음식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불교종합예술제로 펼쳐진다. 산사음악회에는 미황사군고단, 이당금(연극인), 박선욱(무용가), 박양희(가수), 이병채(소리꾼), 신경환(피리연주자), 우수영강강순례단 등이 출연해 남도의 문화의 정수를 보여줄 것이다.

제12회 부석사 산사음악회 '가을을 그리다'는 사찰음식과 함께 진행되는 이색 행사다. 10월 4일 저녁 6시에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성기숙(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무용평론가)의 사회로 진행되며 첼로 노병남, 바이올린 김미소, 클라리넷 이성관 기타 오도훈 등 지역의 연주자들이 출연하고, 난타 비보이 승무 공연 등이 진행된다. 또한 음악회 전 부석사 신도회가 다양한 사찰음식을 준비해 가을의 풍요로움을 전해준다.

전북 익산 심곡사의 떡목공연 '2014 가을이 오는 소리'는 9월 20일 오후 7시 낭산면 장암리 심곡사 떡목 공연장에서 열린다. 국악, 포크, 콘서트 등 다양한 음악과 만날 수 있는 이번 공연에는 유익종, 김종수, 남궁옥분, 김범룡 등이 출연한다.

청량사-인순이 · 마야 등 출연

내소사-괘불재 · 템플스테이도

미황사-불교종합 문화행사 진행

천태종 분당 대광사는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콘서트 '제 6회 대광사 가을빛 산사음악회'를 9월 13일 저녁 6시 30분 경내 특설 무대에서 갖는다. 1부는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다문화 합창단 · 합주단 · 장기자랑 등이 진행되며 대광사 합창단의 무대도 펼쳐진다. 2부에서는 박상민, 홍경민, 설운도, 한혜진, 전자현악 샤크 등의 공연이 이어진다.

오대산 월정사 산사음악회도 10월 18일 오후 6시 월정사 탑앞 마당에서 진행된다. 소지로, 이루마, 서문탁 등이 출연해 가을 산사의 밤을 빛내 줄 것이다. **정혜숙 기자**


'제 15회 괘불재 그리고 미황사음악회'는 '미황사의 바다'를 주제로 10월 25일 진행된다.

가을 산사음악회 (날짜순)

주 최	일 시	내 용	연락처
분당 대광사	9월 13일 오후6시30분	박상민, 홍경민, 설운도 한혜진 등	(031)715-3000
익산 심곡사	9월 20일 오후7시	남궁옥분, 김범룡, 유익종 등	(063)855-2001
봉화 청량사	10월 4일 오후7시	인순이 홍경민, 마야, 정태옥&오윤석 등	(054)672-1446
부안 내소사	10월 4일 오후1시	음악회, 괘불재, 템플스테이	(063)583-7281
서산 부석사	10월 4일 오후6시	음악회, 사찰음식 전시	(041)662-2390
평창 월정사	10월 18일 오후6시	소지로, 이루마, 서문탁 등	(033)339-6800
해남 미황사	10월 25일 오후1시	괘불재, 미황사 군고단 공연 등	(061)533-3521

플라스틱 폐품… 형형색색 만다라로 꽃피네

'최정화-총천연색' 전

10월 19일까지 서울역 광장서


최정화 작가는 시민들 · 관람객들이 모아온 플라스틱 뚜껑으로 '꽃의 만다라'를 완성했다.

형형색색 플라스틱 폐품이 만다라로 탄생 서울 시민들을 찾아간다. 문화역서울 284(구서울역사)의 2014년 기획전 3 '최정화-총천연색' 전이 10월 19일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전시는 불자이기도 한 최정화 작가가 시민 · 관람객들과 함께 만든 '꽃의 만다라'를 완성해 눈길을 끈다. 이는 시민들로부터 1주일 동안 모은 평범한 플라스틱 뚜껑 30여 만 개를 거대한 조형물로 완성해낸 작품이다. 평범한 사물이 갖는 색다른 아름다움은 물론 고상한 예술조차 대중들과 함께 하려는 작가의 마음이 담긴 색다른 만다라가 완성된 것이다.

이번 전시는 플라스틱 오브제 조형물들과 갖가지 신기한 최정화식 컬렉션들이 빚어내는 화려한 '총천연색'을 전체 이미지로 보여준다.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 세계이기도 한 '꽃'은 생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속(俗)에서도 가장 찬란한 순간의 심미적인 삶(聖)을 공감케 하려는 작가의 핵심 작업이다. 아울러 동양적인 가치와 생에 대한 깨달음도 동시에 담아낸다.

꽃의 향연, 꽃의 여가, 꽃의 만다라, 꽃의 뼈, 꽃 숲, 꽃의 뜻 등등 비단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꽃의 형상만이 아니라 삼라만상 모두를 생명으로 피어난 꽃 개념으로 풀어낸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잡화엄식(雜華嚴飾), 곧 온갖 꽃으로 장엄하게 장식함을 이른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배려하는 이름모를 꽃들의 웅성거림을 포함해 각기 다른 형형색색의 꽃 개념의 작품들로 화려하게 만개하게 될 것이다. 폐허에서 피어난 꽃들처럼 일상의 평범함과 비루함조차 아름다움으로 개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전시의 주제이기도 한 '총천연색'은 완전한 자연 그대로의 색을 뜻한다. 작가는 플라스틱으로 대변되는 이 시대의 인공 물질문명의 화려함이 실은 가장 자연적인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한다. 최 작가는 "인공과 모조로 가득 찬 세상에서도 가장 인공적인 것이 실은 이 시대의 가장 자연스러운 것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는 우리 시대 문화의 역설이기도 하지만 자연의 본원적인 원리와 이를 다시 생명으로 재생하려는 작업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설명한다. (02)3407-3500

정혜숙 기자

사계절 연꽃의 일생에 生과 死 담겨

이영희 작가 '緣' 전 …갤러리 웃다서 9월 13일까지

이영희 작가의 '緣(연)' 전이 9월 13일까지 대전 '갤러리 웃다'에서 열린다. 연을 주제로 20여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연의 모습으로 관람객들을 찾아간다.

사계절을 살아내는 연은 순간순간 변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준다. 그래서 작가는 연꽃을 같은 공간 속 다른 시간들로 묘사해 변화되는 자신을 돌아보며 이를 작품으로 표현한다. 특히 빗자루같이 시들어 버린 겨울 연은 인상적이다. 여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밑거름 역할도 마다않으니 말이다. 이런 겨울 연은 자신을 향한 깊은 사랑을 보여준다고 작가는 말한다. 이영희 작가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길을 잃지 않고, 진흙 속에서도 더럽혀지지 않는 수행자 같은 모습을 겨울 연에서 보았다. 그동안의 작업은 연처럼 시공간을 초월해 내면의 존귀함을 찾아가는 작업이었다"고 전한다.

이영희 작가는 2000년부터 연을 주제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왔으며 이번에 첫 개인전을 갖게 되었다. 초창기에는 연의 싱그럽고 고고함을 표현했지만, 연이라는 주제에 천착할수록 세상의 모든 더러움까지 함께 품는 겨울 연에 매료되었다. 이제 작가는 아름다움만을 말하지 않는다. 삶과 죽음을 연을 매개로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이렇게 겨울이 지나고 연꽃이 피면 물속의 지저분한 냄새는 사라지고 향기가 연못에 가득하다. 이 향기는 연(蓮)이 사그라질 때까지 계속된다. 이는 겨울을 지낸 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래서 겨울 연도 여름 연도 모두가 하나임을 보여준다"고 덧붙인다. (070)8263-4312


이영희 작가는 겨울 연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파사무용단 '붓다, 일곱 걸음의 꽃'

10월 31일~11월 2일 아르코서… 9월 30일까지 조기 예매

파사무용단 '붓다, 일곱 걸음의 꽃' 레파토리공연이 10월 31일~11월 2일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공연을 앞두고 조기 예매 오픈을 실시한다. 아르코예술극장은 9월 30일까지 예매자에 한해 30%의 할인 혜택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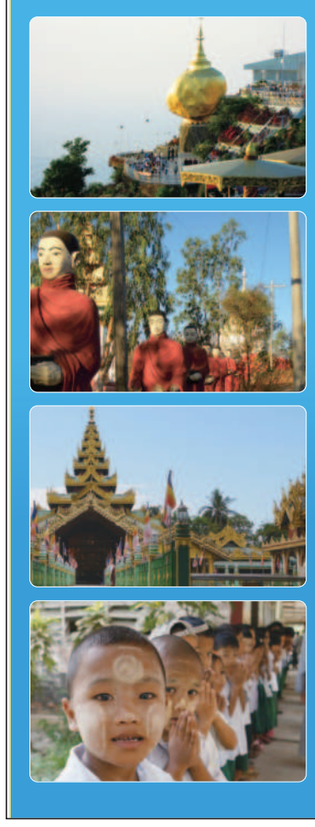
'붓다, 일곱 걸음의 꽃'은 부처님 일생을 다룬 현대무용극으로 서양악기 및 현대 무대미술 을 접목해 대중적 공감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올해 '한국공연예술센터 공동기획' 작품으로 선정됐다.

이 공연은 2012년 국립중앙박물관 극장용에서 초연되었으며, 2013년 '부처님 오신 날'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2회 공연돼 전석 매진을 기록해 화제를 모았다.

티켓은 한국공연예술센터(http://www.koreapac.kr), 인터파크 (www.interpark.com)에서 예매하며 R석 5만원, S석 3만원이다. 10인 이상 단체할인 30%도 가능하다. (02)2263-4689

정혜숙 기자

마하연 투어



마하연투어 강력 추천상품

- 미얀마항공 취항 기념 특가

만달레이/바간/양곤 5일	10월 26일, 27일 (단2회)	879,000원
만달레이/바간/헤호/양곤 6일	10월 28일 (단1회)	~~249만원~~ → 169만원

-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바고/시리암 5일	10월 15일
양곤/바간/헤호 5일	10월 8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9월 27일, 10월 4일

- 은둔의 나라 라오스

비엔티엔 / 방비엥 / 루앙프라방 5일	10월 15일, 10월 27일 출발

- 세계문화유산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 인도

인도&네팔 8대 성지

- 중국 4대불산

지장 + 관음도량 6일	
보현도량 (아미산) 5일	11월 25일
문수도량 6일	9월 25일
구채구 황룡 6일	

- 대만 정통순례 5일

미얀마 위빠사나 수행 - 상담문의 (수속대행)

태국 방콕/파타야 5일	요금문의
캄보디아 씨엠립 5일	요금문의
3대불교성지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5일	요금문의
"힐링요가" 여행 인도 5일	요금문의
인도 8대 성지순례 10일	요금문의
네팔 핵심일주 5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핵심 순례 / 인도양의 보석 몰디브 8일	요금문의
북유럽(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스웨덴) 9일	요금문의
동유럽 3개국 9일 (음악회와 왕의 호수 쾨니히)	요금문의
하와이 5일	요금문의

www.mahayeon.com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마하연투어 공통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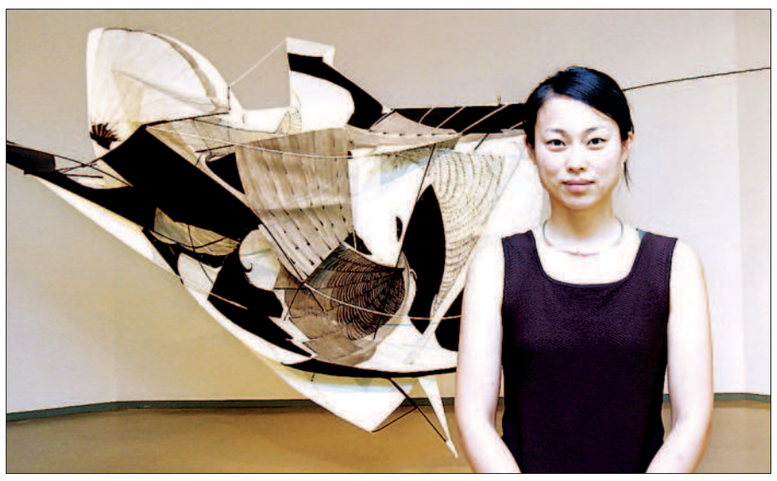
① 모든경비 포함 ② 모든 상품 품격 진행

③ 타여행사 비교 필수 ④ 2억원 여행자 보험 가입

문화

“한지와 먹으로 생명 입히니 線은 禪이 되어 날아오르네”

중앙미술대전 작가로 선정된 불자 설치미술 작가 임지윤


불자 작가 임지윤 씨가 제 36회 중앙미술대전 작가로 선정, 9월 1일~10일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3층에서 전시를 갖는다.

연등제작서 설치 작품 모티브 얻어
禪적 이미지로 충만한 생명력 표현
2008년 프랑스 유학… 파리서 활동

“제 작품은 어렸을 적부터 접했던 문화의 총체적 작업이라 할 수 있어요. 불교 집안에서 자라 불교문화에 익숙했고 서예를 배워 먹과 한지가 좋았어요. 이번 작품은 연등 작업을 기반으로 한지에 먹을 사용했는데, 심사위원들께서 이런 제 작업을 좋게 봐주신 거 같습니다.”

불자 작가 임지윤 씨(34)가 제 36회 중앙미술대전 작가로 선정, 9월 1일~10일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3층에서 전시를 가졌다. 홍익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파리로 건너가 파리국립고등미술학교 조형예술학과를 졸업한 임지윤 작가. 그는 연등 제작 기법을 설치 작업으로 완성한 작품들을 파리 네델란드 독일 등 유럽에서 전시해왔다. 이번 전시작 ‘소풍가는 내 기억들’ 역시 한지, PVC, 철사, 먹물, 연필 등으로 작업한 설치 작품으로 선(禪)적 이미지를 통해 충만한 생명력을 표현한다.

“크로키를 입체화시키는 작업이에요. 선(線)을 구성하고 한지를 붙이면서 선에 감정을 이입하면 생동감이 살아나요. 선을 긋는 작업은 미술 치료에도 사용될 만큼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잖아요. 가볍고 약한 종이 위에 곧고 강한 선과 획을 자유롭게 그으면 두 대립되는 성질들은 공격하거나 때로는 서로를 지탱하며 힘을 주고 있죠. 이런 선 작업을 통해 생명력 있는 하나의 입체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대학에서 서양회화를 전공하는 동안 그는 유화, 아크릴 같은 재료가 자신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오히려 먹과 한지 같은 전통 소재가 더 끌렸다. 그리고 어느날 연등제작을 배우기로 결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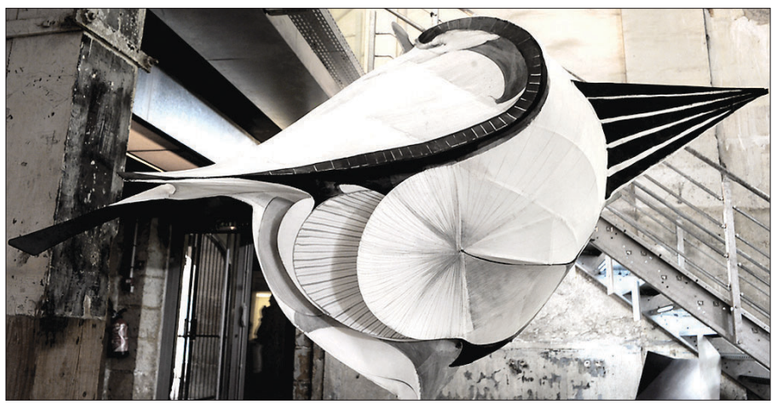
“2010년도에 잠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조계종 전통등강습회에서 연등 제작기법을 배웠어요. 그 과정이 인간의 뼈대를 구성하고 살을 붙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인체에 관심이 많아요. 아버지께서 정형외과 의사셨고 집이 병원 건물과 함께 있어 늘 환자들을 보면서 자랐죠. 그러면서 인체 혹은 인간 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근육 핏줄 등을 하나의 선으로 보게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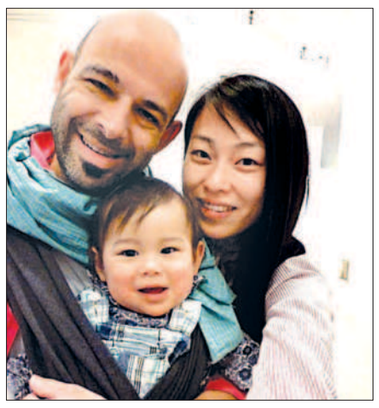
여동생이 출가를 할 만큼 독실한 불교집안에서 자란 그녀는 어머니를 따라 참선을 경험했고, 대학시절에는 3천배를 하면서 스스로의 내면을 다지기도 했다. “참선은 저에게는 아직 어려워요. 3천배는 무척이나 의미 있는 경험이었죠. 3천배를 하면서 느낀 것은 결국 수행은 스스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특히 예술가들은 자기 내면과의 싸움이 중요한데 이런 경험들이 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고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는 데에 좋은 매개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프랑스 유학길에 오른 임 작가는 2010년 프랑스인 재즈 음악가 에티앤 드라 싸이애뜨와 결혼했다. 한국문화 애호가인 에티앤은 판소리, 전통가요 등 한국문화를 음악에 접목시키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목탁을 타악기로 활용한 곡을 만들 만큼 불교문화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남편은 한국문화를 너무 사랑해요. 특히 김치는 물론 홍어까지 즐길 정도로 한국 음식을 좋아하죠. 한국에서는 2013년 순회공연을 가졌고 내년 봄에는 한국문화원 대사관이 주최하는 낭뜨 봄 축제에 1960년대 한국 트로트를 부르는 공연을 갖습니다. 저는 그곳에 전시를 열 예정이고요.”

현재 임 작가는 연꽃을 형상화한 작품도 작업중에 있다. “지금 연꽃을 설치 작품으로 만들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연잎은 완성했는데 아직 꽃은 못 만들었어요. 이 작품 역시 완성해 전시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임 작가의 작품은 연등제작기법을 활용, 한지와 먹으로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작품은 ‘들리세요’


프랑스 재즈 음악가인 그의 남편 에티앤은 목탁을 활용한 음악으로 한국에서 공연한 바 있다.

뜬구름 같은 인생 절반이 시비라오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㊱ 건봉사 ㊥




건봉사의 역사를 말해주는 부도밭 전경. 젊은 선비 이인엽은 금강산 유람길에 건봉사를 들렀다.

젊은 선비의 눈에 비친 건봉사

이인엽이 금강산 유람을 할 때 동행한 사람이 있었다. 조카뻘 되는 최창대(崔昌大 1669~1720)였다. 최창대는 병자호란 때 주화론(主和論)을 폈던 최명길(崔鳴吉)의 증손이다. 1691년(숙종 17) 외숙부를 따라 금강산 유람을 나선 그의 나이는 23세였다. 요즘 같으면 대학교 졸업 반 정도 일 나이에 최창대는 건봉사에서 무엇을 느꼈을까?

고도통행세(古道通行細)
제료면세분(諸寮面勢分)
장송전석벽(長松纏石壁)
복각반한운(複閣半寒雲)
수대춘상응(水　春相應)
상림정역문(霜林靜亦聞)
불수담법게(不須談法偈)
심이원인분(心已遠人紛)

오래된 길 통행하기에 좁아
동행인들 지세를 따라 나뉘었네.
늘어선 소나무 석벽 따라 얽히고
겹 문설주에 차가운 구름이 한창.
물방아 찧으며 서로 호응하니
서리 내린 고요한 숲에도 들려오네.
계송으로 담소할 필요 없으니
마음은 이미 속세에서 멀어지는 걸.

23살의 젊은 선비 최창대가 지은 ‘건봉사를 방문하다(訪乾鳳寺)’라는 시다. 그의 문집 〈곤륜집(昆侖集)〉제2권에 실려 있다. 시의 전반부는 평이한 묘사로 건봉사의 풍경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미련의 대미는 23살의 청년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탈속적 면모를 보인다. 건봉사로 들어가는 동안 이미 마음은 세속의 번뇌 망상을 떠나 출세간의 고요 속으로 빠져 들고 있으니 굳이 법문(게송)을 이야기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속진의 번뇌를 읊다

금강산 가는 길의 건봉사는 장송(長松)이 우거진 숲 속에 있고 동해도 가까워 선비들의 필수 유람 코스였으니 그 풍광을 읊은 시가 많은 것도 당연하다. 그렇다고 건봉사에서 풍경만 읊은 것은 아니다.

조선중기 문장4대가 중의 한 명으로 꼽히는 택당(澤堂) 이식(李植 1584~1647)은 건봉사에서 곤고한 삶의 고뇌를 노래했다.

시월공산우(十月空山雨)
삼경원객심(三更遠客心)
조한침호유(早寒侵戶牖)
징윤습의금(徵潤濕衣衾)
수대성환수(水　聲還數)
향등운욕침(香燈暈欲沈)
동명각안저(東溟却眼低)
용이교수심(容易較愁深)

시월 빈산에 내리는 비에
삼경 멀리 떠나온 객의 심회.
이른 추위 창틈으로 스며들고
눅눅한 습기 옷이며 이불을 적셔오네.
물방아 찧는 소리 거듭 돌아오고
향과 등불은 잦아드려 하네.
눈 아래 펼쳐진 동해 바다는
깊은 시름에 비교하기 쉽다네.

이식은 1631년(인조9)에 임금에게 밉보여 고성군 간성현감으로 좌천되었다. 그때 건봉사를 자주 찾았는지 그의 문집 〈택당선생집〉에는 건봉사와 관련된 시가 5편 실려 있다. 여기 든 시는 ‘건봉사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자다(宿乾鳳寺廳雨)’이다.

좌천되어 변방의 현감이 된 당대의 문장가 이식. 건봉사에서 잠을 자는데 날은 추워지고 눅눅한 기운이 옷과 이불을 적시니 상당히 서글픈 상황이다. 그렇게 몸도 마음도 젖어 있는 밤, 물방아 소리가 들려오고 마침 향과 등불도 사그라 드려고 하니 그 처량함이 더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예 그 처량한 시름을 동해바다에 비교하며 시를 맺었다.

그렇게 풍진 생활로 간성현감을 지내던 이식은 드디어 왕의 부름을 받고 서울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때 한결 밝아진 마음으로 3년간의 간성현감 생활을 마무리하며 지은 시는 이렇게 시작한다.

위향거승도(爲向居僧道)
부생반시비(浮生半是非)

여기 사시는 스님께 한 말씀 드리려오.
뜬구름 같은 인생 절반이 시비라오.

정말 우리 인생은 절반이 시시비비다. 온통 시끄러운 세상, 우리는 좋은 것보다는 그렇지 못한 것을 더 많이 말하고 듣고 보고 느끼며 살고 있다. 그게 중생계의 현상일 것이다.

좌절한 허균이 찾은 건봉사

허균(許筠 1569~1618)이 금강산을 유람한 것은 35세 때의 일이다. 그도 당시 벼슬에서 파직되었는데 그 이유가 불교를 숭상한다는 것이었다. 서애 유성룡에게 학문을 배우고 삼당시인의 한 사람인 이달에게 시를 배운 당대의 엘리트 허균. 벼슬길에서 좌절한 그에게 건봉사는 어떤 절이었을까?

건봉사재금강산(乾鳳寺在金剛山)
화궁표묘경운간(花宮　　緲雲間)
중유선승옥설자(中有禪僧玉雪姿)
기가조반동림사(棄家早伴東林師)
〈중략〉
상봉문아고하사(相逢問我苦何事)
반세침감명여리(半世沈　名與利)
세심하불학참선(洗心何不學參禪)
료진인간노병사(了盡人間老病死)
〈후략〉

건봉사는 금강산 속에 있어
높고도 아득한 도량 세속과 구름사이네.
그 안에 한 선승이 옥설 같은 모습으로
집 버리고 일지감치 동림 스님의 짝이 됐네.
〈중략〉
만나자 나에게 묻길 무슨 일이 괴로워
반세상을 명리에 취해 있었는가?
어찌 마음 씻고 참선 배워
인간의 노병사를 마치지 않는가?
〈후략〉

이 시는 허균의 문집 〈서소부부고(惺所覆瓿藁)〉제2권에 실렸다. 제목은 ‘정상인에게 주다(贈靜上人)’이다. 시의 전체 내용으로 보아 가을밤에 건봉사에서 잠을 자게 되었고 교유하는 스님에게 주기 위해 쓴 것인데, 금강산 여행을 다녀오는 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 경상도 : 010-9190-3350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67권의 저서 출간!



바로보인 유마경
유마경은 가히 불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라 할 것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 대원선사 토끼뿔 〉로 이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신간!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함이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흡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중략)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이 시대에 맞는 석문의범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27 ~ 9/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제1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모과나무
3	수트라(여시아독)	범일	김영사
4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5	사랑이 온다(화해와 치유의 힐링 그림편지)	이영철	해조음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6	삼계를 벗어나는 최상의 해탈법	담허	여시아문
7	두 글자로 깨치는 불교	가섭	불광출판사
8	능가경 강의	남회근	부키
9	아함경 (전12권)	학담	한길사
10	붓다의 과학이야기	김성철	참글세상



보이지 않는데서 나 조종하는 손, 트라우마

트라우마 사용설명서

마크 엡스타인 지음 | 이성동 옮김
불광 펴냄 | 1만 8천원



저명한 정신치료사 마크 엡스타인은 부처님 어머니의 이른 죽음이 붓다에게 트라우마를 남겼으며, 붓다의 영적 여행은 이 트라우마에서 분출되는 원초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도전이었다는 독창적인 관점을 이 책에서 선보인다. 이 대담한 정신분석적 붓다 일대기에 더해, 저자는 자신의 체험과 상담 사례를 소개하며 '당신의 트라우마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던진다. 나아가 마음의 본성에 눈뜨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길을 소개해, 더욱 인간적이고 자애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독자를 이끈다.

세월호 사건 이후 트라우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최근에는 드라마의 소재로도 쓰여, 가정폭력과 엄마의 불륜이 야기한 트라우마로 고통 받는 남녀 주인공의 이야기가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트라우마는 '정신적 외상' 혹은 '영구적인 정신 장애를 남기는 충격'을 일컫는 말이다. 일반적으로는 사고나 폭행, 학대, 전쟁 같은 극단적인 경험이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트라우마가 '인간 정신의 근본' 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일상서 흔히 겪는 고통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마음에 트라우마를 새기는데 누구도 여기서 예외일 수 없으며, 이렇게 남겨진 트라우마가 이후 지속적으로 한 인간을 만들어 간다는 주장이다.

별일 아닌데도 분출하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경험, 운전 중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던 일, 어떤 상황이나 말에 반복해서 특별히 예민한 태도를 보였던 기억 등은 모두 일상의 트라우마가 만들어놓은 감옥에 우리가 갇혀 있기 때문에 일어난 반응이다. 트라우마가 야기하는 당혹감, 고통, 불편함, 갑갑함 등.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정신과 의사 정혜신은 말한다. "치유는 상처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떠올리는 것만으로 끔찍해서 기억 저편에 꼭꼭 숨겨놓았던 것,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받아들이는 거에요." 그가 말하는 치유의 본질은 간단하다.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도 나를 그냥 위로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사람, 엄마.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해요. 팁 하나 드릴게요. 외롭고 힘들 때 나를 가장 사랑해준 사람을 떠올리세요. 위로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에요."

예수, 공자, 소크라테스와 더불어 세계 4대 성인으로 추앙받는 붓다. 그에게도 아픔이 있었으니, 태어난 지 7일 만에 엄마가 세상을 떠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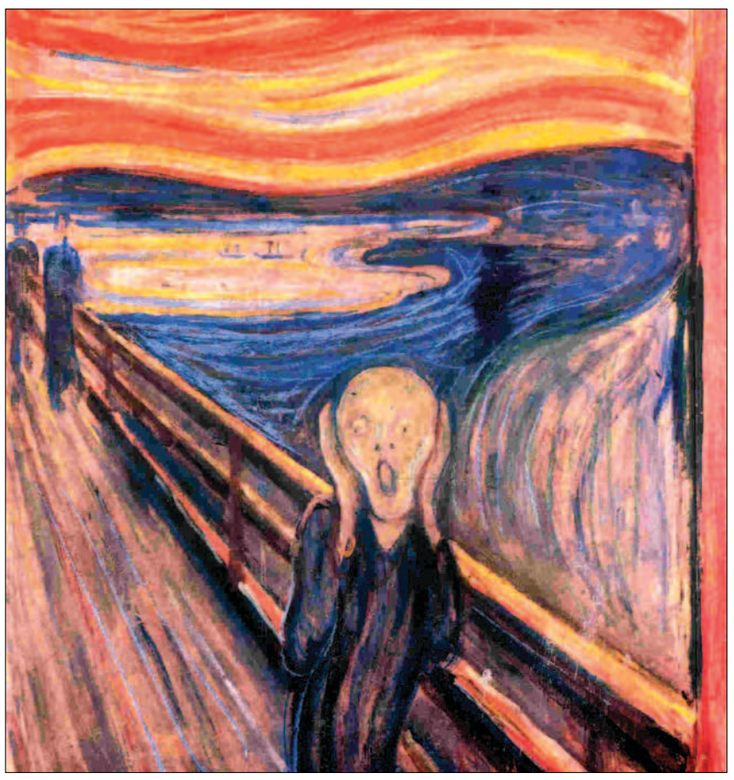
마크 엡스타인은 부처님 어머니의 죽음이 붓다에게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말한다. 유아기 애착관계를 맺을 최우선 대상인 엄마의 부재는 붓다의 인생에 그늘을 드리웠다. 후일 붓다가 "나는 연약하고, 정말로 연약하고, 말할 수 없이 최고로 연약했다."고 회고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엡스타인이 보기에 붓다의 출가는 엄마의 죽음이 남긴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한 도전이었다. 결국 붓다는 수년 동안의 분투 끝에 트라우마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건 트라우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정신과 의사는 환자를 상담하면서 환자가 편안해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공감과 지지를 보낸다. 엄마 품속에 있는 듯한 포근하고 넉넉한 분위기 속에서 환자는 속내를 털어놓게 되며,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속 상처를 치유받는다. 붓다가 놀라운 건, 내면에 이런 포근하고 넉넉한 공간을 스스로 마련하는 방법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붓다는 언제든 원하기만 하면 마음의 고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 자신의 트라우마를 해결했고, 자신이 발견한 이 방법을 널리 전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다.

마크 엡스타인이 붓다의 가르침 가운데 트라우마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마음챙김 명상과 연기론이다. 이 두 가지 가르침을 단순하게 설명하면, 마음챙김 명상은 몸과 마음에 어떤 신호가 들어오든 그것을 아무런 판단 없이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고, 연기론은 세상 만물은 서로 이어져 있다는 세계관이다.

그렇다면 이 두 가르침은 왜 트라우마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 트라우마가 힘겨운 건 트라우마에서 발생한 고통스런 감정 때문인데, 마음챙김 명상을 하면 감정에 휩쓸려 드는 대신 감정마저도 따뜻하고 초연하게 관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난다. 마치 엄마가 칭얼대는 아기를 사랑스런 눈길로 바라보며 당황하지 않고 표근히 안아주듯, 스스로 자기의 감정을 부드럽게 수용하는 것이다.



치유는 상처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해법은 마음챙김 명상과 연기론
연계된 존재 인식 고립감 탈피에 효과
타인 아픔이 곧 내 아픔 이해가 중요

트라우마가 야기하는 고통의 핵심에는 '고립감' 도 있다. 자기 혼자만 이 고통을 앓고 있으며, 손을 뻗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느낌 때문에 트라우마는 극도로 고통스럽다. 그런데 연기론은 '나' 라는 존재가 본질적으로 세상 만물과 이어져 있다고 설명한다. '나를 가장 사랑해준 엄마, 내가 가장 믿고 따른 멘토, 파란 하늘, 푸른 산과 들, 강과 바다, 이 지구가 나와 이어져 있으며 나를 지지하고 있다.' 이 사실을 실감하는 순간 고립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런 여유와 깨달음을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그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엄마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존재의 본질을 깨닫고 세상 만물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마크 엡스타인은 트라우마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정신의 완성 과정으로 본다. 정신의 밑바닥에서 한 인간을 형성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트라우마이기에,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 하나하나는 '내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여정이 된다. 자기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너그러우면서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깊은 상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이 임무의 수행 정도를 정신의 완성 혹은 한 인간의 성장을 가늠하는 잣대로 삼는 건 타당해 보인다.

'나' 라는 존재가 수많은 존재와 이어졌음을 이해하면, 다른 존재의 아픔이 곧 자기의 아픔이고, 다른 존재의 기쁨이 곧 자기의 기쁨이라는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트라우마는 우리를 더욱 인간적이고, 자애롭고, 지혜로운 삶으로 들게 하는 문인 것이다. 붓다가 '고통이 곧 열반' 이라고 말한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김주일 기자**

불교와 사상의학으로 심신치유를

불교와 사상의학의 만남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저 | 올리브그린 펴냄
2만8천원



불교의 수행론이 사상의학(四象醫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헌적 검토를 거쳐 이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만들고자 2011년 9월부터 3년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심신치유의 프로토콜 구축을 위한 불교와 사상의학의 융합연구' 란 과제로 진행된 연구의 결과물이다.

이론적 연구와 함께 마음챙김, 염불, 간화선과 같은 불교 수행이 사상체질별 정서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조사연구를 통해 검토했으며, 연구팀이 구안한 '30분 명상프로그램(α-version)'에 대한 효과를 임상적으로 검토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팀은 세부 주제별로 책임자를 나누어 진행하되 의견을 교환하면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 동안 발표된 논문들이 여러 학술지에 나뉘어 있어 전체적인 시각에서 통합하고자 〈불교와 사상의학의 만남-심신치유의 이론적 탐색의 적용〉으로 묶었다.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인간 이해를 위한 불교와 사상의학의 접점에 대한 연구의 결과물을 '인간이해의 새로운 접점을 찾아서' 란 주제로 묶었다.

논문으로는 정준영의 '초기경전에 나타나는 인간유형 연구' , 박성식의 '종밀의 〈원인론〉과 동무 이제마의 '원인' 편에 나타난 인간론' , 이필원의 '초기불교의 정서 이해' , 박서연의 '오온설과 사상체질론을 통해 본 인간 이해' 가 실렸다.

제2장은 '치유를 위한 이론적 접근' 이란 주제로 불교와 사상의학이 갖는 치유적 특성을 문헌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근거를 제시하고자 했다.

논문으로는 박서연의 '연기적 관점에서 본 사사의학의 심욕 이해' , 이자랑의 '불교의 기질과 사상의학의 체질에 따른 심리절 요소의 차이' , 김근우, 박서연 공저의 '고대 의안에 나타난 불교사상 연구' , 양승규의 '불교의학의 정립을 위한 시도' 가 실렸다.

제3장은 '치유를 위한 실천적 이해' 란 주제로 불교와 사상의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치유, 치병, 양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논문으로는 박성식의 '사상의학에서 성정의 중절과 심리치료' , 박성식, 이필원 공저의 '정서적 변화가 육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 양승규의 '불교의학과 사상의학의 체질적 양생론 연구' , 이기운의 '치유, 치병 개념에 있어서 불교와 한의학의 비교' 가 실렸다.

제4장은 '불교수행의 임상적 적용 가능성 탐구' 이다. 이 장에서는 마음챙김, 염불, 간화선과 같은 불교수행법이 인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체질별로 검토한 내용과 본 연구팀이 구안한 '명상프로그램이 사상체질별 심리척도 및 HRV(심박변이도 · Heart Rate Variability)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을 검토한 논문을 실었다.

논문으로는 배효상 외 3명 공저의 '사상체질에 따라 마음챙김 명상이 분노에 미친 영향 연구' , 배효상 외 4명 공저의 '염불이 사상체질에 따라 심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 김병수 외 2명 공저의 '간화선 수행이 중고령자의 심리적 특성(우울, 불안, 분노)에 미치는 효과' , '김근우 외 5명 공저의 ' 명상프로그램 시행전후의 사상체별 심리척도 및 HRV 변화 연구 가 실렸다.

부록으로 자세한 설명과 그림이 첨부된 '심신치유를 위한 30분 명상프로그램 α version'을 싣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연구과정 속에서 체질별 명상프로그램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만든 시험적 명상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체질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로서, 이후 체질별 명상프로그램을 구안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구안된 프로그램이다. 본 명상은 동작을 하면서 신체의 이완과 긴장의 변화에 의식을 집중하면서 실시한다. 의식이 몸 밖으로 확장되지 않고, 몸의 느낌에 집중하도록 노력하면서 동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작명상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이완명상을 통해 마음을 편안히 할 수 있도록 구안했다. 그리고 이완명상은 호흡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호흡명상은 수식관을 사용했는데, 들숨과 날숨을 하나로 헤아려 열까지 헤아린 다음, 이것을 반복하는 불교 전통의 방식을 그대로 채용했다. 그리고 마지막 이완은 바디스캔으로 의자에 앉거나 선 자세로 실시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박재완 기자**



달라이라마, 그리고 다람살라 5년의 기록

달라이라마, 마음의 고향을 찾아

가연숙 지음 | 참글세상 펴냄 | 2만원



몇 년전 신문사에서 같이 근무하던 후배가 찾아왔다.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았다. 예전에 볼때의 옷 매무새가 아니었다. 한국 사람 같지 않은 분위기를 연출해 옆 동료에게 조심스레 물어봤다. 역시나 신상에 큰 변화가 있었다. 티베트 고위공무원에게 시집을 간 것이다. 그가 바로 이 책의 저자인 가연숙 前 현대불교신문사 기자이다.

저자는 2009년 봄 티베트 난민 정부가 있는 인도 다람살라를 찾는다. 하지만 시작부터 고행이었다. 인도 델리서 야간 버스를 타고 다람살라로 향하던 날 고열과 설사를 동반한 고통이 온 몸을 휘감았다. 음식이 들어가면 목 줄기가 타들어 가는 듯 괴로웠다. 고산병이었다. 그렇지만 저자는 다람살라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제14대 달라이 라마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훗날 회고 한다. 마침 티베트 새해인 로사가 지나고 외부 일정을 마친 달라이 라마가 다람살라로 입성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리고 운좋게도 직접 목격했다. 사진 속에서 봤던 트레이드 마크인 온화한 미소 그대로였다. 그의 살인미소(?)와 스친 시간은 고작 3초였다. 정말로 찰나였다. 하지만 저자에게 그 촌각은 지구의 자전이 멈춘 듯 고요와 평화만 남았다고 했다. 괴로움의 포로가 된 내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는 황홀한 경험도 했다. 반년이 지난 후 가을 다람살라는 저자의 집이 되었다. 현지인과 가정을 꾸린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티베트 망명정부의 유일한 한국인 기자의 삶을 시작했다. 달라이 라마를 본격 마주한 것은 2010년 2월, 8년만에 재개된 달라이 라마의 중국 외교 특사단 기자 간담회가 열렸고, 이를 취재하면서 비로소 티베트 불교와 달라이 라마 그리고 티베트 망명 정부의 삼합을 직접 체험하게 됐다.

이 책은 출간 시기가 적절한 것 같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를 초청하기 위해 8월 5일 서울 조계사서 조계종이 '달라이 라마 방한 추진 선포식' 을 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달라이 라마의 비폭력 평화와 생명의 가르침을 통해 반생명과 갈등의 사회를 치유해보자는 취지다. 이들은 '달라이 라마 방한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 도 시작했다.

달라이 라마의 방한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0~2001년과 노무현 정부 때인 2005~2007년에도 추진됐으나 무산됐다. 1959년 티베트를 강제병합한 뒤 달라이 라마를 '하나의 중국' 을 해치는 분열주의자라고 낙인찍은 중국이 한국 정부를 압박한 데 따른 결과다.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높아지고, 미국 일변도의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대중관계를 강화했던 두 정권이 중국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했다.

최근 달라이 라마도 중국-티베트 간 정치적 문제를 내려놓고 자신은 문화 · 종교 문제만 집중하며 살아갈 것을 천명해 중국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려 애쓰고 있다.

달라이 라마는 이제 불교 승려의 차원을 넘어 세계인들의 정신적 지도자가 됐다. 그

85장의 생생한 관련 사진 인상적

달라이 라마 관련 사이트 '가교' 운영

매년 '한국인을 위한 법회' 열려

의 말씀이 인연이 되어, 혹은 티베트 불교에 매료돼 다람살라를 찾는 한국인들의 숫자가 적지 않다. 매년 가을이면 한국인 불자들의 청에 의해 다람살라에서 달라이 라마의 '한국인을 위한 법회' 가 열린다. 2003년부터 시작되었으니 올해로 벌써 12회째를 맞는다. 하지만 다람살라 현지에서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 불교를 전담해서 취재하는 한국 취재진, 혹은 기자는 없는 실정이다.

일본이나 싱가포르, 미국을 비롯한 서구 언론사들의 상황과 비교하면 안타깝고 아쉬운 현실이다. 그런데 그곳에, 바로 저자가 있다. 아이를 낳는 힘든 와중에도 본인이 세운 서원이 있어 달라이 라마에 대한 취재 의지를 놓은 적이 없다. 국내 불교 언론사들을 통해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 불교, 다람살라의 소식들을 끊임없이 보내고 있다. 한국 언론사에서 파견한 달라이 라마나 다람살라 전담 취재진이 없는 대신 그녀가 개인의 힘으로 그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어린 아이의 엄마지만 그녀는 달라이 라마의 법문 여행을 동행 취재하고 다닌다. 캐나다도 멕시코도 헝가리도 일본도 가리지 않았다. 이곳 저곳의 언론사로 흩어지는 달라이 라마의 기사들을 한군데로 모아 보기 좋고 찾기 좋게 하기 위해 가교(www.gagyo.org)라는 웹사이트도 운영 중이다. 역시 누구의 도움도 없다. 혼자서 하는 일이다. 이 책은 저자가 그동안 다람살라서 5년간의 취재 기록을 모아 묶은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만도 달라이 라마 관련 서적이 백여 권이나 출간됐지만 대부분 외국의 저자가 쓴 것을 우리말로 옮긴 책들이다. 이렇게 달라이 라마 곁에서 한국인 필자가 숨소리까지 듣고 본 내용을 전달한 예는 드물다. 더욱이 이 책에는 저자가 직접 찍은 달라이 라마와 다람살라, 티베트 사람들의 모습이 85장의 생생한 사진으로 담겨 있다. 영상학 전공자답게 사진 한 컷 한 컷이 작품사진을 방불케 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비판적 시선으로 명상수행 돌아보다

까칠한 구도자의 시시비비 방랑기

윤인모 지음 | 판미동 펴냄 | 1만 3500원



머나먼 인도나 티베트가 아니라 이 땅의 저잣거리서 치열하게 내면의 깨달음과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하는 구도자들과의 좌충우돌 만남을 그린 책이다.

그동안 구도자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기는 했지만 나와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대개 인물을 과장 · 미화하거나, 등장인물들은 이색적이지만 저자 자신은 객관적인 관찰자의 역할을 맡아 극적 사건 없이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은 각 인물과 정면승부를 펼쳐 문제의 핵심으로 곧장 뛰어들거나 오랜 시간 밀접한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인생 전반을 통찰한다. 일찍이 정규 교육과 담을 쌓고, 광고 회사 직원부터 공장 노동자까지 다양한 직종을 두루 거쳐 명상의 길을 가는 독특한 이력의 저자는 스스로 문제적 수행자 역할을 자처하여 고상한 명상 담론의 말놀이 게임을 부숴 버리고 갖가지 예측불허의 사건들을 일으킨다. 시장통 복덕방 도인, 스님이 되는 게 습관인 사내, 세계의 방랑자, 백수 지존, 삼대(三代) 구도자 집안, '괴물' 창립 멤버 선승 화가, 오쇼의 메신저, 선천적으로 타고난 도인, 쿤달리니를 터득한 밀교 수행자, 최고 힐링 전문가가 된 여자 사업가 등 고정관념과 일상의 경계를 뛰어넘는 인물들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새로운 진경을 보여 주고, 인생에 대한 통찰과 지혜를 유쾌하게 전한다.

결국 저자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삶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다. 삶과 명상은 분리된 것이 아니며, 우리 삶의 기반이 되는 현실을 떠나서는 공부도 깨달음도 없다는 '삶에 뿌리박기' 를 강조한다. 역동적이고 뜨거운 삶의 국면들을 드러내는 적극적인 이러한 구도기는, 등장인물들을 현실과 동떨어진 소수의 별종이 아니라 삶의 경계에 서 있는 첨예한 구도자로 조명한다. 그래서 이 책은 일회적인 읽을거리가 아니라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전하는 지혜의 보고로서 가치가 있다.

이 땅에는 수많은 무명의 구도자들이 있다. 그들은 한 줌 잡초처럼 스러져 간다. 술에 무너지고, 여자에 무너지고, 도박이나 투기에 무너지고 등등. 하지만 이런 세속적 번뇌에 무너지는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 번뇌와 대결하는 모습도 결코 아름답지 않다. 고뇌하는 그 사람은 결코 '문학적' 이지도 '철학적' 이지도 않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더럽고 추잡한 세계로 굴러 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고뇌와 적나라하게 대결하는 진정한 방법이다. 자신을 완전히 까발리고 밑바닥까지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명상 수행은 무조건 실천해야 할 것으로 보지 않으면, 왠지 사이비 종교와 관련되거나 우리 삶과 동떨어진 무언가로 취급됐다. 이 책에서는 명상 수행의 좋은 점만을 드러내기보다는 거기서 생기는 여러 문제점을 꿰뚫어 보며 그 허와 실을 살핀다. 삶과 현실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과 통찰, 몸과 영혼에 대한 비전, 명상 수행계의 주요 이슈 등 무겁거나 어려워 보일 수 있는 주제를 때론 유쾌하게, 때론 진솔하게 풀어낸다.

밀교 수행자와의 만남에서는 쿤달리니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담을 들으면서 시중에 떠도는 사이비 논쟁들을 고찰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영적 스승과의 만남에서는 "영적인 문제가 대중적 가치와 포장된 상품 수준으로 환원되고 유포되는 것"에 대한 회의를 표하며 성과 명상 등 수행에서 일어나는 민감한 문제에 대한 격론을 이어간다. 그리고 여러 영적인 인물들을 경험하고는 "영적인 능력과 참된 지혜는 반드시 비례하지도 일치하지도 않는다. 명상인들이나 수행자들은 많은 경우 그 때문에 더욱 어리석어지기 일쑤"라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한다. 이처럼 저자는 각종 초현상들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기인들의 밀착된 현실, 영적 스승이라 불리는 인물들의 심리분석, 쿤달리니 현상, 오쇼 관련 비하인드 스토리 등 명상 수행계에서 끊임없이 논의되는 주제들에 가감 없는 비판을 가한다. 그러면서도 개개의 인물과 삶에 애정 어린 시선을 결코 잃지 않는 것이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김주일 기자

평생 질병과 비만 걱정 없이 살기 위한 기적 밥상 가이드

푸디스트

다리야 피노 로즈 지음 | 신예경 옮김
시공사 펴냄 | 1만 5천원



이 책은 날씬한 몸매를 갖기 위해 지독한 다이어트에 매달리던 저자가 끝없는 요요와 영양불균형을 경험한 끝에 깨닫게 된 일종의 자기 고백으로 시작한다. 그녀는 과학자답게 관련 문헌과 실험 자료를 뒤져 가며 자기 몸에 생긴 이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마침내 음식을 덜 먹는 삶에서 벗어나 '진짜 음식' 을 먹는 삶에 진입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렇게 밥상을 바꾼 이후 그녀는 음식을 거부하고 요요에 시달리는 다이어터에서, 음식과 인생을 사랑하고 평생 건강하게 살아가는 푸디스트로 변모하게 된다.

책에는 이런 극적인 삶의 변화를 만나기 위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음식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를 어디에서 구매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조리해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담겨 있다. 특히, 최근 화제가 된 렌틸 콩, 퀴노아, 케일 등을 맛있게 먹기 위한 조리법부터 시작해 우리에게 소위 '좋지 않은 음식' 으로 알려진 커피, 소금, 계란 노른자의 놀라운 효능까지 하나하나 짚어준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만성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물론, 가족의 건강한 식단을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은 기적의 밥상을 선사해 준다.

아침마다 신선한 식빵에 유기농 잼을 발라 맛있게 먹고 든든하게 출근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좋은 식습관일까?

저자는 이에 대해 "식품 마케터의 최우선 순위는 우리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거나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먹게 그리고 더 많이 소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슬라이스 식빵, 즉석 오트밀, 한 회분씩 튜브에 포장된 짜먹는 요구르트"야말로 식품 마케터의 술수에 의해 소비자들이 먹기 쉽게 고안된 식품의 좋은 사례라며, "빵은 작은 조각으로 자르면 금세 딱딱해지기 때문에 식품 회사들은 방부제와 반죽 개량제를 비롯해 빵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다른 화학물질을 첨가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는다.

이처럼 저자는 우리가 편하다는 이유로 흔히 섭취하는 식품들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 그녀는 이 외에도 피해야 할 것으로 설탕, 가공육, 밀가루, 인공 감미료를 지적하면서(물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식품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푸디스트가 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우선 자신의 몸을 초기화할 것을 제안한다. 초기화 작업이란 적어도 2주간 다음의 식품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것이다.

그녀에 따르면 첫 3일간은 무척 힘들지만, 5~6일이 지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한 주가 지나면 만성적인 증상들이 해결되면서 "에너지가 더 많아지고 피부가 깨끗해지며 위장 질환이 신기하게 사라질 것"이라고 단언한다.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이후 천천히 위의 네 가지 음식 중 한 가지씩을 먹기 시작하면서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었을 때 자신의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탐색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자기만의 푸디스트 식단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 저자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식료품을 단계별로 제시한다. 먼저 식품 저장소에 채워야 할 올리브 오일, 소금, 후추, 식초, 육수, 일반 콩과 렌틸 콩, 곡물, 토마토, 견과류, 양념 등을 이야기하면서 이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들려준다. 냉장

소식보다 '좋은 음식' 섭취가 중요

영양손실 적은 최상 레시피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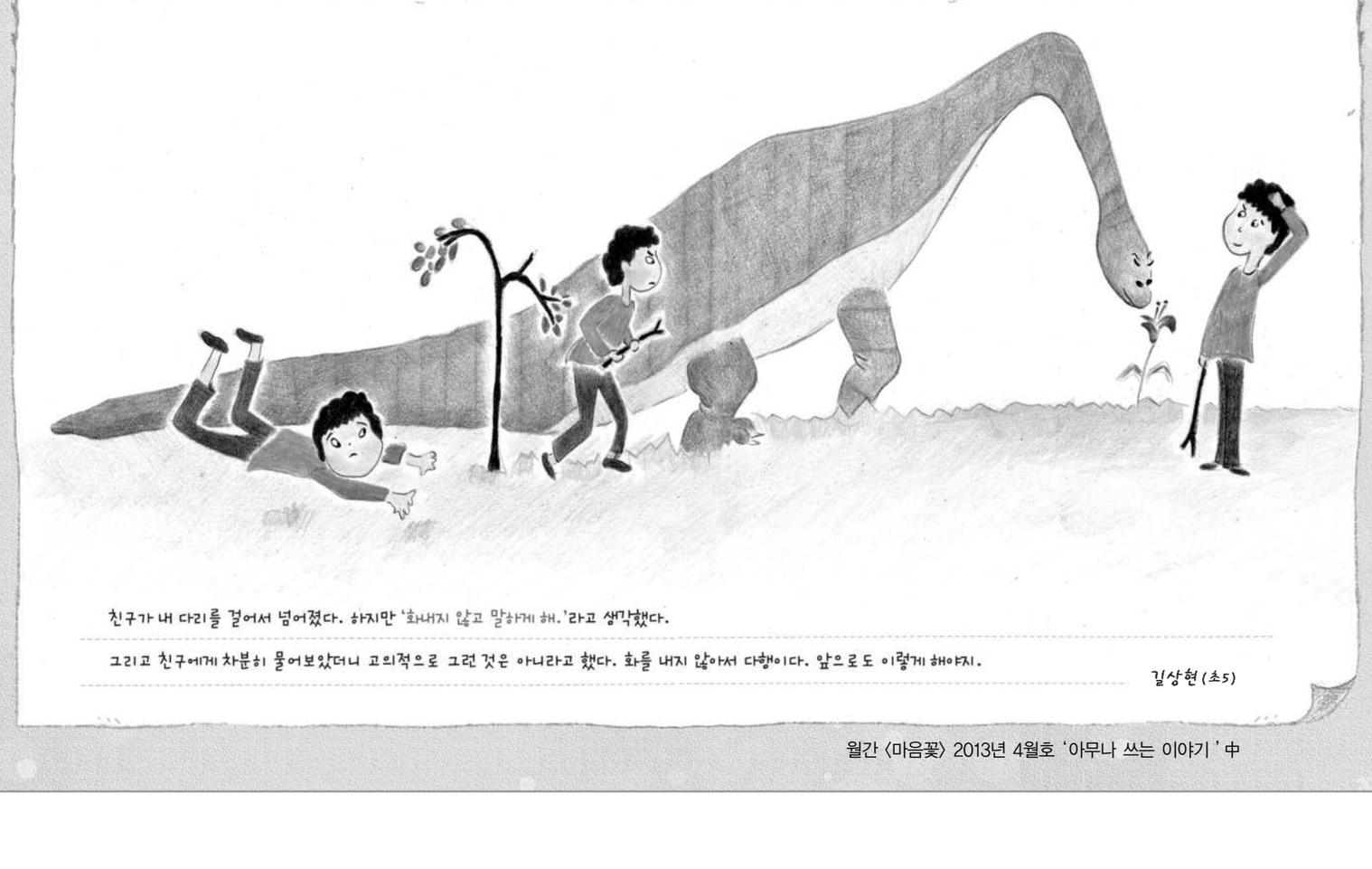
고에 채워야 할 식재료로는 양파와 채소, 마늘, 레몬이나 라임, 파슬리, 신선한 허브, 계란, 플레인 요구르트, 김치를 비롯한 각종 소스 등을 제시한다. 흥미로운 것은 저자가 김치를 필수 식품으로 계속 언급한다는 점인데, 비록 한식과 양식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녀가 고른 식료품은 우리나라 음식에서도 대부분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들이다. 나아가 저자는 이 가운데 우리가 평소 잘 먹기 어려워하는 몇몇 채소에 대해 가장 영양 손실이 적으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레시피를 전해준다.

실제로 저자는 이런 음식들을 바탕으로 식단을 완전히 바꾼 이후 몸매가 살아나고 체력이 붙으면서 더 활력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힘주어 말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죽을 날만 기다리며 지병에 시달리던 그녀의 아버지 역시, 가공 식품을 끊고 채소 먹기 시작하면서 불과 몇 주 만에 허리 치수가 36에서 32로 줄어든 것은 물론 지팡이를 버리고 당당히 걸어 다닐 만큼 건강이 호전되는 기적을 만나게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의 웹사이트에는 그녀가 알려준 건강 및 음식 정보를 토대로 식단을 변화시켜 질병을 고치고 삶을 되찾았다는 증언들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다.

김주일 기자

한마음선원에서 발행하는 어린이 인성교육 월간지 〈 마음꽃 〉은
어른들도 함께 보는 어린이 마음공부 놀이터입니다.



월간 〈마음꽃〉 2013년 4월호 '아무나 쓰는 이야기 ' 中

마음꽃 펴어라, 얍!

"가기 싫은 학원을 즐겁게 갈 수는 없을까?"
"보기 싫은 친구를 사랑할 수는 없을까?"

나와 같은 고민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마음꽃〉에서 만나보세요.



* 사찰이나 학교 · 도서관에 기증되는 마음꽃은 구독료를 받지 않습니다. *

정기구독 안내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31)470-3180 / 010-5650-3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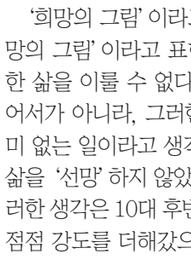
정기 구독료 :
30,000원 (1년 / 12권)

입금 계좌 :
농협 356-0822-8773-23
(예금주 : 권나래)

정언명법, 도덕 원리에 대한 능동적 명령

불교로 읽는 古典

서양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순수이성비판〉



최인숙
동국대 철학과 교수

이 글의 목표는 서양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주요 저서를 불교와의 관계에서 바라보는 데 있다. 그런데 칸트의 책 속의 내용만을 여기에서 서술하는 것으로는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기에 불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철학에 입문했으며, 왜 하필이면 칸트를 공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더불어 서술하고자 한다.

철학에 대한 나의 관심은 청소년기부터 시작되었다. 중학교 초반부터 나는 심정에서 뿐 아니라 생각에서도 우울했던 것 같다. 생각이 우울하다는 말은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겠다든지 또는 앞으로 좋은 직업을 택해서 사회적 지위에서나 경제적으로나 멋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든지 하는 선망의 그림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희망의 그림' 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선망의 그림' 이라고 표현한 것은, 내가 그러한 삶을 이룰 수 없다는 절망감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삶 자체가 전혀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선망'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생각은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까지 점점 강도를 더해갔으며, 밑바탕의 생각으로 보자면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지지하고 있는 '역설적 힘' 이기도 하다. 나는 인간의 삶에 대해 극도의 허무주의적 관점에 서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열정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 나는 나의 삶을 살아내기가 어려웠고, 그러한 과정에서 철학은 나의 열정의 목표가 되었다. 나의 삶의 끈을 지탱케 해 줄 최소한의 유혹의 근거를 철학에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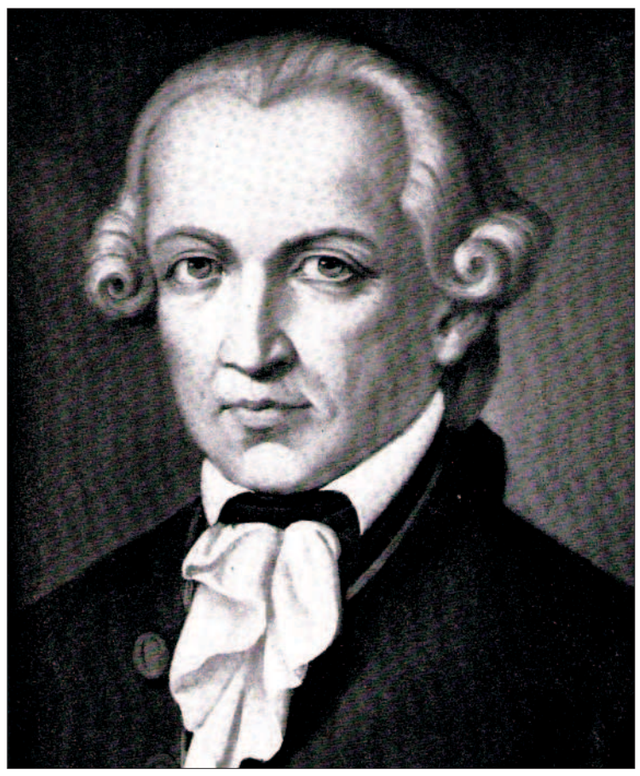
내가 칸트철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는 일면 계산적인 것이었다. 대학 졸업식 날, 나는 친지들로부터 받은 돈을 갖고 바로 소피아서점(당시에 독일어로 쓰인 책을 파는 서점으로서 명동에 있었다)으로 달려가 칸트의 〈순수이성비판(Kritik der reinen Vernunft, Felix Meiner 출판사)〉를 샀으며 지금도 이 책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을 독해하기에 나의 독일어 실력은 턱없이 못 미쳤다. 앞에서부터 몇 쪽 읽다가 중단하기를 몇 번이었다. 독일어 실력은 물론 점점 향상되었지만,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을 이해하기에는 독일 도착 이후에도 여전히 미진했다. 칸트철학을 전공하겠다는 생각은 독일에 가기 전 훨씬 이전에 정해졌다. 왜 칸트?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이니까! 단지 그런 생각에서? 조금 자세히 말해보자면, 나는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칸트의 책들이 다른 책들보다 어려울 것이지만, 이왕 독일에서 공부한다면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하는 철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독일에서 철학 공부했다는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독일 마인츠 대학교에서 공부하기 시작한 이후 나는 철학 전공에서 칸트 내지 칸트 관련 수업에 가장 많이 참여했다. 나의 지도교수 또한 칸트 연구자 J. Kopper로서 매우 유명한 편에 속하는 학자였는데, 나는 그의 수업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참여했던 것 같다. 칸트 공부를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점점 '칸트주의자' 가 되었다. '칸트주의자' 가 되어가면서 나는 자연 및 존재를 칸트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 내가 자연 및 존재에 관해 '칸트주의자' 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칸트는 그 이전의 철학자들에서 매우 중요한 '실체' 개념에 대해 반론함으로써 자신의 철학을 세운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현상' 뿐이다. 현상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단지 우리의 표상이다. 자연에 관해 우리가 아무리 철저한 지식을 추구한다고 해도 우리는 자신의 표상을 통해 인식할 뿐이며, 우리의 표상은 사물 자체와 직접적 연결 끈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표상들 사이의 연결 관계에 대해 인식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표상들 사이의 연결 관계에 대한 인식일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필연적이고 선험적인 인식이 될 수 있는가? 이 물음은 나아가 지식의 보편성 및 객관성에도 관련한다.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멀리 나아가도 결국 우리의 표상들의 연결 관계에 그치지만 이 연결 관계는 우리의 선험적인 인식 구조에 의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표상들의 지식은 결코 임의적, 우연적 지식의 모음이 아니라고 칸트는 논한다. 그리고 우리의 선험적 인식 구조는 공간과 시간이라는 감성 형식과 12개의 범주로 표현되는 사고 형식을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식은 결국 주관적인 것에 불과한가? 주관의 형식이 아무리 선험적이고 필연적이라고 해도 이 형식이 사물 자체, 대상 자체에 직접 관계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많은 이들은 이미 〈순수이성비판〉이 출판된 직후부터 이러한 문제 제기를 했다. 그리고 칸트 자신은 그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제2판의 〈순수이성비판〉에서 특히 '관념론 반박' 이라는 부분에서 반론을 펼치고 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이미 제1판에서부터 우리의 인식의 형식이 어떻게 선험적, 필연적, 보편적, 객관적 인식을 가능케 하는가를 논증하는 것은 칸트 자신의 주요 목표였다.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 ~ 1804)의 모습. 비판 철학의 창시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칸트는 대표 저서 〈순수이성비판〉에서 종래의 인식론과 형이상학에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인식의 성립 문제와 참된 의식, 그리고 인간 인식의 한계를 논한다.

칸트는 실체 개념에 대해 반론
현상은 사물 아닌 우리의 표상

연기적 존재 인간은 '도덕법칙' 을
스스로에 명령 · 준수할 의무 있어
"철학, 인생을 능동적으로 살게 해"

칸트가 자신의 철학을 정립하는 시기 이후 칸트는 전통적 서양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실체 개념을 중심으로 한 형이상학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이 다른 길은 특히 〈순수이성비판〉에서 정립된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1781)의 머리말에서 미래에 새로운 형이상학, 즉 '자연형이상학' 을 정립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목표는 '거의'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 및 존재에 대한 칸트의 철학 외에 나는 칸트의 도덕철학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우리는 자신이 절대적인 도덕법칙을 지닌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한, 사실 '우리는 왜 도덕을 지켜야 하는가' 에 대해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다. 칸트가 '절대적 도덕법칙' 이라 할 때 이것은 절대적, 신적 존재에 해당하는 말이 아니다. 인간 각자가 자신을 절대적 도덕법칙을 지닌 존재로 받아들이면서, 스스로에게 언제나 '절대적 도덕법칙' 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며 살아야 하는 의무를 지니며 살아야 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다.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남들도 모두 절대적 도덕적 존재로 인정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다른 이들을 우리는 인간 자체, 절대적 목적 자체로 대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자신에도 해당한다. 사실, 우리는 자기 자신도 수단으로 삼는 경우도 허다하다. 칸트는 나 자신이나 남들 모두를 오로지 목적 자체로 대하는 것이 도덕법칙에 타당한 태도로 보았다. 이것은 오늘날도 전적으로 타당하다. 이 세상에 남들의 수단으로 살고 싶은 이가 있는가? 그렇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부모 자식 사이, 친구 사이, 또는 연인 사이에도 인간을 인간 자체로서보다는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가 남들에 의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커다란 배반감을 느끼게 된다.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타자를 수단으로 삼은 데서 기인하며, 남들을 인간 자체로서 존중하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 칸트는 〈도덕형이상학 정초〉(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1785)와 〈실천이성비판〉(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1788)을 통해서 자신의 도덕철학의 토대를 논하고 있다.

칸트의 도덕철학은 오늘날에도, 아니, 오늘날에 더욱 필요한 삶의 원리이다.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근거로 이것이 도덕원리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가? 칸트의 도덕원리를 근본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우리가 비겁해서 또는 이기심이 앞서서 이 원리를 준수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 도덕원리가 되기 어렵다는 논리는 처음부터 어불성설이다.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준수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도덕원리의 '타당성' 문제와 전혀 무관하다. 우리는 우리사회의 실정법도 어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실상 자기의 손해만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위반의 사실이 밝혀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실정법도 수시로 어긴다. 칸트의 도덕법칙의 경우, 사람들이 이것을 준수하지 않는 비율이 훨씬 높을 뿐이다. 우리는 현실적 입법 체계로서의 실정법을 왜 만드는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이다. 칸트의 도덕법칙 또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것이다. 단지, 공리주의적 계산에 그치지 않고, 인간 '자체' 를 목적으로 하는 무한대의 바람직한 인간 사회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칸트의 도덕법칙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뿐이다.

나는 앞에서 독일 체류 5~6년 지나 칸트철학에서 '미진한' 점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것은 칸트 철학의 배경에는 여전히 절대적 신의 개념이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칸트의 도덕철학의 배경에는 신의 존재와의 유비관계에서 인간의 본성이 자리하고 있다. 비판기 이후의 칸트의 철학 체계 안에는 절대적 신의 존재가 적극적으로 위치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의 사고의 배경에서까지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었다. 칸트 자신이 살고 있던 전통적 기독교 사회의 배경을 완전히 떠나서는 칸트도 있을 수가 없다.

나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자연 '외에' 다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니, 나는 그것을 전혀 모른다. 자연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나는 칸트의 현상론을 받아들이되, 현상 '배후' 의 실체를 '가정' 및 '요청' 조차 하지 않는다. 현상이 처음이자 끝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칸트의 정언명법으로서의 도덕원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이 원리를 현대사회에 사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적용하지 않는 한 우리가 인간의 격(格)을 지니고 살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원리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요청' 할 뿐, 이 세계 외에 다른 존재는 전혀 '요청' 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고의 과정에서 나는 불교의 존재론과 칸트의 현상론, 그리고 불교의 도덕원리와 칸트의 도덕원리의 연결을 시도한다. 이 세계의 모든 존재는 인연의 존재이며, 어떠한 존재도 실체적 존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체 개념과의 관계에서는 칸트보다 불교의 존재론이 더 철저하다. 칸트 철학의 배경에는 실체, 물자체 개념이 남아 있지만, 불교에서는 근본적으로 실체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인연은 오로지 우리의 표상으로서, 우리의 현상으로서만 존재할 뿐 그 자체의 존재가 아니다. 불교의 도덕원리는 불교의 연기의 존재론에 따라 수미일관하게 생각할 수 있다. 연기의 논리는 모든 인간에 수평적으로 적용되는 이치이다. 어느 누구도 다른 이를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칸트의 정언명법으로서의 도덕원리를 현실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내가 매우 중시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현대 사회의 폭력과 패악을 제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불교의 연기의 존재론을 나는 근본적으로 수용하지만, 이것은 인간 사회의 실천적 행위의 변혁, 나아가 사회 변혁과의 관계에서 볼 때 자칫 수동적, 운명적인 것으로 곡해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연관에서 나는 칸트의 정언명법(定言命法)의 의미를 중시한다. '연기' 의 존재자로서의 인간이 함께 살아갈 도덕 원리를 우리 각자에게 시시각각 능동적으로 명령함으로서만 우리는 사회를 변혁할 수 있을 것이다. '변혁' 없이 '연기' 의 진리만 되뇌인다면 이것 또한 허무감, 좌절감, 절망감만 낳을 것이다. 자신의 이익의 크기를 키우는 욕망의 공부를 지양하고, 자기 자신뿐 아니라 현재의 사회를 '변혁' 할 것을 '연대' 하려는 '결단' 외에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는가?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해야 할 '필연적' 이유는 없다. 그렇지만 나는 이 세상에 생겨나와 현재 살고 있으며 숨이 멈출 때까지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내 주변에 살고 있다. 서로 간의 인연 관계에서 성립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특히 지식인의 의무이다. 이러한 생각의 과정에서 나는 칸트철학과 불교를 매우 '쓸모 있는' 사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지금은 이 양자를 종합하여 어떻게 하나의 '실질적' 이론으로 만드는가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다. 허무감에서 시작한 철학 공부가 현재까지 나의 삶의 '역설적 힘' 이 되었다. 철학은 단지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게 하는 데 능동적으로 작용하는 진정한 '힘' 이다.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현불샵 리뉴얼 기념 할인 행사
가격 ~~10만원~~ ⇨ 9만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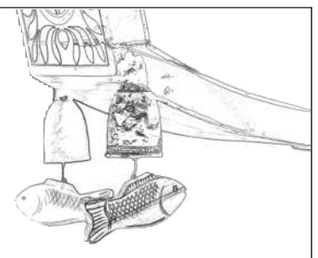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만약에 어떤 이가 부처님과 가르침에 의지하여 바른 길의 진리에 들어가 항상 선지식에 의지하여 따른다면 곧 이로부터 큰 원 (願)을 얻으리라.

- 사가매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 밀양)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삼일단기 교육생 모집
수맥탐사 이론실기
* 교육과정 이수 후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 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출가 희망자, 초보자 개인지도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 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백발백중 귀장술

쉽게 보는 회전원판
네이버 ·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특허 : 30-0721929
수강생 모집
010-8558-2345



영 통 철 학

(1개월 완성)
-바로 상담가능
-고승 비급전수
동국대 대학원졸(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사 찰 행 사

조상천도재, 49재,
각종점안식, 바라,
나비작법, 살풀이, 지전무,
극락연등무, 축원무 등
영남범음범패[통범소리]로
여법하게 집전해드립니다
010-3189-0602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남원)
063)635-2489
010-2245-177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수원지역)
010-5269-93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노보살님 원함)
02)917-336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구 청계사>
(50~60대)
010-3524-893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교문화시설 가입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수련문화원,
불교문화센터, 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장례식장 염불. 49재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금 50만원. 불전소유
장례시 염불은 20만원
독경할 스님 1분 초청
신분증, 주민등록사진
보증금 2천만원, 1년계약
070-8849-3011
사회적 상부상조 협업

각종비법 지도

재택수업 가능
사암, 포교원 종도등록
창종 14년
저서 100여권. 동방진인
각종 비서와 단자보급
02)907-5858

노후에 부처마을 불지사에 편안히 모십니다

노부부 10분정도,
소정의 보시금으로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031)332-9001
070-4128-7011
010-8736-7301
동선 합장

손빛 기치료. 의료기공사(묘심기공)

010-4611-1296
(역학강좌) 사주 및 역학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무료제공
010-8477-7952
다음카페 : 일묘심 약사선원
네이버카페 : 묘심기공
1호선 지하철 신설동역 11번 출구 직진 100m

지리산 산신봉 줄기 도량에 빈집 독채가 있습니다

그 곳에서 참선 수행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무보시 수행 공부하실
보살님을 함께 찾습니다)
055)883-7385
011-759-0183

천도재 20만원, 제사 20만원, 49재(77재) 140만원 천도 정성껏 올려 드립니다

010-8412-7623
문수암

특수기도법을 스님께 전수

• 구하는 것이 손에 잡힌다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명상 기초부터 지도자과정 안내

1 무료 명상 체험하기 (서울,광주,파주)
2 붓다의 가피명상 기본과정 & 지도자과정
3 태교명상 & 좋은 부모 되는 예술
4 가족세우기, 강력한 삶의 변화
성공 풍요,건강,관계개선, 최상의 깨달음 코스
니르바나 혜산스님 010-4114-6600

도법 : 사주비술 : 현공풍수 : 천신기 전수

역학을 가르치는 학원은 많은데 왜? 도사는 나오지 않는가 누구한테 배우면 금전과 시간낭비 스승을 만나는 것 쉽지 않다.
신명같이 운명 예측가능하면 초염력역학 풍수 도사가 되느니라.
■ 개강 : 2014년 9월 13일(토)(일) 주간, 야간반 13시 ~ 20시까지
■ 종합개인지도. 수시모집 (4개월 과정)
■ (1) 사주, 작명, 래정장자비술 (2) 현공풍수, 수맥, 명당찾는법
(3) 빙의, 영가천도, 기받는법, 치유법 (4) 전통활기법(통증, 난치병완쾌)
장소 : 서울 전철 2호선 구의역 4번출구 혜민병원 뒷길
약 400m 사거리 국민은행 가기전 24편의점 뒷집 대흥사
대흥사 : 02)447-3789. 010-6350-3789
* 도사나 도인이 되실 분, 배우러 오시라요.

산새가 울고 물 좋고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 수정사에서 암투병 환자와 요양이 필요하신 분을 모십니다

제사한 사항은
031)333-5014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수 정 사

불심이 깊은 독신자 60대 주지 보살을 모십니다

(경북 울진)
011-9571-6559

천비록 天秘錄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리브로, 알라딘, 예스24 등)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 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사고 없는 軍 생활

군 입대 병사, 부모, 장교, 부대장
특별상담과 기도
- 부모님의 역할, 자녀들의 교육문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건전한 군복무
010-6789-5008
꿈바위불교교육원

강원도 바다가 보이는 조그마한 암자에서 같이하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2650-5852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안양, 50대)
여법하게 염불하실 분
031)471-6675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영 가 찾 는 법 강 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마음을 치유하는 심 리 상 담 사

자격취득안내 (국가등록자격 08-0538)
미술심리상담사 / 아동심리상담사
온라인동영상 120강좌(교재 9권) 제공
www.koredu.ac
한국심리상담교육원 ☎ 02)766-9400

모 십 니 다

부산, 대구, 대전, 수원, 인천 지역에 연고나
포교와 수행에 뜻이 있는
스님으로써 21세기에 걸맞는 대중포교에
큰 뜻이 계신 스님을 모시고자 하옵니다
* 모시는 나이 : 50세이상 60세까지
상담전화 02)552-4000

"이 게 정말 가능해?" '자아실현교실' 개강 안내

강호 현인, 기사, 이인께 알립니다.

저 고복자 효사는 지난 15년 전부터 '육임강의록' 등 육임학습서와 '육임래정비법' 등 육임활용서를 많이 써내 여러분의 호응을 받아왔고, 이를 '효사활인천역집 Ⅰ · Ⅱ · Ⅲ' '효사비결' 등 육임CD 프로그램으로도 개발해 더 큰 애호를 받아오던 중 지난 2012년에 이르러 '미국동양학대학교' (고교미필자 · 대학입학인증/학사/학사단축/석사/석박통합/박사과정)를 설립해 한국, 중국, 독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번 교육당국으로부터 제가 편집인으로 있는 인터넷신문방송 진실보도 만인보 부설로 평생교육원을 인가받아 오는 9월 1일부터 '자아실현교실' 을 열고, 아래 내용의 육임술을 단기간에 '진검승부적' 으로 인도해 드릴 작정입니다.

학(學)이 아닌 술(術)은 오래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래 육임항목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시면 육임술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3개월에 그 진수를 충분히 인도해드릴 것이며, 여러분은 이를 매우 익숙하게 쓰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십시오!

오셔서, 육임의 진수를 얻어 가십시오!
더도 덜도 아닌 3개월입니다!

수강신청 과목

1 육임귀신술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귀신을 보는곳
나. 작사귀와 병 귀 구별법
다. 해소시킬 개소 및 물건 지적, 또는 해소 가능여부와 수법 효과여부 판단법
라. 불제 등 제거 방법(부적/제례) 실기 시범 등

2 육임사주감정술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육임가정법으로 일생의 대별 즉각 판단술
나. 육임천장법으로 일생 행로 즉각 판단술
다. 육임기궁법으로 일생 초, 중, 말년의 복분과 육친관계 즉각 판단술
라. 육임공망법으로 일생 운명 및 육친 기복여부 즉각 판단술 등

3 육임풍수 묘지속판단술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이 묘지에 물이 찼는가? 뱀 구덩이인가? 뼈가 뒤집어져 있는가? 없어져 버렸는가? 등
나. 이 묘지가 자손에게 어떤 탈을 부리는가? 무슨 이로움을 주는 가?
다. 이 묘지의 1대, 2대, 3대, 4대, 5대의 생업과 흥망성쇠 및 그 연유는?
라. 이 묘지의 육친은 조, 부, 모 형제자매 누구며, 이장을 해야 하나? 화장을 해야 하나? 그대로 두어야 하나?
마. 육임 명당술 및 후손의 천부적 직업 교시술 등

4 육임주식매매적기(滴期)술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언제, 어떤 종목의 주식을 얼만 큼 사면 이익이 될 것인가?
나. 지금 팔까? 언제까지 갖고 있을까? 최고로 오르내릴 시기는 언제인가? 등

5 육임부동산매매시기(時期)술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내 집, 내 땅이 언제 팔릴까?
나. 지금 파는 것이 이익인가? 더 갖고 있으면 오를 것인가?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하나? 등

6 경매, 낙찰 성공술 :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이번 경매낙찰에 성공하겠는가? 실패하겠는가?
나. 낙찰 경매에 성공할 금액은 얼마인가?
다. 현장에 누구(띠)를 지정해 보내야 할 것인가? 직접 참여해야 하겠는가? 등

7 위 전체과목 수강은 200만원 입니다.

8 신청 절차
검색창 미국동양학대학교 검색 / 첫 창 우측 상단 '평생교육원' 클릭 등록
입금계좌 : 외환은행 630-008387-338 미국동양학대학교
9월 1일 저녁 위 해당과목부터 개강 함.

단, 자기 자신의 방향성에 고민하는 분, 또 치열하게 습득하실 분들만 오십시오.
저와 이내각 박사께서는 위 내용에 한해서만큼은 여러분을 '프로'로
인도해 드릴 것을 자신 있게 약속 드립니다.

강사 : 육임가 고복자 효사
☎ 02)738-8680
만인보 부설 평생교육원 '자아실현교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7길 33 미국동양학대학교 1층 강당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잘 길들인 말처럼 모든 감각이 잔잔하고 자만과
번뇌를 끊어 버린 사람은 신들까지도 그를 부러워한다"

- 법구경 -

사 찰 안 내

지하철 1분거리내 사찰
- 위치 : 부산
- 총부지 : 207평
- 건평 : 100평 법당,요사채,방7개
- 땅일부 상업지
- 3억 3천인수 (은행 : 3억)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사 찰
- 위치 : 부산 금정구 • 대지 : 1,000평
- 건물 : 법당, 용왕당, 노상부처님 요사채, 방6개.. 주차장
- 몽땅 : 1억 7천(스님 사정으로..)

※필히 방문 상담, 전화상담요
※ 전국 사찰 30년 역사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17번길(만덕동 다산타워505호)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직통 051) 863-6622

사찰(급)안내

- 경주시 폭포 사찰 양도
- 단청법당36㎡. 삼성각29㎡
- 요사채90㎡.지장전.토지6,400㎡
- 전통있고주변폭포와 청정계곡사찰
- 양도금액 : 12억5천원(융자있음)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청학동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계곡접 해발 700미터)
- 대지 1,815평, 부지조성 완료, 정동향
- 법당 목조 30평, 산신각 목조7평, 요사채 25평, 창고 1동, 해우소 1동
- 심야전기 및 전기판넬사용.
- 노인복지, 요양원, 연수원, 선원등 최적임
- 가액 : 13억. 경전 봉안 불사중

010-3403-3355

초대형사찰부지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황매산 합천댐인근 해발 400m 남향
- 임야 52,000평(실사용평수 2만평이상)
- 기암괴석, 자연석 기도처 돌산 이동가능한 일급자연석
- 수백억원 가치 용바위,거북바위, 입석바위 등 기암괴석 다양
- 도로 전기 수도, 순환산책로 공사완료
- 노인복지,연수원,요양원,선원,기도처
- 관광사찰 최적장소 울산함양고속도로 개통시 합천호 IC에서 5분거리 위치
- 가액:평당7만원 답사상담후 절충가능

010-8677-093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창 산세수려하고 소나무 경관 멋진도량
- 지적 4,460평 종교부지 838평, 전 70평
- 법당 30평(조립식) 산신각 9평(목조) 구들방 1개, 요사채 22평 외 토목공사
- 가액 : 2억8천

010-8484-3917
010-2757-2342

광진 불사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위치 : 대전
◎ 부지 : 300평 ◎ 부지 : 60평
◎ 인법당 : 3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차량진입, 공원지역
◎ 양도가 : 6억원 ◎ 양도가 : 3억 5천만원

※ 40년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운영,구하는사찰 있습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 받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 김용각)
010-4586-4525

<전국사찰수백건보유.방문접수비밀보장>

*포천시 전망좋은 사찰양도
*건물 3동 340㎡ 법당, 요사, 공양간
*토지 2200㎡.산속이며 조용한 사찰
*양도금액 : 5억원(융자가능함) 실인수가 3억원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108호(대표: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 주안 가정법원 등기소 전철역 아파트단지 전통시장 대형마트 카페거리 1분에서 10분거리 위치
- 시설 : 단독 2층
- 대지 : 건평50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원목 조각)
- 가액 : 3억 8천(조정가능)

010-8941-1484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 건평 40평(도심속 한옥사찰)
- 시설최고, 15년째 법회 봉행중
-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 가액 : 9천만원(보) /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5278-662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사찰
- 대지 300여평, 법당 목조, 천불전(목조), 삼성각, 요사채 2동
- 텃밭있고 전망 좋음
- 250년된 사찰
- 가액 : 15억

010-8625-1225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큰 도로변 2층 약 60평
-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큰 공양간, 큰방 1, 작은방 2, 욕실
- 시설환경, 위치 특 A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5173-3355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광덕면
- 대지 156평, 법당 1동, 요사 2동 심야전기 2,
- 삼존불, 소불, 108불, 신중칠성탱화, 집기일체양도
- 가액 : 일억삼천만원

010-8900-4874

토굴월세/사찰전세

- 위치: 대구 주택가
- 토굴 54평
- 법당, 공양간, 방3개
- 가액:보증금 500만원 월10만원 시설비 300만원
- 도심의 사찰 전세도 구합니다

010-2168-280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지하철역 3분
- 2층 상가 60평 (법당 30평, 주택 30평)
- 앞 뒤 베란다, 도시가스, 주차장
- 가액 : 전세 7,000만(월세가능) 생활편리
- 시설비 : 1) 600만 2)1,800만중 택일

010-9342-9794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 원주시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도심권 사찰입니다 (상담) (영월, 시골집 무상으로 쓰실 분)
- 평창군 한탄리 산아래
- 주택 대 360평, 건평 25평 조립식
- 가액 : 1억 1,500만원

010-3288-1317

포교원(급)안내

- 강원도 동해시 시청 옆상가 2층 독채
- 상가평수 50평(등기평수보다 넓음)
- 보증금 : 2천만원, 월세66만원 (부가세 관리비 포함) 시설비 : 1천5백만원
- 법당, 삼성각, 공양간 완비 방2개, 화장실 겸 샤워장 2개
- 즉시법회 가능합니다 (소승 건강상 급 양도)

010-9018-6656

(신축)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용주면
- 면적 : 413평 (계곡물 사철 흐름)
- 법당 : 25평(동남간, 목조, 기와)
- 사채 : 25평 (방2, 화장실2, 컨 1동)
- 가액 : 융자 3천안고, 2억 2500만원

010-8517-8526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목포시 유달산 공원내 1등 바위 밑
- 법당 (대웅전), 요사채, 창고
- 문화재 - 조선중기 석불 1점, 집샘 1점, 주차장에서 5분거리(바로 법회 가능)
- 점유부지 400평
- 전망최고, 대형 우물샘 있음
- 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2억 5천만원

010-2644-040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 유곡면
- 대지 : 약 800평, 임야 : 2,300평
- 대웅전 20평, 산신각 7평, 용왕전, 요사채 50평
- 가액 : 2억 9천

010-9395-6675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신림동
- 3층 건물 중 2층
- 석가모니, 관음, 지장, 삼존불과 후불 및 신중탱화
- 봉안지장보살 원불 297분
- 법당 외 방 1, 주방 1, 화장실 1 약 30분, 도심속의 포교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77만원 시설비 2,700만원(답사후 절충 가능)

011-309-353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 청통 부근
- 마을지나 산을끼고 있는 아름다운 도량
- 법당 30평, 요사40평, 대지 465평
- 가액: 3억 5천만원

011-503-0517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읍 시장 입구 삼거리 카도 버스정류소 시장부근
- 장소 최적
- 3층 중 2층, 28평, 법당, 주방, 욕실, 창고, 삼존불, 소불 108불, 에어콘1
- 보살님, 법사님도 안성맞춤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 시설비 1천만원

010-4880-153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평시장 근처
- 약 100평, 삼존불 연등 300개, 방4개 법당용 부엌 공양간 따로 있음
- 창고 LED 등 일체 유동인구 많음
- 현재 비구니가 운영하고 있음
- 몸만 오셔도 됨
- 가액 : 보증금 1,000만 월 80만 시설비 3,500만

010-8754-6762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사찰로 좋은곳(한옥)

- 위치 : 홍천 → 양평 서울방향 4차선 6번국도 옆
- 대지 : 800평, 사유지 1,000평 사용중
- 건평 : 약 100평, 순수 고건축 한옥, 큰방1, 작은방2, 대형주방과 홀
- 가액 : 상담 후(절충가능)
- 카톡으로 사진 전송 가능

010-8841-3387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

붓다락키따 스님 (보리수선원장)

〈6 · 끝〉 위빠사나 수행법

늘 올바른 언행 상기하는 것이 '팔정도 수행'

위빠사나의 바른 알아차림

더 간략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싶다고 한다면 팔정도만 알면 됩니다. '아, 팔정도를 아는 것도 내가 좀 힘이 들고 어려울 것 같다. 더 간략하게 알고 싶다' 고 한다면 계(실라) · 정(사마디) · 지혜(빤냐)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계 · 정 · 혜를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사띠)입니다. 사띠가 없으면 계 · 정 · 혜가 드러나지 못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이 계 · 정 · 혜를 풀어놓은 것이 팔정도입니다.

수행하는 몸이 따로 있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몸과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말, 같은 생각, 행위를 하더라도 팔정도를 생각하여 올바른 말과 생각, 행위를 하도록 잊어버리지 말고 자꾸 상기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올바른 쪽으로 가도록 변모시킬 것입니다. 팔정도는 가장 큰 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바른 힘으로써 부처님께서도 신통력이 아니라 올바른 힘을 성취하였으며 지금까지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올바른 수행의 힘을 부처님이 열어 보이셨고 그 제자들이 증명했습니다. 그 길은 부처님, 스님, 부모, 자식 누구라도 대신 가 줄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 스스로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떳떳하게 가야 할 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신심, 바르게 살고자 하는 노력과 바른 생각으로. 바른 알아차림을 지녔을 때 부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똑같이 걷게 될 것입니다.

자세

위빠사나는 가장 높은 팔선정 수행을 통해서도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던 부처님께서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뒤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친 수행법이다. 현재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등 테라와다 불교권에 그 바른 법이 잘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종교, 문화, 인종에 상관없이 수행하여 사회와 생활에서 큰 이익을 얻고 있다.

위빠사나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분명히 일어나는 대상을 주의 깊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이며 특정 자세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일상의 모든 것이 수행의 대상이 되기에 언제 어디서나 편안히 수행할 수 있고, 수행의 이익을 곧바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수행법이다.

– 좌선: 편안히 앉은 자세로 몸과 마음의 분명한 변화를 알아차리는 집중을 높이는 좋은 자세
– 경행: 일정한 거리를 왕복하여 걸으면서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며 노력을 키우는 좋은 자세
– 일상수행: 식사, 양치질, 설거지 등의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면서도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며 수행할 수 있는 자세

① 좌선

호흡은 자연스럽게 한다. 몸이 요구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른 상태에서 두드러지고 분명한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배의 팽창, 수축을 있는 그대로 주의를 기울여 지켜보고 주시한다. 이때 너무 긴장하거나 힘이 들어가면 자연스러운 팽창–수축의 과정을 보지 못한다.

마치 다른 사람의 몸을 보듯이 배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면 팽창–수축이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이 똑같지 않음도 알게 된다. 이때 배의 모양이나 형태를 머릿속에서 그리거나 상상하지 않으며 명칭개념에 대한 생각이 있어도 안 된다. 다만 팽창과 수축할 때의 움직임과 그에 따른 감각과 느낌을 주시한다.

마음이 대상에 계속 머물면 팽창–수축의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알게 되며 마음의 고요함과 함께 팽창, 수축이 바늘 끝처럼 뾰족하고 팥죽이 끓듯이 방울져 끓는 것을 알게 된다. 대상과 그것을 아는 마음이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아는 힘이 강하면 움직이는 것과 그것을 아는 마음이 각각 따로 분리된 것을 알게 된다.

▶ 배의 움직임(팽창과 수축)은 왜 생기는가?

물질인 몸은 생명이 있어야 움직이고, 생명이 있고자 할 때 호흡을 원하게 된다. 숨은 몸의 상태와 산소로써 존재한다. 숨 쉰다는 것은 몸의 살아있음을 뜻하며 만약 호흡이 없거나 결핍되면 몸은 시체와 질병을 가져올 것이며, 그럴 때 배의 팽창과 수축도 없을 것이다. 또한 인위적으로 호흡하면 몸과 호흡의 관계성을 모르게 된다. 호흡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호흡의 의존적 관계성으로 내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 그 때문에 객관적으로 스스로 움직이는 배를 관찰하여 자연적 성품을 알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배를 관찰하는 이유?

좌선 시 배(숨)가 불러오고 꺼지는 것에 주시하는 것은 몸의 다른 부분보다 복부의 움직임이 거칠고, 강한 느낌이 있고, 두드러지고, 죽기 전까지 반복적인 움직임을 되풀이하기 에 쉽게 마음을 집중시킬 수 있으며, 코 부분보다 배는 깊은 호흡을 유도하기에 상기됨이 없고, 쉽게 마음을 집중시킬 수 있으며 코보다 현상 변화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좌선 시 배, 코를 관찰하는 것은 호흡의 원리나 호흡을 통해 무엇을 얻기 위해 그곳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인 바람의 요소를 알아차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 팽창과 수축을 어떻게 아는가?

움직임에 따른 느낌으로 알게 된다. 숨이 들어가면 뱃속에서 배를 밀게 되고, 숨을 토하게 되면 밀렸던 배가 다시 움츠러들 것이다. 이렇게 배의 팽창과 수축 시 움직임을 알게 해주는 감각과 느낌에 주시하는 것이다.

이때 배의 모양, 형태를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배 속에서 밀어주고 당기는 움직임에 따른 감각과 느낌이 있기에 그 느낌으로 알게 된다. 오직 느낌으로써만 팽창과 수축을 알게되며 느낌이 없으면 팽창과 수축이란 것을 알지를 못한다.



수행하는 몸, 일상생활을 하는 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우리는 올바른 말과 생각, 행위를 하도록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위빠사나는 특정자세에 한정 않고
일상 모든 것 수행재료 삼을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수행 가능
바른 알아차림하면 누구나 부처돼

▶ 대상(팽창, 수축)과 그것을 아는 마음이 따로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노력, 알아차림사띠, 집중력(사마디)이 순일할 때 두 개가 각각 따로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상과 아는 마음이 쌍으로 함께 작용하지만 대상과 보는 힘이 강하면, 움직이는 것과 아는 것이 서로 따로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이 마음이다.

② 경행

좌선하기 전에 경행을 먼저 한다. 좌선할 때의 배의 움직임보다 발의 움직임은 더욱 강하고 두드러지기 때문에 좋은 대상이 된다. 행선 시에는 발이 움직일 때 그 움직임에 예리한 알아차림을 두어야 한다. 움직일 때 다리의 모양과 형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에 따른 감각과 느낌을 알아야 한다.

일직선 거리가 실내에선 약 20~25 보폭의 거리면 좋고, 실외에선 약 30 보폭의 거리가 좋다. 반드시 일직선의 단순 한 거리를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걷는 움직임에 마음을 두도록 한다.
– 발(마음), 아는 것(마음) 각각의 고요한 특성을 알라.
– 발(마음), 아는 것(마음)을 구분하라.
– 빠르게 변하고, 불만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라.

③ 일상생활 수행

언제 어디서나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자세이다. 전화 받을 때, 양치질할 때, 세수할 때, 음식을 씹을 때, 보고 들을 때, 말할 때,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문을 여닫을 때 등 어떠한 일상의 움직임을 할 때에도 위빠사나 수행을 할 수 있다. 또한 성냄, 불만족, 성급함, 산만, 두려움, 불안, 탐욕 등의 마음 상태도 위빠사나 수행의 좋은 대상이다.

수행자가 지킬 의무사항

– 많은 정진, 불방일을 통해 굳은 결정심을 가져라. (선정과 지혜를 얻지 못해도 실망하지 마라)
– 적게 하라 : 말, 잠, 먹는 것, 분주한 일, 보는 것, 듣는 것 등, 즉 6문을 단속하라
– 많이 하라 : sati, 베풂, 자애, 동정, 계
– 모든 행동을 끊임없이 알아차림 하라. (한 과정을 완전히 알 것) →정진력이 좋아진다.
– 마음집중과 분명한 앎에 이르도록 하라. (예리하게, 정확하게, 철저하게, 처음과 끝까지 관찰하라)

수행방법

1. 집중과 지혜의 방법을 구분해야 한다.
2. 무엇이 물질이고 정신인지 구분해야 한다.
3. 물질과 마음은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4. 하나의 대상은 언제나 있어야 한다.(몸, 느낌, 마음, 법 중 하나는 언제나 지금 있다. 지금 있는 것만 대상으로 취하라.)
5. 바라거나 원하거나 특정한 상태, 정신 계발(집중 · 지혜)를 위한 원함에 이끌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대상을 구분해서 관찰하라. 몸과 마음(대상과 아는 마음), 여러 대상을 동시에 하지 말고, 지금의 대상과 구분해 알아야 한다.
7. 지금 무얼 하고 있나? 를 놓치지 않고 한다.(움직이기 전 왜 움직이려는지 알아라.)
8.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9.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일상생활을 이용하라.)
10. 불필요한 것은 적게 하고, 필요한 것은 많이 한다.
11. 수행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지금 편한 만큼(게으름, 불선업)나중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12. 빛, 희열, 집중 같은 상태를 기대하거나 얻기 위해 잘못된 노력을 하지 마라.(집착의 대상이 된다.)
13. 있는 그대로, 지금을 이해해야 한다.
14. 업과 업보에 대해 확신하라.
15. 사념처가 닙바나(열반)로 가는 단 하나의 길임을 명심하라

세 가지 특성에 대한 수행

▶ 아닛짜(조건 지어진 것,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매우 빠르고 쉽게 변함)를 알지 못하는 것은: 연속성이 원인이다.

개개의 움직임은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사라짐을 거듭한다. 이 변화를 알지 못하기에, 지속하지 못함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

▶둑카(불만족에 따른 괴로움)를 모르는 것은: 몸이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몸을 주시하지 않았기에(왜 움직이는지 모르기에) → 몸과 마음의 상태가 고통이고 이것이 항상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함→ 이런 실재를 모를 때 잘못된 견해가 일어남→ 몸에 대한 이해부족과 마음의 상태를 모르기에 그것들이 좋고 행복을 가져온다고 착각함 → 고통을 피하거나, 감추고자 함 → 즐거움, 행복에 대한 갈애(욕망)가 일어나고 일어난 것이 채워지지 않아 더욱 복잡해지게 된다.

▶ 아낫따(고정불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를 모르는 것: 몸과 마음을 '나' 로 보기 때문이다.

대충 인식하기에 몸과 마음은 영원하고, 견고하고, 실재라는 견해를 갖게 됨으로써 몸과 마음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란 개념에 빠짐(5온은 좋은 것).
– 아낫따(무아)는 불교만이 가르치는 중요한 핵심이다. (불선을 행하지 말고 선함을 행해, 마음을 정화하라 →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다.)
– 다른 종교: 절대자, 신, 영원, 불멸, 신성함에 의지하라. 그러나 불교는 이러함에 긍정하지 않는다.
– 5온의 특성을 알지 못하고 5온이 분리된 것을 모르기에 아낫따를 모르게 됨→ '영원' , '나' , '자아' 가 있다고 착각과 왜곡됨이 일어남→ 영원, 자아가 욕망, 집착, 갈애를 일으키는 정신적 요인이며 원인이다.

정리=이나은 기자

이 글은 붓다락키따 스님이 법문한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보리수선원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보문사
• 주 지 : 연화심(박연이)
• 주 소 : 부산시 강서구 천성동 산6-1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1일

대한불교 삼보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옥문관 사주학과
운명상담학!
※ 스님 법사님 포교사님께 특별 할인!
1부) 신강 신약론과 격국론 용신론 신살론을 뿌리채 뒤엎은 새로운 사주학!
10년 20년 30년을 용신타령이나하면서 공부한 명리학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 걸이식 통변을 뛰어넘은 사주학!
사주학은 통변에서 시작해서 통변에서 끝납니다.



2부) 사주상담의 전문적 소양을 갖추기위한 운명 상담학 이론과 실제가 소개됩니다.
2만원에 책을 보내드립니다.
송금하시고 전화나 문자 주시면 발송해드립니다.
010-2395-0472
우리은행 163-07-012656 최창현 (예금주)

갤러리 색즉시공



일물 (一物)

간절히 바라옵건대
여기에 '한 물건' 이 있으니
이것은 만법의 종원이라
그러므로 그것이 드러나면 일체중생이
복을 닦는 날이요
그것이 숨으면 삼세제불이 안심하는 곳이라.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
하하.
한 조각 맑은 바람이요
만고에 밝은 달이로다



그림·글 선진 스님

선진 스님은 … 1981 사미니계수지. 1986 운문사승가대학 대교과 졸업. 1986 비구니계수지. 현 대구 보현암 주지. 2002 법철 대화상 불복장 의식 전수. 대구미술발전위원. 영남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한국 민족예술인 총연합 대구지회 이사. 개인전 다수.

"아버지! 낯꽃이 환히 피었습니다"

이란보살의
인과이야기



돌아가신 아버지 평소 가르침들 살면 살수록 그 진가 알게 돼

나를 귀한 사람으로 키워주신 아버지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여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결혼시키고 부모를 여의는 과정을 통해 삶을 완성해 나가는 게 아닐까 싶다. 소매 끝에 답이 있다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세상에 나와 처음 만난 부처님이니, 부모자식간의 인연이란 얼마나 귀한 인연인가.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영향을 받은 분은 나의 아버지와 고등학교 때 은사님이다. 내 인생에서 아버지와 은사님의 존재는 삶의 부적처럼 든든하고 은혜롭다.

누군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서슴없이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대답하겠다. 아버지는 성품이 소탈하고 너그러우시며 자상하고 따뜻한 분이었다. 지금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별 탈 없이 살아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음덕으로 산다고 주위에서 말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는 추석만 되면 아이들 추석빔을 장만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더 솟아나곤 했다. 어렸을 적 신발, 양말, 옷 등을 골고루 사다주셨던 아버지 생각에 한참 동안은 마음이 뭉클해지곤 했다.

아버지는 늘 추석 앞에 청명한 날을 골라 문짝을 새로 바르고는 하셨다. 나는 지금도 가을 햇살 아래 드러났던 아버지의 조용하면서도 경쾌했던 몸가짐 하나하나가 선명히 떠오른다.

풀을 쑤어 체로 곱게 걸러 놓으시던 모습, 솔을 준비하여 종이를 다 떼어내고 문살의 먼지를 털던 모습, 질 좋은 문종이를 치수가 맞게 마름질하여 물살에 골고루 풀칠하여 똑바로 부치던 모습, 대접의 물을 입에 물고 고루고루 품으시던 모습, 양지쪽에 세워 말리고 어지간히 마르면 문풍지를 3~4센티미터 정도 여유를 두어 바르고 국화잎이나 단풍잎, 구절초 꽃잎을 붙여 덧바르던 모습.

요즘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옛 시절의 운치다. 그때는 분무기가 없어 어른들은 냉수로 입을 한번 헹구고 물 한 모금을 입에 물고 내품으시는 게 무척 신기했었다. 품어내는 물이 햇빛에 반사하여 무지개 같은 색깔이 어느 때 눈에 들어오면 그야말로 무지개다리를 건너는 소녀가 되어 나도 입에 물고 내품어 보았던 기억이 새롭다. 아버지께선 새로 도배한 벽에 이렇게 글을 써 붙이셨다. "1. 부모님 말씀 잘 들을 것 2. 선생님 말씀 잘 들을 것 3. 어른들께 인사 잘 할 것 4.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낼 것 5. 공부 잘 할 것

아침마다 아버지가 써놓으신 그 글을 학교 갈 때마다 읽어야 했다. 추석에 도배할 때 잠시 내려지는 것 말고는 일 년 열두 달 붙어있던 저 글을 읽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것이 일상교육이었다. 우리 형제 남매들은 이렇게 써서 붙인 글을 학교 갈 때 가방을 맨 채로 읽고는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집을 나섰다. 집을 들어오고 나갈 때 꼭 인사하는 버릇, 누구를 봐도 공손히 인사하는 버릇을 일찍 아버지께서 익혀주셨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아버지께서 평소에 해주신 말씀을 떠올려보면 지혜가 담긴 말씀이 많았다.

아버지의 말씀들은 살아가는 데 중요한 가치관이 되었고,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나의 아이들에게도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었다.

중학교 여름방학 때다. 친구 집에 토끼풀을 뜯으러 갔다가 너무 늦어 자게 되었다. 집에 전화도 없을 때여서 연락도 하지 못하고 친구 집에서 자게 되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기다릴 텐데," 하고 걱정하는 나는 교복을 입은 채로 벽에 기대지도 않고 밤을 반짝 새우고 다음 날 아침, 집에를 가니, 걱정하셨던 마음은 다 거두시고 "어이가, 밥 먹어라." 라는 말씀뿐이었다. 그 말씀에 그렇게 뜨거운 눈물이 났는데,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똑같이 눈물이 난다. 막내 동생이 아파서 보건소에 데리고 가느라고 "중간고사 성적이 12등 나왔다" 고 말씀드리자 "우리 딸이 일등 한 거나 마찬가지다. 동생 간호하느라고 애를 썼으니까." 라고 위로해주셨던 분이다. 나는 야단을 치는 것보다 격려하고 믿어주는 것이 얼마나 상대방을 감동시키는지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다.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신문을 찬찬히 읽으면서 세상과도 소통하고 좋은 글을 읽으면서 마음의 양식으로 삼고 있는데, 신문을 읽는 습관도 아버지의 영향이 크다. 아버지는 다 읽은 신문을 꼭 그날그날 철해놓으셨다. 동네 분들에게 부탁을 받고 무슨 글을 써주시게 되면 꼭 그 내용을 자상하게 말씀해주셨고, 한 번도 말씀을 거칠게 하신 적이 없다. 옛 어른들이 사람을 볼 때 신언서판(身言書判), 즉 몸가짐, 말씨, 글, 판단력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았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저 네 가지가 하나도 빠짐없이 훌륭하셨던 것으로 기억된다.

학교교육, 사회교육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기본 인성은 가정교육에서 만들어진다. 아버지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정교육의 기초를 튼튼히 해주신 분이다. 비가 오는 날이면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학교로 데리러 오셨던 기억, 더운 날엔 때때로 돈을 주시면서 "친구들 하고 아이스케키 사먹어라." 하셨던 기억도 잊을 수 없다.

결혼할 즈음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물으시고 나의 결혼을 결정해주셨다.

"사람은 너무 좋아도 안 되고 너무 싫어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몇 마디 얹어주셨다.

"집안에 손님이 오면 식사를 했다고 해도 쌀부터 씻어 앉히거라. 약주를 하시는 분이 오시면 상차리려고 시장에 간다고 지체하지 말고 간단한 음식이라도 빨리 해서 안주삼아 내놓아라. 아무리 상을 잘 차려도 약주를 좋아하시는 분은 약주가 최고대접이다. 그리고 손님이 가실 때는 약소하지만 꼭 차비를 드려야 한다. 남의 집을 방문할 때는 어른이 계시는가, 아이들이 어린 집인가를 살펴서 알맞게 인사 드려야 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렇게 세세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는지, 참 좋은 교육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든다. 아버지께서는 시집간 딸을 위해 송판으로 조그마한 앉은뱅이 책상을 만들어 위에 장판을 깔고 서랍까지 달아주셨다. 나는 그 책상에 앉아 붓글씨를 쓰고 책도 읽었다.

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험한 말은 하지 말고 둥근 말을 해라. 귀를 둥글게 열어 놓고 둥근 눈으로 세상을 보다 보면 둥근 삶을 살게 된다. 몸도 따뜻하게 앉고 바르게 앉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아이를 가졌으면 바른 생각, 앉은 자세, 걸음걸이, 식습관을 잘 해야 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밝은 면만 보여주고 가셨어요?" 하고 살짝 원망도 해보았다.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 운동회를 할 즈음 아버지가 다니러 오셨길래 작은 아이를 아버지께 맡기고 운동회에 다녀오니 어린 아이를 보는 게 얼마나 힘드셨는지 힘든 기색이 얼굴에 역력했는데, 아버진 내색을 전혀 하시지 않았던 것도 가슴에 아프게 남아 있다.

다음 날, 2층 베란다에서 "아버지~" 하고 어린애 마냥 손을 흔들어 배웅했던 순간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때 돌봐주었던 손자들이 이제는 자기 길을 가면서 사회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걸 볼 때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생각하곤 한다. 아버지는 언제나 웃는 얼굴이셔서 동네 분들께 '해보어른' 이라는 애칭을 얻었다. 어느 날 아버지께 물은 적이 있다.

"아버지, 사람들이 왜 아버지에게 해보어른이라고 해요?"

"그 말 이상 좋은 덕담이 없단다. 낯꽃이 좋다는 거지. 사람은 낯꽃이 좋아야 해,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이거든. 마음이 한결같으면 얼굴도 늘 웃음꽃이 피어있는 거지."

세월이 흘러 그 낯꽃의 의미를 알았다. 아버지의 낯꽃을 닮으려고 했고, 이제 아버지께 나의 낯꽃을 피워 보내드릴 차례다. 나의 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이 세상의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이시다. 세월이 흐를수록 자랑스러운 아버지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남은 세월 잘 살아서 아버지께 꼭 이렇게 전하고 싶다.

"아버지! 낯꽃이 환히 피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환히 피었습니다."

〈여여원 원장〉

천비록 (하늘·땅·사람의 비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天秘錄!"

도서 구입 문의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한 / 값 15,000원

이 책은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교보문고 / 영풍문고 / 반디앤루니스 / 알라딘 / 예스24 /
동원서적/경인문고/홍문당서점/계룡문고/처용서림/세원출판/춘양당서점/충장서림/홍지서림/영광도서/세기서림/탐라문고 등에서 절찬리 판매중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동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



삼보에 귀의하옵고,
안녕하십니까?
저희 근우테크는 현재 동종업계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 전동 농산업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근우테크의 제품 중 사찰에 꼭 필요한 전동 운반차를 안내 드립니다.
제수, 공양, 연등 등 운반과 설치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전동 운반차 이오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평지는 물론 경사진 길에서도 차체의 기울기 조절을 통해 200kg까지 거뜬하게 운반합니다.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자전거 운전만큼 간단합니다. 10분의 연습 후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자브레이크 장착으로 사고위험이 없습니다.
3. 저렴한 유지비!
한달 휴대전화 충전 요금이면 충분합니다.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연등 설치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무거운 물건 등을 차량에 상 · 하차 시 유용합니다.
5. 소음 걱정 끝~!
수명이 길고 힘이 좋은 99.9% 연납 베터리를 사용, 고요한 사찰 환경에 적합합니다.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근우테크㈜ KEUNWOO TECH Co., Ltd.
문의전화 : 010-4630-7903,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 공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대행 스님

낮으면 낮은대로 높으면 높은대로 각자다 으뜸입니다

여러분과 또 같이 한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더운 여름은 지나가고 가을로 접어드는군요. 우리 마음자리는 항상 사철이 따로 없듯이, 공부하는 데도 서로 도반으로서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정신계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리만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도 없거니와 벗어날 수도 없고, 한 생만 이렇게 곤고하게 사는 게 아니라 세세생생을 끝간 데 없이 그렇게 살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이렇게 공부해야만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극락세계나 지옥세계를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 현 세상에서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광대한 문제들, 그 묘한 문제들, 그 수라장 같은 세상, 우리가 모두 현실에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미생물에서부터 수없는 생명들이 짝을 짓죠. 그 모든 생명들이, 인간까지 말입니다. 부모가 됐다가 자식이 됐다가,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수억겁 광년을 거쳐서 이렇게 인간세계까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 미래 현재가 없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대치를 하나요? 찰나찰나 닥쳐오는 문제들, 찰나찰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모두 그런 거를 어떻게 대치를 해야만 되며, 수없는 광년 겁을 지나오면서 그 누적된 문제들,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면서 착을 버리지 못한 채, 또는 관습에 의해서 끄달리는 습이 그대로 남아서 누적돼서 돌아가는 이 모두를 어떻게 해야만이 대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모두 부처님 마음과 더불어 같이 아시고 계시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광대하고 어떻게 보면 도깨비장난 같고 어떻게 보면은 아수라장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묘한 이치에 다달아서 신비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합류화시켜서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며, 한 번 쳐다보고 웃고 한 번 내려다보고 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공부를 안 한다면은 세세생생에 끝간 데 없이 그렇게 굴러야만 합니다. 우리는 물주머니에서의 삶과 같습니다. 지금 바다 속 생명들이 물 속에서만이 살 수 있도록 돼 있듯이 또 물 속을 벗어나면은 죽듯이, 우리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기주머니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겁니다. 벗어나야 어떻게 해보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그렇게 수없이 찰나찰나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낳은 부모만 육의 부모가 아니고 수억겁을 돌아오면서, 걸어오면서 우리는 자식이 됐었고 부모가 됐었는데 어떻게 내 부모, 육의 부모 하나만이 내 부모라고 하겠습니까? 둘이 아니라는 도리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부모도 둘이 아니요, 자식도 둘이 아니요, 나 자체도 둘이 아니요. 모두가 일체가 다 공(空)했다. 즉 말하자면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공했다. 그대로 여여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여여한 줄을 안다면 이렇게 고생도 안 해요. 고생이라고 할 건 없지만 말입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듯이 '여여하다, 공했다.' 이런 뜻은 여러분이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가고 오는 거, 만나는 거 먹는 거 이런 것 모두가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공했고 그대로 여여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도리를 납득을 못하겠지마는 참나와 현재 나가 둘 아니게 통신이 된다면 그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각 사찰에서도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모든 조상들이나 자식들이 또 죽은 영혼들이나 우리 산 사람 마음들이 은은히 모두 이 도리를 알아야 되겠기에 말입니다. 또 알아야만 공덕이 되겠죠. 공덕이 안 되는 것은 내 정신계와 물질계가 합류화돼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공덕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합류화돼서 돌아간다면 공덕이 되죠. 즉 말하자면 공생、공심、공체、공용、공식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공용을 하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면 용무를 그대로 하고 있고, 작용을 하는 겁니다. 한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자기를 못났으면 못난 대로 못났다고 생각하고,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를 아예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무시하는가 하면 잘났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라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하나하나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법당에 여러분이 들어오게 되면 벌써 부처님이 여러 분 모셔져 있으면은 헛갈립니다. 이조 때에 스님네들을 탄압할 때에, 쌀 한 말만 갖다놓으면은 도저히 스님네들이 그걸 가지고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산중에 숨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신각, 칠성각 또 지장보살 신중당 모두 여러 분들을 해놓고 거기 쌀 한 말씩을 갖다 놔야만이 스님네들 대중이 다 먹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교 탄압을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개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법당에 들어오면 만불(萬佛)이 있다 할지라도, 일불(一佛)로 봐야 됩니다. 또 이것은 부처님 마음의 한생각에 의해서 이름이 주어진 겁니다. 지장 또는 아미타, 아촉 또는 미륵, 관세음 또 지신이나 주해신이나 주림신이나 모든 이름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 마음속에서 탄생한 천백억화신은 모습을 바꾸어가면서 천차만별의 여러분한테 다 천차만별의 모습으로 응신이 돼서 나투어 주신다고요. 그것도 과거가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현실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오신 것이 없기 때문에 가신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영원하고 끊임없이 생과 사가 둘이 아니게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상을 칠성불 모두 해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각 사찰에 가보시면은 여러 가지로 놓여 있죠? 여러 부처님들이 말입니다. 그런 데에 사람의 마음이 헛갈려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도 여기 앉아계시면은 천차만별로 모

☞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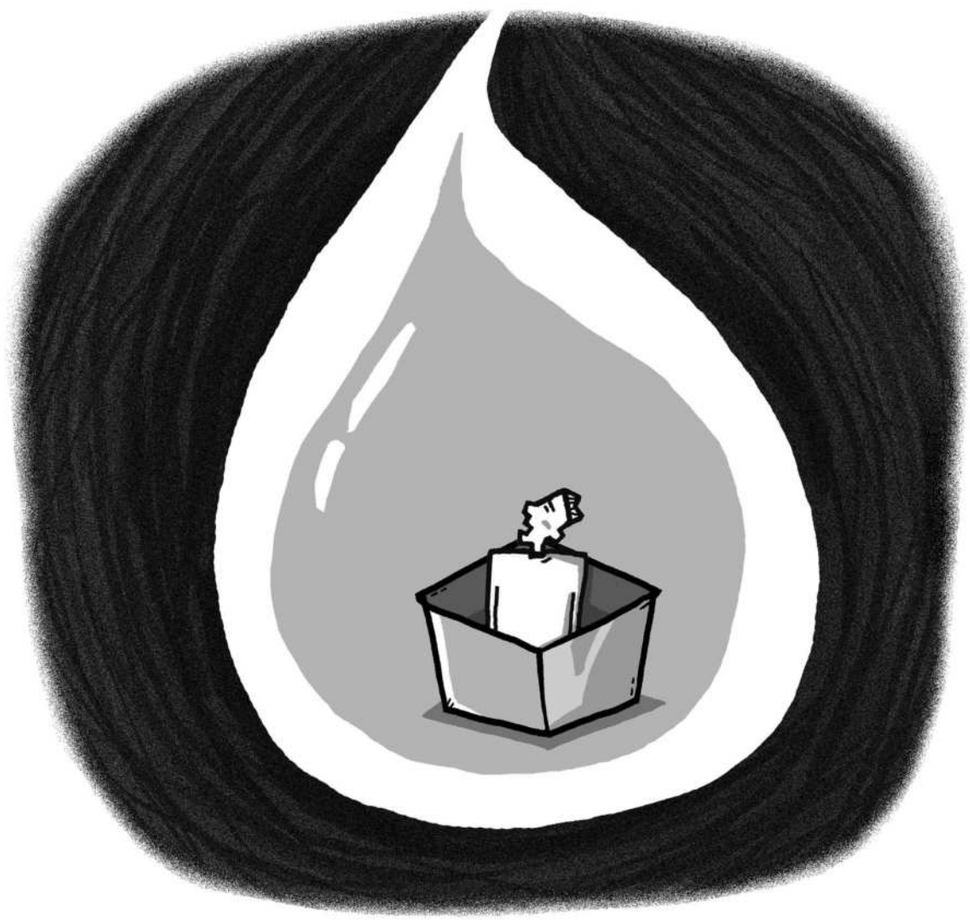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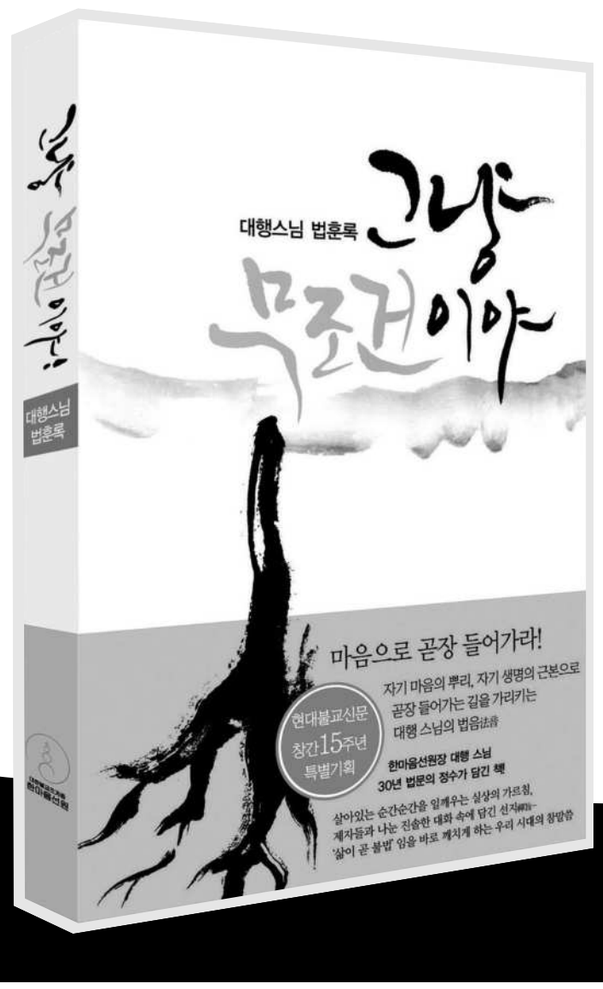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모든 건 에누리 없이 자기가 한 것만큼 돌아오는 겁니다

☞ 29면에서 계속

습이 다른 분들이 이렇게 같이 앉았죠? 그러나 모습은 다를지언정 어찌 마음이야 둘이겠느냐. 생명이야 둘이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부처님들이 그렇게 계실지언정 내 마음은 항상 부처님한테 가면은 부처님의 마음과 더불어 공했으니, 거기에다가 일배를 하든지 삼배를 하든지 칠정례(七頂禮)를 하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의 여유가 있는 대로, 급하면 급한 대로 일정례(一頂禮)를 하고 급하지 않으면 칠정례를 하고, 더 급하지 않으면은 삼천 번을 해도 좋습니다. 그건 자유죠. 자유스럽게 그렇게 여유가 있이 해야지, 만약에 마음이 급한데 이거를 꼭 삼천배를 하랬다고 하고 하지 말랬다고 하지 않고, 일배를 하란다고 일배를 하고 쓱 돌아서서 나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자기가 한 대로이니깐요. 에누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만큼 나한테 오는 거니깐요. 그렇다고 또 많이 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지 마세요. 삼천배가 한 생각만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도 한마음이요, 칠성한테 가도 한마음이요, 지장을 찾아도 한마음이요, 관세음을 찾아도 한마음이요, 산신을 찾아도 한마음이요, 해신을 찾아도 한마음이요, 주림신을 찾아도 한마음이요, 지신을 찾아도 한마음이요, 모두가 한마음이니 마음은 체가 없어서 찰나찰나 들고 나는 데에 손색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아버지가 됐다가 아내가 됐다가 또 형님이 됐다가 동생이 됐다가 사위가 됐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습은 한 모습인데 그렇게 가지각색으로 찰나찰나 나투면서 그대로 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자유자재하시고 그렇게 나투시는 분이니까 겉모습만 보지 마라 이런 겁니다. 스님네들을 보고도 겉모습, 이 고깃덩어리를 보지 말고 내 마음부터 알아야 그 마음을 알 수 있으니까 내 마음부터 아시라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부터 알라.'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거지 내가 없다면 상대가 없는 거라고 항시 말씀해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콩씨를 심어서 콩나무로 화했다면 콩씨를 어디 가 찾습니까? 네? 콩나무로 화했잖아요? 화한 콩나무가 여러분 몸이라고 볼 때에 콩나무에 콩씨가 또 붙었습니다. 그러면 콩나무에서 콩씨를 찾아야지 과거로 돌아가서 찾는다거나 미래로 돌아가서 찾는다거나 어디 두리번거리고 찾는다거나 이런다면은 그거는 정작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수박도 그 콩씨와 다름없는 얘깁니다. 수박도 이 수박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관하고 화두를 삼아서 이거를 굴리다가 보면은 그 속에 씨가 들었는지, 맛이 어떤지 그걸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죽고 사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겁납니까? 내일 죽은들 어떻고 오늘 죽은들 어떻고 모레 죽은들 어떻고 안 죽은들 어떻고, 뭐가 걱정입니까? 그냥 그대로 수박을 용기 있게 깨뜨려서 먹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합니다. 또 그냥 속성적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이 세상에 난 게 화두인데 그 화두에다가 또 화두를 붙여서 찾는다면은 얼마나 그게 미거한 짓

이 수박을 화두로 삼아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거를 굴리다 보면은
그 속에 씨가 들었는지,
맛이 어떤지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거,
그게 뭐가 그리 겁납니까?

입니까? 그래서 화두를 갖는다 하더라도 화두도 거기 놔야 됩니다. 화두 끊어질까봐 애를 쓰고 그런다면 10년 20년 가도 도저히 자기가 자기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도 공했기 때문에 찾을 게 없고 버릴 것도 없고 쥘 것도 없고 쥐지 않을 것도 없는 그런 공한, 바로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더불어 같이 먹고 있는, 이 내 육신 속의 생명들과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이 통 속을 벗어나야 하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처님을 각 사찰에 모셔놨든 신중당을 모셔놨든, 하다못해 돌을 모셔놨든 상관할 것 없어요. 모두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건 부처다, 부처가 아니다 하는 대로 가는 거니까요. 허허, 알고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만물만생이 다 내 스승 아님이 없고 감사하지 않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이렇게 각자 찾으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배를 타려고 뱃사공한테 가면 뱃사공이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뭐를 하나 물건을 사려고 공장에 갔다 한다면 공장 주인이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치과에 엊그저께 갔더니 정말 그 치과의 박사가 으뜸입디다, 네? 하하하. 그러니까 이게,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다 으뜸이에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벽을 치면 봇장이 울려야지!' 하는 그 말씀의 뜻을 모른다면은 백문선이 헛문선이죠. 그러니 내가 부탁할 것은 어느 법당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모두 일불(一佛)의 한생각으로써, 한마음으로써 부처님한테 지극하게 내 한마음과 일체제불의 한마음을 다 한꺼번에 해서 일배를 올린다면 천배 올린 것보다 수확이 좋다 이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처님한테 갔을 때에 어떻게 생각이 듭디까? '이 부처에도 놔야 하고 저 부처에도 놔야 하고, 요 부처에 놓지 않으면은 자식이 어떻게 될까? 요 부처에 놓지 않으면 영감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또 재수가 좋지 않으면 어쩌나? 또 삼재가 들었으니 언짢으면 어쩌나? 이러한 까닭에 없는 살림에 몇 푼 가지고 가서 요기도 놓고 저기도 놓고 놓으려면, 어떤 때는 모자라서 그냥 나오고, 그러면 마음이 께름칙해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인데, 한 부처님 앞에 그냥 고스란히 놓고 지극하고 정성스럽게 모두 거기 계신 분들을 한마음으로 모시면서 지극하게 하시고요, 없으면 지극하게 나오시고요. 또 있으면은 있는 대로 그 절에 다 놓더라도 한마음으로써 놓으시고, 또 웬만하면은 그 절의 주지스님을 찾아서 주지스님한테 "모두를 다 써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갖다놓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거기 갖다놓으나 산 부처님한테 갖다놓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여러분 마음먹기 달린 겁니다.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백만 원짜리를 사러 갔다면 백만 원을 꼭 줘야 삽니다. 오십 원짜리 사러 갔으면 오십 원짜리는 꼭 오십 원짜리를 줘야 합니다. 오십 원을 주면은 오십 원짜리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 그것은 돈을 스님한테 준 사이도 없고 부처님한테 갖다놓은 사이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또 가져간 사이도 없죠. 부처님이 준 사이도 없고 스님네들이 준 사이도 없죠. 그래서 준 사이도 없고 가져간 사이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정확합니다. 이 뜻을 잘 알아서 행하시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느 법당에 가보면 인등을 많이 켜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수억겁을 걸어오면서 부모가 됐다 자식이 되고 자식이 됐다 부모가 된 그 사실의 겁을 어떻게 대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등을 해놨을 때 마음의 인등을 켠 거는 비바람이 아무리 쳐도 꺼지질 않지만 그냥 등에다 불 켜놓은 거는 비바람이 치면은 꺼져요. 요새는 또 전기 전력으로다가 켜놓는

오늘 죽은들 어떻고
내일 죽은들 어떻고
모레 죽은들 어떻고
안 죽은들 어떻고,
뭐가 걱정입니까?
그냥 그대로
수박을
용기 있게 깨뜨려서
먹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합니다.

거니까 전력만 나가면 그냥 꺼지죠. 하하하. 그런데 마음의 등불은 전력이 나갔든 비바람이 치든, 억수 장마가 들든 물에 잠기든, 산 속으로 들어가든 그거는 상관없이 꺼지지 않는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있는 것이 그 인등이지 여러분이 돈이나 몇 푼 스님한테 갖다 던져놓고 그것 켜달라고 쪽지나 붙여서 켜놓는 게 인등이 아닙니다. 그건 도깨비등이지 인등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느 스님네들은 날 욕을 하겠지만 욕을 먹어도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정말 이거를 자세히 말을 하려면 길어서 이건 끊어버리고 얘기하겠습니다. 요다음에 또 하죠.

세번째로 이제 지금 위패를 다 붙여놓습니다. 위패를 붙여놓는데 지금 시대에 그게 걸맞습니까? 첫째, 걸맞지 않고 둘째, 또 우리가 고상치도 못한 데다가, 영령들을 조상님들을 모실 때 그것은 모셔서 비뚤어 매놓는 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미국에 부모들을 모셔다가 영어를 못하니까 그냥 방에다 가두어 놓고는 그냥그냥 자기네들만 돌아다니는 것과 같이, 조상들을 꼼짝 못하게 위패를 해서 붙여놓고선 그냥 자유스럽게 나고 들지 못하게끔 해놓는다 이겁니다. 그러니 어찌 조상을 나의 생명과 같이, 내가 또 조상이 되고 자식이 되고 조상이 되고 하는데 거기다 꽁꽁 뭉쳐 놓고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낼 때 부모를 모셔다가 대접하고서 그냥 또 자유스럽게 해드릴 수 있게끔 위패를 태워드리는 겁니다. 태워드릴 때도 물을 큰 그릇에다 떠다 놓고 향 피워놓고 초 켜놓고 태워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식들을 가두어놔도 죽겠느니 살겠느니 하고 삐뚜로 나가고 야단들인데 아, 체가 없다고 조상들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즉 조상이고 조상이 즉 우리들이니깐요. 그렇게 해놓는다면 그 조상들이 빨리빨리, 우리가 개선을 해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 천도를 시킬 때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도 그렇고요. 음식을 잘 차려서 이렇게 해놓는다면 '너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렇게, 쓰고 단 거를 먹어가면서 고생을 해라.' 하고 묶어 놓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밥 한 그릇 가지고 이 세상 만물만생을 다 먹이고도 밥 한 그릇은 되남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짜고 달고 그런 거, 맛이 없고 있는 거 그런 거를 쭉 차려놓고선, 자꾸 관습에 얽매이고 집착에 얽매이고 그러게끔 만들어서 오히려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치가 지금 너무도 많습니다.

선종이 많이 태어나야 될 텐데, 모르는 어리석은 악종이 많이 태어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며,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주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5년 9월 17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칠성상회 복합기 사은할인 판매



OKI MB471 DN -흑백
소규모 사무실과 업무 그룹을 위한 4가지 기능을 하나로(복사/인쇄/칼라스캔/팩스)
- 10명이상 동시 사용가능
- 해상도 1200dpi
현대불교신문 구매가 :
420,000원(vat 별도)
- 설치비 3만원 별도(배송시 지불)
토너 별도구매 :68,000원(용량:4,000매)
임대시 : 4만원/월

OKI MC561 DN-컬러
소규모 사무실과 업무 그룹을 위한 4가지 기능을 하나로(컬러복사/인쇄/칼라스캔/팩스)
-10명이상 동시 사용가능
-자동양면 인쇄 가능
현대불교신문 구매가 :
565,000원 (vat 별도)
- 설치비 3만원 별도(배송시 지불)
토너 별도구매 :105,000원*4색(용량:5,000매)
임대시 : 5만원/월

구매 문의 및 상담 : 칠성상회 02-879-2007 카드결제시 홈페이지 방문: www.7-star.net
입금계좌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세월호법 호소문 전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두고 정부와 시민단체, 여당과 야당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불교계가 화합의 지혜를 모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조계종과 천태종이 9월 1일 발표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호소문은 이런 점에서 국민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아래는 두 총무원장 호소문 전문이다. 〈편집자 주〉

"국회는 '민생법안' 외면치 말아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세월호 참사는 국민 모두의 아픔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잊지 않겠다는 국민적 합의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진실 규명과 국가 혁신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그 첫걸음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입니다. 그러나 여야는 두 번의 합의와 번복, 장외투쟁 등으로 국민들을 혼란과 갈등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정쟁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됩니다.

여야 정치 지도자,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야는 장외가 아닌 국회에서 대화를 해야합니다. 여야는 국회에서 진지하고 끊임없는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언어와 무책임한 행동은 국민들에게 절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국민들이 외면하는 정쟁을 접고 여야간 직접 대화에 나서 책임있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은 나라가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민생법안 처리도 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국회여야 정상적인 것이며 그러할 때 국민들이 외면하지 않고 힘을 모아줄 것입니다.

유가족 여러분, 국민에게도 짐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족도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국회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여야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유가족과 함께 하겠다는 국민들의 거룩한 마음을 믿고 짐을 나누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자기 자리와 일상으로 돌아가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함께 모아야 합니다. 그것이 세월호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야 지도자들은 세월호 아픔을 치유하고 본연의 일에 충실하도록 화쟁의 정치를 보여줘야 합니다. 낮은 자세로 귀기울이고 포용하여,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든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노란리본 힘으로 새 시대를 엽시다"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우리 국민에게 커다란 슬픔을 안겨 주었고 그 아픔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온 국민이 더 없는 안타까움과 더 없는 슬픔 속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국가와 정치권은 국가혁신을 통한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대한 국가적 노력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온 나라를 뒤덮은 노란 리본은 같은 고통을 두 번 겪을 수 없다는 온 국민의 마음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재난을 예방하는 지혜를 모으자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정치권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 뜻을 이루기 위한 행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여야 정치권은 세월호 특별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았고, 온 국민의 아픔을 담보로 극한 대립 구도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합의를 깨고, 신성한 의사당을 두고 밖에서 투쟁하고, 세월호 참사를 정치 수단으로 삼는 세력을 보면서 국민은 또 한 번 좌절하고 통탄하는 것입니다.

국회에는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의무가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그 신성한 의무의 영역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고, 그로인한 의견차와 대립 또한 국회 안에서 토론과 양보를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시급한 민생현안과 관련한 법안들도 세월호 특별법과는 별개로 다루어져 시들어 가는 민생을 보양해야 합니다. 국회는 입법기구의 신성한 의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가족 여러분, 그 아픔의 크기를 누가 가늠이나 하겠습니까? 온 국민은 그 고통을 나누기 위해 손을 내밀었고, 지금도 서로 맞잡은 손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여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지혜를 보태준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온 국민이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았던 그 힘으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거기에 국가 지도자와 정치권 그리고 사회 지도층의 대승적인 화합이 앞서야 합니다. 종교계와 문화계, 경제계와 정치권이 지금 화합하지 않으면 내일은 해가 뜨지 않는다는 각오를 다져주시기를 당부 합니다.

발언대

출가연령 상한 찬반론

조계종이 김천 직지사서 진행한 사미 · 사미니계 수계교육에는 남행자 73명, 여행자 41명 등 총 122명이 사미 · 사미니계를 받았다. 10년 전 근 300여명을 넘나들던 출가자 수에 비하면 대폭 줄어든 것이다. 출가자 감소 문제에 대한 불교 각계 의견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고령화 진행… 젊은 소수정예 필요



가섭 스님
前 조계종 교육부장

현재 출가연령 상한은 50세까지 되어있다. 여기서 더 이상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 출가자 수를 늘리는 것보다 젊고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관건이다. 종단의 지원책을 구체화해 현장의 스님들이 이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부분은 지난해 발효한 특별법에 반영돼 있다. 여러 혜택들로 인해 차차 나아질 것이다.

출가자를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홍보에 있다. 많은 이들이 출가의 길에 대해 잘 모른다.

출가인들이 세속과 떨어져 있는 지만 알며, 심지어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다. 출가의 길을 안내하는 적극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일환으로 교육원에서는 출가 장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총무원 뿐만 아니라 각 사찰에서 모바일 등을 활용해 출가에 대한 상담을 통해 안내하는 것 등을 활발히 진행해야 한다.

다른 차원에서 말하자면 출가자는 전문 수행자이기 때문에 수적으로 많은 것이 불교 중흥의 대안은 아니다. 출가자가 사회적 역할도 수행해야 하는데 산중에서 수행만 한다면 이또한 큰 문제다. 전법 도생이라고 하는 큰 원력으로 수행과 공부한 내용을 회향해야 한다.

적은 수가 출가하더라도, 많은 스님들이 사회 흐름에 부응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보면 출가 연령을 높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35세까지 낮춰 젊고 유능한 인재를 소수정예인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불교계는 이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대해 불교계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회향출가 · 단기출가 활성화가 해답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먼저 밝히자면 부처님 당시 출가 연령 상한은 없었다. 연령을 제한을 둔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처님 당시 계율에 맞지 않다.

출가자 문제는 출가자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다. 연세가 높다, 낮다를 떠나서 수행과 전법에 자질을 갖춘 스님이냐가 중요하다.

출가자 수를 확보한다고 해서 출가자의 질을 높이는 데는 해결방안이 되지 않는다.

출가자의 수와 질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는 출가제도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년퇴직을 하고, 세속에서 생활한 분이 자기 삶을 회향할 때 봉사하는 '회향형 출가제도' 를 둔다면 인적 문제는 해결 될 수 있다.

어느정도 세속에서 경험이 많은 이들이 불교에 회향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회향출가의 스님들은 종단 교역직 보다는 봉사직에서 활동하게 한다면, 일반적으로 출가한 이런 분들이 종단에 요직을 맡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위치를 갖는다면 출가연령에 따른 승가간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청소년 출가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

세계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종교인이 줄어들고 있다. 어떤 방책을 써도 출가자를 늘리기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출가 홍보를 위해서는 단기출가, 기간 출가를 늘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기간 출가를 통해 일정기간 출가를 체험하는데, 기간 체험은 3~5년을 출가를 체험하며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불교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승가의 역할이다. 세상이 변화하듯, 승가도 변화해야 부처님 법을 꾸준히 전할 수 있다.

社說

'이행합의' 보다 소통 정신 살리기를

조계종과 대각회가 9월 1일 비공개로 이행합의를 체결했다. 5개항으로 작성된 이행합의서는 대각회를 종단 특별교구화하고 중앙종회의원을 배정하는 것을 노력하고 대각회의 신규사업은 대각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재)대각회의 조계종 법인 등록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사실 조계종과 대각회의 이행합의는 2000년 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실제 조계종과 대각회는 2000년 합의문을 통해 용성문도회 소속 스님이 설립한 사찰에 한해 20개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규 사찰을 허용하고 대각회에서 요구하는 특별교구화 등의 법인 처우 문제는 종헌 개정 시 다루도록 한다 등을 결의한 바 있다. 그래서 조계종과 대각회 이사회는 이 같은 합의가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법은 기본 바탕에는 강제성을 규약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역시 우후죽순 늘어나는 법인들을 관리해 법인 사유화를 경계해 삼보정재가 유출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 본래 취지이다.

그럼에도 법인 등록을 위해 먼저 대형 법인과 합의하고 중소 법인에 법을 적용하는 것은 자칫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또한 관련법이 허용하는 선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하지만 이를 전례로 다른 법인들이 합의를 요구할 경우 본래 법 정신은 퇴색될 여지가 크다.

2년간 이행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기한다고 대각회 이사회에서 결의한 만큼 갈등의 소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일간에서 이를 미봉책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법인관리법은 분명 각종 관계들이 얽힌 복잡한 문제이다. 그래서 더 소통하고 낮은 곳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대각회 분원장들의 의견도 일방적 진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다. 지도층 간의 합의보다는 아래와의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태고종 불협화음 종단안에서 해결하라

오호통재라. 태고종이 위기다. 원로회의가 지난 8월 28일 총무원장, 종회의장. 호법원장 등 3원장의 퇴진 결의를 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퇴진의 주 대상은 도산 총무원장이다.

독단과 전횡을 일삼았다는게 원로회의 퇴진 결의 이유다. 이에 대해 해당 당사자인 도산 총무원장 스님은 질타와 경책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지만 물러날 뜻은 없으며, 오히려 종단 부채 문제와 관련된 스님들을 일벌백계하겠다고 천명했다.

즉 종단 부채의 귀책 사유자 정리 없이는 종단의 안정과 화합은 어렵기 때문에 일시적 혼란이 생기더라도 개혁의 고삐는 늦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양측 입장이 이렇게 팽팽히 맞서면서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가뜩이나 요즈음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와 윤일병 구타 사건 등으로 슬픔에 잠겨 있다. 그런데 그들을 위로하고 화합에 앞장서야할 종교계가 오히려 반목과 갈등으로 일천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모름지기 수행자는 부처님 법에 의지해야 한다. 서로의 입장과 주장이 다르겠지만 동업중생과 동체대비의 마음을 갖고 그 다름의 차이를 인정한다면 얼마든지 해결의 실마리는 풀릴 수 있다.

수많은 스님들중 태고종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수행과 포교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지중한 인연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당부 드린다.

태고종은 47억원이라는 발등에 떨어진 부채가 있다. 급히 꺼야 될 불이다. 이런 중요한 시국에 서로 싸움만 한다면 종단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하루속히 이 불협화음들이 종단 안에서 지혜를 모아 화합의 하모니로 바꿔지기를 간절히 발원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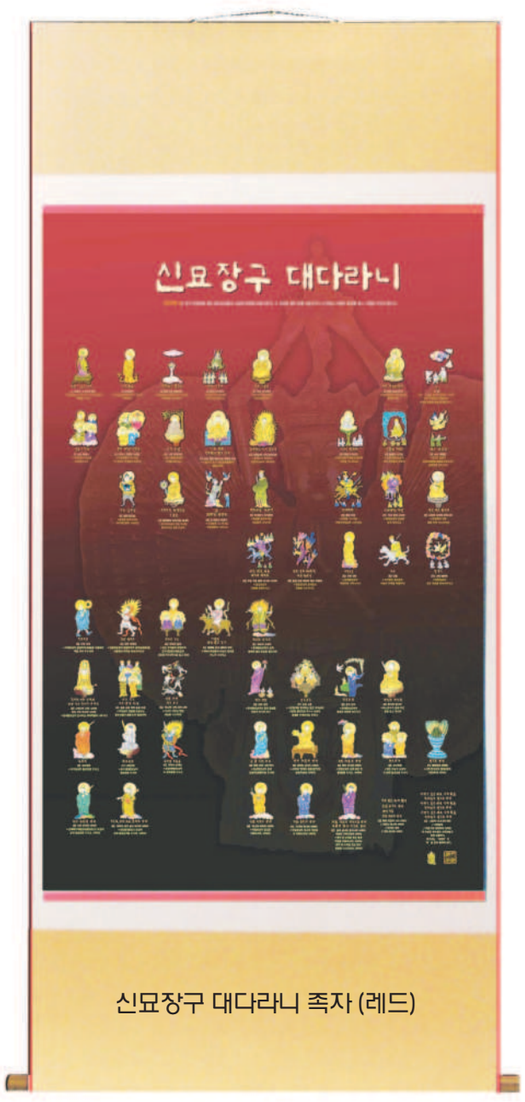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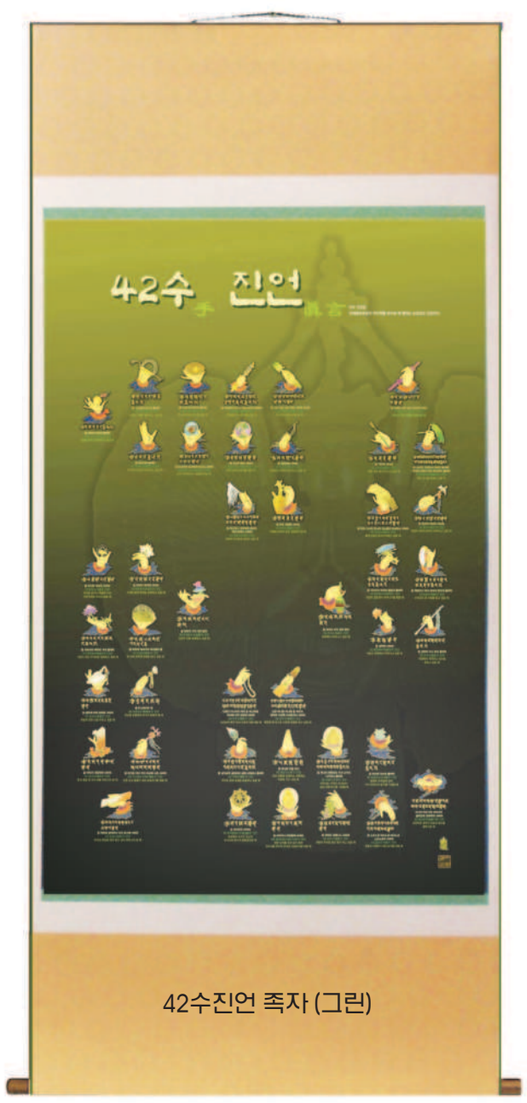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이 책을 읽으면 다시는 헤매지 않고
이 법을 실행하면 가볍게 생사를 벗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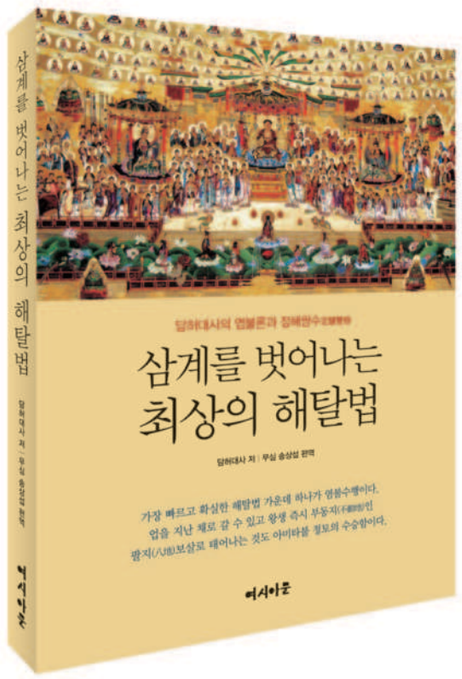
해탈의 돈법(頓法)이 설파된 보배로운 책

염불처럼 강한 해탈(三界超脫)문이 없고 선정같이 빠른 증득(開悟成就)문이 없다.

염불은 정토왕생에 제일 확실한 방편이다.
닦는 이마다 하나같이 죽음도 능히 정복할 만큼 편안히 미소 지으며 정토왕생을 쉽게 성취한다.
선정은 심통(큰 깨달음)을 얻는 제일 똑똑한 수행법이고 닦으면 번뇌가 싱거울 만큼 전심(全心)이
성취되는 부사의(不思議)한 큰 도력을 얻는다.

염불을 정진하고 누가 극락왕생을 못하며 선정이 숙달되고 누가 개오(開悟)를 못 이루는가?
염불에 득력하면 생사를 가지고 놀고 선정에 득력하면 마음을 가지고 논다. — 본문 중에서

본서는 중국의 고승 담허(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이다. 내용이 간략하고 더없이 명확하다. 헤맬 필요가 없는 가장 중요한 해탈법의 핵심을 염불수행을 중심으로 말해주고 있다.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해탈하게 되어있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완벽한 해탈문, 정토왕생법
가장 빠른 해탈법(神通乘)
제일 확실한 해탈법(金剛乘)
너무도 놀라운 해탈법(不思意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해탈법(最上乘)

신간

담허대사의 염불론과 정혜쌍수(定慧雙修)

삼계를 벗어나는 최상의 해탈법

담허대사 | 송상섭 편역 | 신국판 | 무선 | 부분컬러 | 232쪽 | 12,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서점에서 판매 중 • 출판 및 구입 문의 (02)2632-8739 • 도서출판 여시아문과 비움과소통은 자매 출판사입니다